

[문제제기] 생활·일상·세상(世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와모토 미치야

번역: 김 현정

들어가는 말: 문제의 구조

이 글에서는 이틀 동안 개최되는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무심한 일상/변해가는 일상: 어쩌서 고민하고 어떻게 포착하며 어떤 방법으로 기록할 것인가?』에서 다룰 몇 가지 문제들을 부감하고 그 연구의 틀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일본사상사 연구의 태두 해리 하르투니언은 그의 저서 『역사의 요동: 근대성,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일본어 번역서는 2011년[こぶし書房], 한국어 번역서는 2006년[휴머니스트]에 각각 간행)에서 전쟁이 이어지던 기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일상성(Everydayness)에 관한 의문이 부상했던 의미를 천착하였다.

하르투니언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연이어 일어났던 1920년대~1940년대에는 독일,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국가와 일본에서 사회 편성을 교란시키고 변혁을 가져오는 일상성이라는 물음(개념 및 사상)이 절실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맞서려는 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했다.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전개 속에서 소비문화가 무르익으려던 시대이자 다른 한쪽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대중은 스스로 일상성의 역사를 구축하고 표현하는 능동성=에이전시(agency)를 소유할 수 있음을 증명한 시대이기도 하였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5]. 하르투니언은 ‘일상이라는 신비’를 밝히고자 했던 발터 벤야민, 게오르크 짐멜, 보리스 알바토프, 마르틴 하이데거 등보다는 약간 늦었지만, 일본에서도 곧 와지로의 고헌학과 도사카 준의 『풍속과 사상』(三笠書房, 1936년)이 등장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의 『샬러리맨』(1930년)[크라카우어 1979]과 대비되듯이 아오노 스에키치의 『샬러리맨 공황시대』(先進社, 1930년)가 저술되어 화이트칼라 계급의 곤경이 민족지적으로 발표되었던 일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54~55]이 글로벌 자본주의와 모더니티가 전개되면서 나타난 한 단면이었음을 논하였다. 야나기타 구니오² 등에 의한 민속학이라는 학문도 같은 흐름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으며, 이는 연관된 사상사의 조류 속에서 파악되었다.

하르투니언에 의하면 다양한 조류들의 공통점은 “잊혀진 질적 시간을 구해 내고 과학과 자본에 의해 손상된 직접적인 주체적 경험을 삶의 형태로 복원시키고자 한 노력”에 있었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6]. 근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특징지운 것은 벤야민의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ベンヤミ

ン, 2015: 61]('역사의 개념에 대해', 1940년)이었다. 서양 이외의 지역에서의 모더니티(근대³)를 일 본을 사례로 분석한 하르투니언이 벤야민의 이해를 넘어서 역설한 것은 균질이 아니라, 근대 자본주 의의 중심과 주변 사이의 불균등을 내포한 글로벌한 동시대적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거시적 구조론⁴이라기보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된 미시적 장면에서의 생활 경험과 담론, 그리고 불균등한 발전 속에서 자본주의가 체험한 경험[樹本, 2011: 276]에 대한 관심에 기초해 있었으며 하르투니언 은 이를 '일상성'이라고 이름붙였다. 이러한 일상성에 대한 관심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비서양 국가 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1. '생활': 대상으로서의 생활 변화와 생활 개선

(1) 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생활개선운동

이 심포지엄의 제 I부 '생활'에서는 생활 변화와 생활 개선이 논의의 대상이다. 1920~30년대 한중 일에서 거의 동시에 배태되고 전후 개별적으로 전개된 생활개선운동·신생활운동을 오키나와⁵· 타이완⁶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비교를 통해 그 동시대성과 이질성을 시야에 넣어 전후 일상사적 생활변화 를 상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이러한 운동들은 전후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도로 시작되어 농업개발보 급원이나 생활개발보급원⁷이 매개자가 되어 이뤄졌다.⁸ 그러나 1934년 장개석이 제창한 신생활운동이 의식주의 개혁에서 강국화를 목적으로 삼게 되고 내지에서 선구적으로 생활상태조사⁹가 실시된 식민 지 조선에서는 총독부의 교화정책에 대항하여 조선일보사 주도로 1929년에 생활개신운동¹⁰이 일어났 다. 비교대조사적 관점을 통해 이러한 운동들을 보다 조감적·다면적으로 논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변적 일상을 개혁하는 움직임은 한국의 경우 새마을 운동의 저류를 이루어 갔지만, 일본의 경우 에는 1941년의 『국민예법』이 사람들의 기거동작을 세세히 규제하였다.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있지 만 병행되는 경향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보잘 것 없는 신변의 세세한 '생활'에 초점을 맞춘 이 러한 운동은 사람들의 일상을 교란시킬 수 있는, 적어도 그 대상이 된 일상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분명하다.

(2) 다영역의 생활개선운동에의 주목

오늘날 생활개선운동·신생활운동에 대해서는 민속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축적 되어 있다. 우리 연구 그룹의 기초하는 다나카 센이치 편 『생활 혁명: 전후 농촌의 생활개선사업과 신생활운동』(農文協, 2011) 외에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일본 근현대사 오카도 마사카쓰 편 『신 생활운동과 일본의 전후: 패전 이후 1970년대』(日本經濟評論社, 2012)를 비롯하여 중국 근대사에 대 해서도 후카마치 히데오의 『신체를 길들이는 정치: 중국 국민당의 신생활운동』(岩波書店, 2013)이 간 행되었다. 이 연구 성과는 단서총의 『장개석과 신생활운동』(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6) 이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¹¹

일본의 생활개선운동·신생활운동은 전후 농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운동을 말한다. 다만, 1934년의 장개석에 의한 신생활운동을 1955년 하토야마 이치로 수상이 주창한 신생활운동이라고 같 은 명칭만을 가지고 오해하는 일이 종종 있어 유감스럽다. 중국, 한국, 일제강점기의 조선·타이완에 서의 생활개선운동과 전후 오키나와의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은 동아시아 근대에 공통된 모더니제이션의 일련의 동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심포지엄의 특색은 각 운동을 개별적으로 다루 지 않고 동아시아의 근현대 속에서 상대화시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생활개선운동이란 총

리부 계통의 신생활운동과, GHQ의 농촌개혁의 일환으로 농촌 민주화를 위해 1948년에 시작된 농림성 계통의 생활개선보급사업의 두 가지를 말한다(다만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쟁 중에 이루어진 문부성의 생활개선사업을 포함시키거나 유사한 사업을 전개한 내무성의 민력함양운동, 1932년 이후의 농상무성의 농산어촌 경제개생운동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보통 문부성의 외곽단체로 1920년에 설립된 생활개선동맹회가 그 기점으로 인식된다. 복장, 식사, 주택에서 사교의례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관한 개선과 합리화를 의도한 운동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도시 중류층(신중간층)의 주거 생활의 개선이 주된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전술한 두 권의 책에서 다루어진 전후 농촌의 그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편 산업조합중앙회 등과 같은 관제 단체도 유사한 사업을 전개했다. 또 부현과 시정촌이 직접적으로 개선사업에 관여했고 생활개선을 위한 반관반민의 단체를 조직하는 일도 많았다. 경제학자 모리모토 고키치가 1922년에 설립한 문화보급회처럼 생활개선운동을 민간에서 행하는 사례도 많았다[久井, online]. 또 생활개선동맹회 이전에 있었던 근검역행, 허례폐지 등을 주창한 보덕사 운동, 정촌시조사운동·지방개량운동을 같은 경향의 운동으로 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사실 생활개선운동의 ‘외연’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life, leben과 같은 서구어의 번역어로서 근대 일본어로 등장한 ‘생활’이라는 말²⁾의 본질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겠다.

(3) ‘생활’에 대한 주목과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변혁

기본적 의미에서의 ‘생활’이란 생존해서 활동하는 것, 살기 위해 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가리킨다. 인간 생존이 당연한 것이 되었어도 그 ‘삶’의 질에 관심을 갖은 후에야 쓰이게 된 개념이 ‘생활’이었다[森本, 1921: 4; 中寫, 1975]. 비슷한 근세어로는 「도세(渡世)」, 「생업(生業)」, 「활계(活計)」 등이 있었지만, 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생계의 식량, 수단,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생애를 ‘선(線)’으로 이해하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내무성이 주도한 민력함양운동³⁾은 5대 요강 중 하나로 ‘근검을 역행하고 미풍을 작흥하며 생산 자금을 늘려서 생활 안정을 꾀할 것’(방점은 필자)을 들었다. 지방개량운동에서도 강조된 유교 덕목인 ‘근검 역행’뿐만 아니라 ‘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이전의 관념론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의 사람들의 삶을 직시하고 개량 가능한 객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실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세계대전 이후의 본격적인 공업화와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생활난’이 문제가 된 대도시에 사는 신중간층, 이른바 봉급만으로 생활하는 봉급생활자의 등장이 ‘생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출현시켰다[岩本, 2011]. 가계조사나 국제조사 등 ‘생활’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그와는 대조적으로 ‘생활’을 통째로 파악하려는 학문, 즉 민속학이 여러 나라에서 탄생했다[バウジンガー, 2005: 95]. 야나기타의 3부 분류가 ‘생활 외형·생활 해설·생활 심의’이며 『명치대정사세상편』(이하, 『세상편』)의 마지막 장이 ‘생활 개선의 목표’라는 점은 시사적이다. 이 심포지엄은 학문의 초창기에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출발했던 민속학의 의의를 중시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한 위와 같은 움직임에서 중요한 점은 민중 스스로 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적 실천을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총독부의 교화 정책에 대항한 조선일보사 주도의 생활개신운동이나 동아일보사의 브나로도 운동 등이 그 전형인데, 위로부터의 시책만으로는 사람들의 생활은 쉽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러일전쟁 이후의 지방개량운동은 풍속을 개량하고자 했고 허례와 음력의 폐지, 위생관념의 보급 등을 주장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다음 시대로 넘겨졌다. 즉 ‘보통 사람들,’ 즉 주민들에 의한 창의력과 양식을 갖춘 주체적인 생활실천운동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시대를 앞선 소비지향성을 촉진하는 형태로 비로소 변혁이

실현되는 것이다. 농림성의 농업개량보급원, 생활개량보급원은 어디까지나 매개자에 지나지 않았다. 전후 일본의 생활개선운동을 ‘참가형 개발’의 모범적 모델로 보는 개발 경제학이나 개발 인류학에서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에 응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내발적 실천이다.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한중일 발전에 기초를 마련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능동적이고 버 내쿨러한 실천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어쩌서 일상습관의 개선이었는가?

GHQ는 전쟁 직후 재결성된 청년회, 부인회에서 국방부인회의 어용단체적 성격을 제거하고 지도 자에게 맹종하지 않는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농민’의 육성을 중시했다. 전기세탁기, 청소기, 텔레비전, 전기밥솥, 냉장고 등의 보급을 가전 기업의 발명과 마케팅의 측면에서 논함으로써 고도경제성장기의 역사를 살펴보는 연구는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고도경제성장 뒤에 묻혀버리기 쉬운 ‘보통 사람들’의 생활 실천을 적어도 우리 민속학자들은 생활자의 시점에서 보고 듣고 있다.

하지만 상술한 운동을 짚어졌던 세대는 현재 고령화했고 지금이 당사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과 제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 버렸다. 그들이 스스로를 농촌 민주화의 주인공이라 여기고 적극 적으로 신변의 생활을 개선한 것은 1950년대 전후부터 1960년대 전반에 한정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광복 이전의 운동을 계승한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긍정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급감하고 있고, 국 민당의 타이완 이전 후에도 인민공사가 생활 개혁을 담당했던 중국에서도 1978년에 생산책임제를 도 입한 후 1983년 사이에 인민공사는 해체되었다. 그 이후의 슬로건이 없는 시대에 ‘보통 사람들’은 어 떻게 생활에 질서를 부여해왔는지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다.¹⁴ 이 심포지엄에서는 ‘지금 여기’에도 영향 을 끼치고 있는 문제, 즉 후카마치가 지적한 것처럼 국가가 심각한 내우외환에 직면했을 때에 어쩌서 행동거지 등의 일상 습관의 개선이라는 피상적이고 사소하게 보이는 운동이 시작되어 많은 대중들이 동원되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는지[深町, 2013: 7~8]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간이수도의 설치, 파리, 모기, 쥐와 같은 가정 해충의 구제, 개량 부뚜막을 비롯한 부엌 개량 및 요리강습회, 육식, 변소, 배수의 개량이라는 보건위생사업, 시간업수, 기거동작의 개량, 관혼상제의 간 락화, 인습 타파, 출산조정, 피임방법의 지도강습회 등 활동내용은 다양하다. 농림성의 생활개량보급 원과 농업개량보급원, 후생성의 보건부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성도 여전히 밝혀지고 있지 않 다. 이들이 어떤 과정 및 메커니즘을 통해 각 지역과 가정에 도입·소비되었는지, 한중일의 비교 대 조를 통해 무엇이 유사하고 다르기에 유의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생활 경험을 두텁고 깊이 있게 기술 해 나가야겠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 일본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운동, 중국의 화장실 혁명들과 는 시기나 맥락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평범한 행동거지와 같은 당연한 일상적 ‘생활’이라는 영역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동시대적 예폭이었다.

2. 개념으로서의 ‘일상’: 각각의 수용과 전개

이들째 오전 중의 제Ⅱ부에서는 ‘일상’ 개념의 한중일 각국에서의 수용과 전개, 발전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일상’이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진행되 었다. 왜냐면 하르투니언이 일대 파노라마와 같은 연구를 실천한 것처럼 일상 연구에 대해서도 다양 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어 그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뒤에는 독일 민속학의 ‘일

상' 개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李, 2015].

1970년 팔켄슈타인 원칙 이후 1980년대 말에 걸쳐 '일상'(alltag)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이 전개되었고, 캐롤 립[Lipp, 1993]이 논한 바와 같이 사회학, 역사학의 경계에서 일상문화연구가 늘어났다. '노동자 문화'(Arbeiterkultur)라는 일본에서는 생소한 영역에 대한 연구가 '일상' 개념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렇듯 각국의 실정이 일상 연구의 전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한국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살림살이 연구와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岩本, 2015; 金, 2016]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서울시립역사박물관의 연구를 소개해 보겠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특별전을 보면 이전 심포지엄의 테마이기도 했던 적층형 집합주택을 다룬 '아파트 인생'을 비롯하여 '서울의 푸줏간', '응답하라 1994, 그 후 20년', '신림동 청춘: 고시촌의 일상', '세상을 찍어내는 인현동 인쇄골목', '아파트 숲이 된 북서울', '남대문시장'과 같은 대담한 기획이 줄줄이 개최되었다. 일상 혹은 일상사적 기획전시가 매년 거의 정기적으로 다수 열리고 있으며 한글판 홈페이지에서는 각 전시의 카탈로그(e-book)를 무료로 입수할 수도 있다. 그중에서도 고시생과 그들의 하숙집에서의 일상을 그린 신림동 청춘이라는 민족지는 매우 뛰어나다.

그럼 민속학에서 '일상'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독일 민속학의 게르트가 쓴 입문서를 통해 살펴보겠다. "민속학은 폭넓은 주민 집단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 시선은 과거 및 현재의 문화 표출에 맞춰진다. 민속학이 묻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어째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이다. 즉 우리들과 생활 공간·경험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현재 어떤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과거에는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를 묻는 일이기도 하다"[Gerndt, 1997: 25].

단순히 일상생활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연해지는 과정(일상화)을 대상화하는 시선이 내포되어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알브레히트 레만의 '일상 이야기'에 대해서도 발표될 예정이다.¹⁵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이라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일상뿐만 아니라 (일상에 매몰된) 당연한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방법으로서의 일상이라는 물음도 내포된다. 독일의 일상도 각국의 민속학에서 수용하는 방법은 다르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그 수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3. 방법으로서의 '세상': 변화하는 일상을 어떻게 파악·기록할 것인가?

이들째 오후 제Ⅲ부는 '세상'이라고 명명하고 그 방법으로서 변화하는 일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위에서 인용한 게르트의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연해지는 과정이라는 변화를 포함한 접근법이 핵심이 된다. 문제는 '지금 여기'를 아무리 민족지적으로 기술하더라도 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과거 저기'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한편, '세상'이란 야나기타의 세상편의 '세상'이다. 『元祿世相志』(齊藤隆三, 1905, 博文館)에서 만들어진 조어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 한자어가 통하지 않는다. 한자어권에서 통용되는 비슷한 말로 '세태'가 있다. '세상'은 시대정신, 사회상황, 풍속에 공통되는 시대적 특징이나 전체적인 '相'을 표현하는 신조어이다[岩本, 2002]. 야나기타도 세상편을 "세상의 변화, 즉 풍속에 관한 책으로 쓴 것"[柳田, 1954: 3]이라고 말했는데, 항상 변하는 일상의 추이에 초점을 맞춘 용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 여기'라는 즉시적이고 지나가는 일상과 "눈앞의 새로운 현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柳田, 1993: 19]이라는 세상사적 일상을 어떻게 하면 연관지을 수 있을까? 전자의 일상 연구를

시간이 불특정하고 현주소·소재지가 불분명한 내용의 민족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 측 등단자를 제외하면 일상의 변화나 세상에 대한 언급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논의되는 ‘생활세계’나 ‘생세계,’ ‘공간적 실천’이라는 표현은 개인에게만 닫혀져 있는 세계가 아니다. 외부와의 연결 없이는 생활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고찰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연결된 인간관계나 사회까지도 비추어준다. ‘생활세계’란 판단 이전의 개인의 지각적·직관적 환경일 뿐만 아니라 주관이 타자와 함께 살아 있는 상호주관적이며 간주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침전된, 매일 매일의 일상 실천이 누적된 역사적인 세계이기도 하다.

나오는 말

이번 논의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족적을 남기는 것이 하르투니언이 강조한 ‘일상성’(Everydayness) 그 자체이며 우리들의 미래를 다시 쓰는 체험된 경험 입에 틀림없다.

하르투니언은 “도시의 일상성이 생산한 다양한 기호는 체험된 현재의 개별적 경험과 역사적 차이의 특징으로서 하나의 ‘잔상,’ 과거에 구현화(actualize)되었던 흔적—그 속에서는 현재가 새로이 다르게 배치되며 구현화된다—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54]. ‘잔상’이란 “과거에 구현화되었던 흔적”이다. 그리고 이를 현 시점에서 다르게 배치하여 구현화하는 것이 문화¹⁶를 버내쿨러(vernacular)한 형태로 재배치해가는 생활 실천이라 바꾸어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르투니언에 의하면 “일상성이 의미한 것은 현재의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과거를 ‘지금’이 구현화시키는 방식이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기재성’(既在性)이 아니라, ‘잊혀졌지만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55].¹⁷ 다시 말해, “현재의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과거를 ‘지금’이 구현화시키는 방식”이란 항상 과거, 즉 문화를 참조 기준으로 삼으면서 현재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실천이나 액추얼리티를 말한다. 과거를 망령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상성의 ‘지금 여기’가 기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注

- 1 영문 원본은 똑같이 2000년에 간행된 『근대의 초극: 전간기 일본의 역사·문화·공동체』[ハルトゥーニアン, 2007]이 보다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쓰여졌다. 사상으로서의 일상성이 갖는 세계사적 동시대성을 거시적으로 주제화한 『역사의 요동』과는 한 쌍을 이루는 연구서이다.
- 2 야나기타에 관해서는 『역사의 요동』보다 「국민 이야기, 망령의 출현: 근대 일본의 국민적 주체의 형성」[ハルトゥーニアン, 2010]이 보다 상세하며 야나기타와 민족학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도시와 농촌』, 『정치대정사세상편』을 높이 평가했지만, 주4와 같은 의미에서 민족학 자체는 오리구치 시노부에 대해 기술한 맥락 속에서 ‘망령의 출현’으로 평가되었다.
- 3 하르투니언과 역자는 모더니티를 ‘근대’와 구별해 사용했다. ‘근대의 초극’을 주제로 논한 『근대에 의한 초극』에서는 “근대라는 용어가 예술, 문화, 정치 체제의 고유성을 은폐”한다고 지적하였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07: 4].
- 4 하르투니언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분단과 단편화된 생활 속에서 “일체화를 재획득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짓 약속을 하는 담론도 생겨나고 있다. ‘영원성’이라는 이념에 대한 충동은 공업화가 진행되던 1920년대와 30년대에 나치즘과 같은 영속적 민족 공동체에 대한 확신, 혹은 역사를 초월한 이념이나 가치의 능력을 신봉하는 관념론 철학에 나타나는 ‘숭고한 자기 기만’(막스 호르크하이머)으로 구체화되었다”[ハルトゥーニアン,

- 2011: 7].
- 5 전후 미군 USCER 지배 하 오키나와에서 이루어진 생활개선보급사업은 가가야에 따르면 대학을 보급사업의 거점으로 하는 등 미국형 Home Living Improvement Research and Extension Program의 영향이 컸다 [加賀谷, 2017]. 일본 본토의 경우 전전 독일을 비롯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생활합리화운동을 모델로 한 생활개선운동[藤原, 2016; 中野, 2008; 久井, online]이 기반이 되어 전후 농림성의 생활개선보급사업과 총무성의 신생활운동으로 이어져 전개되었다.
 - 6 일본 식민지 시대의 타이완 원주민에 대한 생활개선운동에 대해서는 [山路, 2004]를 참고할 것.
 - 7 GHQ의 지도 아래 농가 생활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1948년 농업개발조장법(법률 제165호)이 시행되고 농림성에 의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설명이 가장 일반적이다.
 - 8 이러한 모델은 최근 개발인류학적으로 응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자의 개발 현장에서 '개선'이 이뤄지게 되었다[太田, 2004].
 - 9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의 지역편은 1929년 수원군 이후로 7권이 간행되었다. 이 보고서들은 계량적 지역 분석이 그 내용을 이룬다. 타이완에서도 본토의 국제조사에 앞서 1904년에 '임시 타이완 호구조사'가 시작되었다.
 - 10 일제시대 운동은 1932년 이후 조선총독부 우가키 가즈시게에 의해 추진된 농산어촌진흥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1929년에 조선일보사가 시행한 '생활개신운동'과 1931년에 시작된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과 같은 계몽적 운동의 영향을 받은 민중운동도 중요하다. 전자에서는 건강증진·소비절약·허례철폐·일찍 일어나기·색의단발·상식보급의 여섯 항목이 강조되었으나 이후 글자보급운동으로 변화했다. 후자도 글자와 숫자에 대한 계몽이 중심이었지만 둘 다 총독부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松本, 1996; 宮本, 1998]. 또 이 시기의 1934년에 총독부 중추원이 가정의 유교식 관혼상제를 정리하여 규정한 '의례준칙'이 1973년에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6680호)으로 계승[丁, 2014]되어 오늘날 한국인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 11 사회 디자인학 분야에서는 전업주부에 의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小関, 2015]. 사회교육학 분야에서는 선행연구인 [久井, 2008]이 대상의 외연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또 건축학 분야에서는 다이쇼 후기의 생활개선운동이 도시 신중산층의 생활의 '모범'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곧 와지로에 관한 연구도 있다[黒石, 2015].
 - 12 생활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생활 개선에 관한 선구적 연구인 [中郷, 1974] 이후,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오제키 다카코(小関孝子)에 의하면, 생활합리화라는 말이 유행한 것은 1930년 이후이며,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면 소비나 오락까지도 장려했던 생활개선운동은 관동대진재 이후 생활의 간소화를 주장하는 논조로 변해갔다[小関, 2015: 89, 64].
 - 13 민력합양운동은 1919년 3월에 도쿄나미 다케지로 내상이 각 부현지사에게 내린 훈령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5대 요강을 기축으로 한 전후 경영사업의 총칭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즐고[岩本, 2008]를 참고할 것.
 - 14 중국 인민공사로의 연속성과 이후의 슬로건 부재의 생활개량 실천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다무라 가즈히코 씨로부터 조언을 얻었다.
 - 15 레만에 대해서는 [レーマン, 2010; 岩本・法橋・及川編, 2011] 등을 참고할 것.
 - 16 하르투니언에 따르면 "체험된 경험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물의 세부"가 중요하며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54].
 - 17 이어서 하르투니언은 "일상성이란 불온한 형식이며 공중에 매달린 순간이다. 이는 새로운 현재이며 전통을 폭력적으로 중단시키고 과거가 그리는 흐름이나 운동을 공중에 매다는 '역사적 상황'이다"[ハルトゥーニアン, 2011: 55]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 李相賢, 『ドイツ民俗学と日常研究—ドイツチュービンゲン大学民俗学研究所の村についての日常研究を中心に』, 『日常と文化』 1号, 中村和代・訳, 2015.
- 岩本通弥, 『世相』, 小松和彦・関一敏編, 『新しい民俗学—野の学問のためのレッスン』 26, せりか書房, 2002.
- _____, 『可視化される習俗—民力涵養運動期における『国民儀礼』の創出』,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41号, 2008.
- _____, 『家族をめぐる二つの生活改善運動—民力涵養運動と新生活運動』, 田中宣一編, 『戦後農村の生活改善事業と新生活運動』, 農文協, 2011.
- 岩本通弥・法橋量・及川祥平編, 『オーラルヒストリーと<語り>のアーカイブ化に向けて』, 成城大学グローバル研究センター, 2011.
- _____, 『“当たり前”と“生活疑問”と“日常”』, 『日常と文化』 1号, 2015.
- 太田美帆, 『生活改良普及員に学ぶファシリテーターのあり方—戦後日本の経験からの教訓』,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国際協力総合研修所, 2004.

- 小関孝子,『生活合理化と家庭の近代—全国友の会による「カイゼン」と『婦人之友』』,勁草書房,2015.
- 加賀谷真梨,『沖縄における生活改善普及事業の展開と受容』,生活変化/改善研究会、2017年4月15日発表,2017.
- 金賢貞,『韓国民俗学は『当たり前』を捉えうるか—韓国国立民俗博物館の2つの民族誌(2007~14年)を中心に』,『日常と文化』2号,2016.
- 樹本健,『訳者あとがき』,ハリー・ハルトウーニアン,『歴史の不穏』,こぶし書房(樹本健・訳),2011.
- ジークフリート・クラカウアー,『サラリーマン—ワイマル共和国の黄昏』,法政大学出版局(神崎巖・訳),1979.
- 黒石いずみ,『東北震災復興と今和次郎:ものづくり・くらしづくりの知恵』,平凡社,2015.
- 丁世絃,『近代期の韓国における儒教儀礼の変化』,『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7号,2014.
- 中野邦,『大正期における『生活改善運動』』,『史艸』15号,1974.
- _____,『大正期の生活論』,和歌森太郎先生還暦記念論文編集委員会編,『明治国家の展開と民衆生活』,弘文堂,1975.
- ヘルマン・パウジンガー,『科学技術世界のなかの民俗文化』,文楯堂(河野眞・訳),2005.
- ハリー・ハルトウーニアン,『近代における超克—戦間期日本の歴史・文化・共同体』上・下,岩波書店(梅森直之・訳),2007.
- _____,『国民の物語、亡霊の出現—近代日本における国民的主体の形成』,キャロル・グラクホカ,『日本の歴史25日本は何処へ行くのか』,講談社学術文庫(樹本健・訳),2010.
- _____,『歴史の不穏—近代、文化的実践、日常生活という問題』,こぶし書房(樹本健・訳),2011.
- 久井英輔,『大正後期・昭和初期の生活改善運動における<都市>と<農村>』,『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部紀要』44巻,2004.
- _____,『戦前生活改善運動史研究に関する再検討と展望—運動を支えた組織・団体をめぐる論点を中心に』,『兵庫教育大学研究紀要』32巻,2008.
- _____,『大正期の生活改善における<中流>観の動向とその背景』,『広島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61号,2012.
- 久井英輔 online『大正・昭和初期における生活改善運動の概観』,『生涯学習研究 e 事典』,最終アクセス日:2017年4月20日:
<http://ejiten.javea.or.jp/content.php?c=TWpRk5qTXo%3D>
- 深町英夫,『身体を躰ける政治—中国国民党の新生活運動』,岩波書店,2013.
- ヴァルター・ベンヤミン著・鹿島徹二訳・評注,『[新訳・評注]歴史の概念について』,未來社、2015年.
- 松本武祝,『1930年代朝鮮における農村振興運動—植民地権力による農民の組織化過程』,『商経論叢』32巻3号,神奈川大学,1996.
- 宮本正明,『植民地朝鮮における「生活改善」問題の位相』,『史観』139号,早稲田大学,1998.
- 森本厚吉,『呪ふべき二つの生活』,『文化生活』1巻3号,1921.
- 柳田國男,『総説』柳田國男編『明治文化史—風俗』,洋々社,1954.
- _____,『明治大正史世相篇』,講談社学術文庫,1993(初出:1931,朝日新聞社).
- 山路勝彦,『『文明化』への使命と『内地化』』,『台湾の植民地統治』,学術出版会,2004.
- アルブレヒト・レーマン,『意識分析—民俗学の方法』,『日本民俗学』263号(及川祥平・訳),2010.
- Helge Gerndt, *Studienskript Volkskunde*, Waxmann, 1997(ヘルゲ・ゲルント,『民俗学研究法』,1997).
- Carola Lipp, Alltagskulturforchung im Grenzbereich von Volkskunde, *Soziologie und Geschichte*. Aufstieg und Niedergang eines interdisziplinären Forschungskonzepts. *Zeitschrift für Volkskunde*, 89.Jg., 1993(カローラ・リップ,『民俗学、社会学、歴史の境界領域としての日常文化研究—学際的な概念の上昇と下降』,『民俗学雑誌』89巻,1993).

전승과 누습이라는 인식

다나카 센이치

번역: 김 현정

1. 일상 · 비일상 · 반일상

우리들의 무심한 일상을 뒤받침하고 있는 것은 전승이다. 전승은 인간사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던 문화이며 사회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일상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에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비일상이 관여하며 갑작스레 반일상이 끼어드는 식으로 변해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일반적으로 성과 속의 대립을 참고로 하여 우리의 생활을 일상과 비일상의 이항대립적 구도로 인식하려 하지만, 실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일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상이란 하루하루의 움직임, 음식, 사람과의 교류, 노동과 같은 것들이 영위되는 날이며 하루하루의 삶은 거의 이러한 날의 반복이다. 비일상이란 일정한 월일, 계절이 다가오거나 사람 혹은 집단의 성장 변화의 때마다 정해진 의례, 행사, 의식을 행하는 일이다. 이 또한 반복되는 것이기는 하나 매일 반복되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비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일상이란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재해, 사고와 같은 일들이며 전쟁 또한 물론 반일상적 일이다. 생활이 일상 · 비일상으로만 움직인다면 평온해서 좋겠지만 반일상이 끼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유감스럽게도 역사적 사실이다.

2. 전승과 전승문화 연구

전승이란 무엇인가?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구두로 전해지는 것들(이야기, 노래, 규범, 윤리관 등), 구두 혹은 신체 행동을 통해 전해지는 몸짓, 기술, 상호협동의 방식, 그리고 이심전심으로 계승되는 모든 관념

그리고 전해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해지고 계승되는 행위 자체를 포함하는 것이 전승이라는 문화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승은 앞에서 말한 일상과 비일상의 시공간 모두에서 널리 나타나며 집단적·유형적·지속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반일상에서도 전승적 행동이 취해지는 일이 있으나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일상에서의 행동은 그때그때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승에 의지하기란 어렵다.

위에서 전승이라 유형적·지속적이라고 했지만, 오랜 세월 속에서 주위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개변되거나 무의식중에 변화하거나 그중에는 소멸하는 것도 있다. 또 집단적으로 전해진다고도 했는데, 전승을 담당하는 집단에는 크고 작음이 있기에 그 집단 자체가 성쇠함으로써 전승은 지속되는 성질과 함께 오랜 기간 중에 변화해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승을 연구 대상으로 삼거나 연구 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승의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거나 영상, 회화, 도상 등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간사회가 성립된 때부터 존재하였고 조금씩 변화해왔을 전승의 내용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기에 오랫동안 전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미약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좀처럼 없었다. 따라서 일상·비일상의 영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전승문화를 문자로 기록하는 일은 없었으며 그림으로 정착시키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방대한 전승문화 중 구우일모에 지나지 않겠지만, 일본 고대의 경우 나라의 성립에 대한 전승이 『고사기』에 정리되었고 각지의 상황은 『풍토기』로 기록되었다. 이후 공가(公家)와 같은 관리의 일기, 기행문에도 일부 기록되어 남겨졌다. 또 시대의 필요에 따라 편찬되어온 유직고실서, 법령서에도 당시의 관습법적으로 전승되던 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를 좀 더 거슬러 내려와 에도 시대, 즉 17, 18, 19세기에 이르면 모토오리 노리나가와 같은 국학자들이 지방의 전승문화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였으며, 막부의 관리였던 야시로 히로가 타는 『제국풍속문상』이라는 일종의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해 각지의 제사축제, 연중행사를 비교하고자 했다. 즉, 전승되어온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기운이 싹트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시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스가에 마스미, 후루카와 고쇼켄처럼 각지를 여행하고 거기서 보고 들은 일상생활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긴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문헌들은 기록된 전승문화로서 귀중하다.

메이지 시대가 되자 연구자들은 『인류학 잡지』(『도쿄인류학잡지』)를 간행하여 유럽의 연구 상황을 소개하였다. 또 각지의 출토유물과 함께 전승도 적극적으로 소개되어 전승문화는 점차 연구 대상이 되어 갔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전승을 기이한 습속으로 보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지역 생활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전승이 내포하는 문화적 풍요로움이 분명히 인식된 것은 메이지 41(1908)년에 야나기타 구니오가 규슈 미야자키 현 시바무라 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의 일상생활 등의 전승을 접한 후 문화를 연구하는 데 전승이 지니는 중요성을 깨달은 다음부터이다. 이후 야나기타는 많은 문헌을 섭렵하고 거기에 기술된 전승문화를 찾아내어 연구의 재료로 삼았으며 관심을 갖게 된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야나기타 이전에는 전승의 풍요로움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기록된 전승자료는 적었다. 따라서 야나기타는 그의 생각에 자극을 받은 동지들과 함께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기록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쇼와 10(1935)년 전후에는 글자로 기록한 전승을 분류하여 전승문화의 전체상을 밝히고자 했으며 연구 방법을 확립시키고자 했다. 일본에서 문화연구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했던 새로운 민

속학이 이렇게 탄생하였다.

민속학자들은 각지를 방문하여 많은 전승문화를 조사했고 글로 기록하여 연구자 공통의 연구자료로 삼음으로써 조사 과정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3. 오랜 전승을 찾아가는 조사

필자는 쇼와 30년대, 즉 1960년 전후에 대학에 입학한 후 민속학에 관심을 갖고 국내 각지를 다니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민속학이 기존의 학문들과 비교해 새로운 학문으로 일컬어졌다. 때문에 아직 자료의 축적이 충분치 않았고 따라서 각지에 직접 가서 많은 전승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여겨졌다. 또 조사를 통해 현지에서 전승을 실감해야 한다고도 배웠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당시까지 기록되지 않았던 자치의 형태, 생업, 제사의례·연중행사, 통과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상으로 열심히 찾고자 했던 것은 당시에는 이미 사라져 버렸거나 변해버렸던 그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였다. 현재의 전승보다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전전기, 즉 1880~1940년 정도의 모습을 찾아다녔다.

민속학에서는 현재의 의문에 답하기 위해 그 이전의 경위, 변천의 양상을 가능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밝혀야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되어졌기에 필자는 그러한 민속학의 인식을 따랐던 것이다.

따라서 방문한 지역에서는 이미 생업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더라도 한 시대 이전의 일을 경험한 노인을 찾아가 당시의 일보다는 그들이 청장년이었던 시절에 대해 듣고 그들의 경험한 내용을 배우고자 했다. 고로가 이야기 하는 한 시대 전의 일 중에는 그보다 더 이전의 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된 시대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고로의 입을 통해 지금은 변해버린 옛날의 사실들을 듣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듯한 즐거움이 있었고 그러한 방식으로 과거 사실을 기록하고 축적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당시에는 많은 민속학자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방법은 틀린 것은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차츰 이런 작업만 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현재의 의문에 답한다는 목적으로 옛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현재는 차치하고 옛것을, 그것도 한 시대 이전의 것을 알고자 하는 일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시대 이전의 것, 거기서 더 이전의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일은 한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노인의 기억 또한 종종 막연하다. 잘못 기억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동안에 중요한 현재 실태를 파악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 현재의 전승 변화를 직시

눈앞의 다양한 일들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즉 쇼와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1960~1975년 경)까지의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의 중심에 있었으며 기계화로 인해 농작업 방식은 변화했고 수전도작 농업에 기초해 이뤄졌던 제사의례나 연중행사도 변하고 있었다. 원유의 수입증가에 따른 에너지 혁명으로 인해 신탄 생산이 정제되었고 농가의 '이로리'라는 화로가 자취를 감추었다. 혼인, 출산 의례도 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재적 변화를 좀 더 직시하고 정확히 기록하고 그 요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 여러 변화 속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거나 변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전승인지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야 했다.

5. 「산촌조사」의 추적조사

쇼와 51(1976)년에 나는 세조 대학에 취직했다. 대학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대학에 「산촌조사」의 노트가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산촌조사」란 쇼와 9(1934)년부터 3년 동안 야나기타 구니오를 중심으로 한 향토생활연구소의 동인들이 분담하여 전국 60개 정도의 농산촌에 직접 가서 그곳의 전승 생활을 조사하여 기록한 프로젝트였다.

참가자 모두가 100개 항목의 질문을 인쇄한 노트를 가지고 각각의 지역에 가서 당시까지 거의 기록되지 않았던 그 지역의 전승을 조사하여 기록했다. 같은 시대에 같은 항목으로 조사한 기록이 대학의 ‘야나기타 문고’에, 당시는 거의 아무도 이용하지 않은 채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읽어보면 치밀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내실 있는 내용의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성과들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어떻게든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선배 연구자들과 상의하여 동료 교원, 대학원 학생들과 협력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쇼와 59(1984)년부터 3년 동안 이뤄졌다. 쇼와 59년은 「산촌조사」가 이루어진 쇼와 9년부터 딱 50년이 지난 해였다. 이 50년 동안 전쟁도 있었고 전후 혼란기도 있었으며 이후 고도경제성장기도 경험하였다. 즉 일본의 격동의 시대였던 것이다. 이 50년이 지난 후 노트에 기록된 일들이 그 지역에서 현재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하고자 했다. 명확한 기록을 근거로 50년 전을 제로 포인트로 설정하고 이후의 변화를 규명코자 했다.

6. 추적조사의 성과

「산촌조사」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예상한 일이지는 했지만 이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격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또 변화의 요인에 대해서도 여러 모로 분석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된 성과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여기서는 여러 요인들 중 한 가지, 즉 전후 일본 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이에 전국의 자치체와 지역들이 호응하여 실시한 생활개선의 모든 활동들, 다시 말해 생활개선보급사업과 신생활운동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당시까지 민속학은 나라의 정치 동향이나 정부의 정책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정치와는 거리를 둔 채 지역의 생업에 대해 조사하고 제사축제·연중행사를 기록하며 혼인 등을 추적하고 민간신앙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지역들의 전승은 추적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점차 변화했음을 알게 되었다.

7. 생활개선운동

생활개선운동이란 정신·물질의 양쪽 측면에서 국민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이면서 이에 계발된 자치체와 지역 단체들, 가정들이 스스로의 생활 개선을 목표로 창의와 노력을 기울인 사업이었다. ‘관’의 기획·계몽과 함께 그 대상인 ‘민’의 의사·고안·실천까지를 포함시킨 활동이기도 했다. 여기서 개선의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생활개선은 관과 민이 함께 참여한 활동이었다.

생활개선은 근대 이후 각 시기마다의 사회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가장 열심히 진행되고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십 수년 간의 활동이었다. 왜냐하면 패전으로 사람들의 정신은 황폐해졌고 물질적으로 매우 피폐했으며 어쨌든 이 혼란 속에서 생활을 재건하고자 하는 국민 모든 사람들의 의지는 필사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

(1) 농림수산성이 주도한 생활개선보급사업

농업기술의 향상 및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농업 생산력의 향상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농산촌의 생활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생각 아래 이루어진 사업이 이것이다. 어업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농산촌에서 종래 강조되었던 생산력 향상의 도모와는 별도로 농산촌 주민 개개인의 건강, 농가의 소비생활을 독립된 문제로 인식하는 새로운 사상에 기초한 실천적 활동이었다.

이를 위해 쇼와 23(1948)년에 농림수산성 내 생활개선과가 신설되었고 그 안에 주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보건육아 등의 계가 설치되었다. 생활개선과가 중심이 되어 당시까지 그다지 고려되지 않았던 농가 등의 의식주 개선, 가게 운영, 가정 내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의 건강, 특히 영유아의 건전한 발육 향상 등을 계획하여 종합적으로 농산어촌의 생활 향상이 도모되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체제가 정비된 한편, 실제로 지역에 들어가 생활개선에 대해 계몽하고 보급하는 인력은 시험을 통해 생활개량보급원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하고 양성했다. 생활개량보급원은 모두 여성(많을 때는 전국에 2천 명 이상 있었음)이었고 이들은 지역을 순회하며 강습회, 좌담회를 열어 생활개선 그룹을 조직하고자 했으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비, 지원했다. 즉, 구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실천 활동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차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부뚜막의 개량, 부엌·급수설비의 개량, 목욕탕의 개량, 보존식·분식 요리의 고안, 소가축가금(염소, 닭)의 사육(사육하여 젖과 달걀을 이용하고자 한 것), 농번기 협동취사의 실시 및 임시보육소의 개설(가정 내 여성의 부담이 감소), 작업복의 개량, 파리·모기의 공동구제

이렇게 사람들의 영양, 위생 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내실이 갖춰지게 되었다. 또 부뚜막과 부엌이 개량됨으로써 여성이 가사일의 중노동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개선활동이 성공을 거두면서 여성들에게는 자신감이 생겼고 지역 내 여성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신생활운동

생활개선보급운동이 당시 뒤쳐졌다고 여겨지던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 개선 및 여성의 가사 노동의 합리화 등을 도모했다면, 신생활운동은 도시 지역과 회사에까지 운동을 확대시키고자 한 전 국민 대상의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개선 활동이었다.

실제 운동을 담당한 것은 쇼와 30(1955)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인 신생활운동협회이다. 신생활운동협회는 국민들의 합리적·민주적인 생활습관을 확립시키고자 설립되었다. 즉 국민들에게 근로를 소중히 여기고 낭비나 사치를 자중하여 저축을 장려하고 오랜 봉건적 인간관계나 관습을 타파하고 양풍선행에 힘쓰며 의식주 생활을 개선하고자 한 운동이다. 이러한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근대 이후 정부 주도로 몇 번씩이나 시도되던 것이었지만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운동에서는 실시 방법이 새롭게 고안되었다. 즉 정부가 전면에서 나서서 운동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조직, 민간단체, 직장 등과 충분한 연락을 취하여 지역 운동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지역, 민간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찾아내고 자주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자세를 존중했다. 또 정부기관인 신생활운동협회는 강사를 파견하여 문제 발견을 계몽 지도하거나 지역이나 단체에 다른 지역, 다른 단체의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며 재정적으로 원조를 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지원하였다.

각지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필자 나름대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A. 공중도덕의 고양, 서로 돕기 운동, 건전오락의 진흥
- B. 관혼상제의 간소화, 생활 낭비의 배제, 저축과 가계의 합리화, 시간 엄수
- C. 생활행사·관습의 개선, 미신 인습의 타파
- D. 의식주 개선, 보건위생 개선, 모기와 파리를 없애는 운동
- E. 가족계획

D는 생활개선보급사업이나 밑에서 언급할 보건소의 활동과 같지만, 다른 내용들은 신생활운동의 특징이라고 해도 되겠다. 후술하는 (4)의 공민관 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다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역 전승에 차츰 영향을 주었다.

(3) 보건소 활동

후생성은 특히 국민 보건위생을 중심으로 개선 활동을 펼쳤으며 각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담당했다. 결핵 대책, 전염병 예방, 모자 보건, 영양 개선, 식품 위생, 공중 위생상의 제 문제에 관여했다.

그러나 생활양식,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러한 개선들도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생활개선에 도 적극적으로 힘썼다. 농산어촌의 보건·육아의 개선은 각 대상 지역에서 생활개선보급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모기와 파리가 없는 환경의 실현은 신생활운동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건강의 유지·향상, 지역의 보건위생 등에 기여한 보건소 활동의 의미는 크다.

(4) 공민관 활동

공민관은 문부성 관할의 사회교육 시설이다. 여기에서는 민주주의의 계몽 및 보급을 위해 봉건적 사고를 배제하고 공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역의 교육문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생활 그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처음에는 위생 활동, 영유아 검진, 공중목욕탕, 공동취사, 공민관 결혼식, 보육활동 등 생활복지에 관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따라서 개선의 대상인 지역 주민들은 앞에서 설명한 생활개선보급사업이나 신

생활운동, 보건소 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봉건적 사고가 남아 있던 지역에서는 공민관 활동이 지역 주민의 생활 해방, 지역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결혼식의 간소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공민관의 결혼식 사업도 무시할 수 없다.

‘관’에 의한 생활개선활동은 이상의 (1)에서 (4)의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목적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생활 개선 활동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소기의 목적은 일단 달성되었으며 지금은 농림수산성 내 생활개선과는 사라졌다. 신생활운동협회는 명칭을 바꾸어 새로운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보건소, 공민관은 지역의 소중한 시설로 계속 남아 있지만 생활개선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8. 개선활동에서 누습이라는 인식

인간사회가 성립된 때부터 존재했을 전승이라는 문화는 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불가결한 것이다. 비범한 사상과 대발견·대사건에 비교하면 창조성이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는 작지만,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키기는 큰 힘을 숨기고 있다. 차츰 변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처럼 변하기 어려운 성질도 있다.

앞에서 설명한 생활개선과 연관된 정부의 정책들은 지역의 긴 전승 생활에 이른바 손을 집어넣어 휘젓고 지역의 많은 전승들을 정부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였다. 활동 내용을 보면 정부가 선이라고 생각한 것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환경, 금전적·물질적 안정, 상호협동의 정신, 합리적인 사고와 같은 것들로, 사람들의 생활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는 물론 보편적인 것들이기에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각지의 전승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제사축제나 연중행사 때의 낭비나 의례적인 도둑질, 마을 회의 때의 긴 이야기·잡담, 절·신사예의 과도한 소원빌기, 각종 액막이 의례, 출산 직후의 의례, 혼례·장례 때의 증답관행 등. 개선 활동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겠지만, 이들을 일률적으로 악습, 누습이라고 단정 짓고 무리하게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무미건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역 밖의 사람들 눈에는 쓸데없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일 수 있다. 그러한 지역의 논리, 오랫동안 전승에 익숙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든 관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선이라는 가치를 들고 이러한 전승을 무리하게 개선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분명 동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안정적 유지도 곤란할 수 있다. 민속학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할 때에도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도 없기에 민속학이 제정하거나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자신들의 전승문화가 누습으로 여겨져 개선하도록 지도받는 사람들 각각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바꾸고자 하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쿄 도 다마 지역의 생활개선운동에 대해

다치카와 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지마 다카오

번역: 김 현정

들어가는 말

우리들이 ‘일상생활’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연’한 것이 언제 어떻게 일상화되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성립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당연’한 일들의 기점이 된 것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개된 생활개선활동이라는 시책이다. 본래 해당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 지역의 소여의 환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편,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 한중일 세 나라에서 공명하듯 이루어진 생활개선 활동들은 현재 우리들이 ‘당연’한 것으로 공유하고 있는 일들을 전국적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필자가 속한 생활개선/변화 연구회 그룹은 일본의 생활개선활동들이 현재 ‘당연’하다고 여기는 의식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성과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일본의 생활개선활동들에 관한 연구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어째서 생각하는가?: 일본 생활개선활동들의 역사적 의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생활개선활동들은 시책의 형태로 전국에 보급되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계승해온 의식이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된 ‘생활개선’ 시책은 결코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즉, 시책에 대한 반발이나 대항과 같은 과도기적 기간을 거쳐 수용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일본의 생활개선활동들은 오늘날 일상생활의 바탕이 된 생활상을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색하고자 한 활동이었으며 쇼와 30년대 경부터 전개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복선이 되기도 했다. 생활개선을 전제로 전개된 당시 농림성 등이 추진한 생활개선보급사업과 신생활운동협회가 주도한 신생활운동에 의한 활동들은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의 일상생활 형

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 수용과정 등에 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급속히 전개된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일본 사회의 대전환 속에 매몰되어 민속학이나 역사학 등의 연구대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일본 사회의 대전환은 돌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으며, 이전의 사회적 기반을 유연히 분해해가는 과정이 존재했다. 이러한 분해와 창출 과정으로서 검증되어야 할 생활개선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과 대항 과정이야말로 지금 우리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상생활에 이르는 모색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세조 대학 생활개선 제 활동 연구

위와 같은 연구를 민속학의 입장에서 시도한 것이 다나카 센이치가 펴낸 『생활 혁명: 전후 농촌의 생활개선운동과 신생활운동』이며, 역사학의 입장에서 시도한 것이 오카도 마사카즈가 펴낸 『신생활운동과 일본의 전후: 패전에서 1970년대』였다. 이 책들은 우연히도 거의 같은 시기에 간행되었는데, 생활개선운동들에 대한 검증 작업의 필요성이 민속학과 역사학에서 공유되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이 두 권을 읽어보면, 같은 문제의식이 기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속학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시책을 수용 혹은 대항한 사람들의 실천과 그에 대한 기억이었으나, 역사학에서는 주로 시책에 관한 기록을 분석했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또 조사연구 대상지역의 경우, 전자는 주로 농산어촌, 후자는 도시라는 차이도 있어서 연구 성과를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두 권의 책이 간행됨으로써 생활개선운동들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문헌은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각각의 관점 등을 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생활개선/변화 연구회는 전자의 관점과 연구 성과를 계승하면서 행정 쪽의 활동에도 주목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되었다.

전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세조 대학에 재직했던 다나카 센이치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민속학 연구자와 농림성의 생활개선보급사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들이 협업한 성과물이다. 2004년부터 5년 동안 연구회를 통해 각지의 사례를 보고함으로써 생활개선활동들의 전개가 실증적으로 검토되었다. 이렇게 출판물로서 소개된 이외에도 국립민속박물관의 현대 전시 구상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박물관 전시에서 생활개선활동의 역사적 의의를 소개하는 효시가 되었다. 다나카를 중심으로 한 연구 활동은 출판 이후 잠시 쉬게 되었으나, 우리 연구회에 참여했던 이와모토 미치야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일상학>로서의 민속학’ 구축을 향해: 한중일과 독일의 연구협업망 형성에 세조 대학 그룹도 생활변화/개선 연구회로서 참여하게 되어 다나카와 오카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각지의 생활개선활동들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작하였다. 생활개선활동들의 전국적인 전개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발행해온 홍보지 등의 기사를 자료로 하여 생활개선활동들의 전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과 그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회를 개최해왔다. 대상 지역은 다나카와 오카도의 연구 성과를 연결시킬 의도와 자료의 소재 확인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 대상을 다마 지구의 자치단체로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요세 시, 고쿠분지 시, 쇼후 시이다. 또 전자의 연구대상으로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신생활운동협회의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협회의 활동 기록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3.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다치가와 시 스나가와에서의 인터뷰 사례

생활개선활동들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찌서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두고 싶다. 필자 자신 또한 생활개선활동들에 관한 조사를 자치단체지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할 때 간헐적으로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 주로 사이타마 현 내 자치단체였는데 헤세 10년대 조사 시점에서 관련 자료들은 거의 폐기되어 있었고 생활개선활동들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행정기관에 근무했던 분들도 정년퇴직하여 관계자들을 통한 자료 수집이나 인터뷰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안에서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생활개선활동들을 실천한 세대는 쇼와 10년대에서 20년대에 결혼적령기를 맞이한 세대였으며 다이쇼 시대에서 쇼와 시대 한 자릿수 세대에 해당되었다. 당시에 이 세대에 대한 인터뷰 조사는 어려워져 있었고 생활개선활동들에 대한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후에 제보자를 찾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다나카 쉐이치가 펴낸 『생활 혁명: 전후 농촌의 생활개선운동과 신생활운동』의 기술 내용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얻어낸 것으로 제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일은 곤란하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작성은 관련 정부기관과 각 자치단체의 활동 전개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생활개선활동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완료된 경우, 행정에서는 관련 문서를 폐기해 버리기 때문에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보관하는 당시 문서들을 자료로 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 대체 자료로 선택한 것이 각 자치단체가 발행한 홍보지였다. 헤세의 대합병을 앞두고 합병 대상인 자치단체에서는 시정촌지의 간행, 기념 홍보지를 간행하는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자료들은 비교적 입수하기 쉬웠다. 다만, 홍보지에 실린 기사이기 때문에 각 사업들의 예고나 보고와 같은 정보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각 자치단체의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의의는 충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기적인 연구회 개최에 맞춰 작성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배경을 연구회 멤버들의 조사 내용 보고와 토론 등을 통해 보필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러한 작업과 함께 당시 활동들에 관여했던 분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작업 또한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연구 그룹 내에서 들려왔다. 이 즈음에 다치가와 시 스나가와 지구를 대상으로 생활개선운동을 조사하던 마스다 쇼코 씨로부터 청년 시절부터 청년단 활동을 통해 생활개선활동에 관여했던 도요이즈미 기이치 씨(쇼와 5년생)를 소개받아 간헐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스다 씨가 수집한 ‘쇼와 27년 스나가와무라 마을 청년단에 관한 모음 스나가와무라 마을 사무소 교육계’의 복사본에 따르면 도요이즈미 씨는 쇼와 27년에 총무부 서무, 쇼와 28년에 산업부장을 역임하고 쇼와 31년에 청년단장을 지냈다(쇼와 29년과 30년에도 연공서열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아직 미확인 상태이다).

도요이즈미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의외였다. 구 스나가와무라 마을에서 전개된 생활개선운동은 기요세 시, 고쿠분지 시, 쇼후 시 등의 대상 지역에서 보았던 전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다치가와 시 스나가와 지구는 근세 초기에 개발된 신전 집락으로 발농사를 통한 환금작물의 재배로 특화된 곳이었다. 구 스나가와무라 마을이 형성된 무사시노 대지 서부 지역은 고다마가와 강에 의해 퇴적된 자갈층 위쪽에 두꺼운 립층이 퇴적된 지형으로 투수성이 높고 보수성이 현저히 낮은 펄수 지대이다. 후발 신전 집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 마을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곳에 살던 선인들은 대소비지인 에도를 염두에 두고 야채 등을 주로 생산했으며 스나가와 지구에서는 전통적으로 환금작물의 재배가 이뤄졌다. 양잠이 성해지자 뽕나무 묘의 꺾꽂이 생산을 했고 양잠이 시들해지자 고구마 생산으로 전환했다. 지금은 고구마를 보존하기 위해 판 움막을 이용해 땅두릅을 활발히 재배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두껍게 퇴적된 립층의 존재가 있었다. 스나가와

지구 주민들은 마을이 형성된 때부터 수전 경작에 의존하지 않는 환금작물의 재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다이쇼 11년에 개설된 육군비행 제5연대 비행장의 인근 지역에 관련 공장들이 건설되어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활동도 활발했다고 한다. 쇼와 30년경에는 이미 가옥이 재건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엌을 개선할 필요가 없었다. 또 같은 해에 시작된 다치가와 기지 확장 반대투쟁은 지역을 이분하는 계획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었는데, 생활개선운동의 핵이었던 청년단과 부인회도 이 투쟁에 참여했다고 한다. 도요이즈미 씨는 이 시기에 청년단의 중추부에 있었다. 소비가 정착된 생활상과 다치가와 기지 확장 반대투쟁으로 인해 같은 다마 지구에 속하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의 생활개선운동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도요이즈미 씨로부터 들은 스나가와 지구의 생활개선운동의 실태는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위한 주요 자료로 쓰였던 홍보지라는 기록물로부터는 파악할 수 없었던 지역 고유의 일상생활의 형태와 지역사회 내 생활개선활동들의 역할과 의의를 총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홍보지 등의 기사는 생활개선활동들에 관한 자치단체 측의 고지나 보고의 기록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수용과 대항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작업은 불가결하다. 도요이즈미 씨와의 만남은 그간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의 의의와 필요성을 재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 개인의 생활사를 기초 자료로 하는 민속학의 시점을 간과해버릴 수도 있었던 데이터 입력 작업의 도달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4. 생활개선활동 연구의 과제와 전망

올해부터 새로이 ‘생활변화/생활개선/생활세계의 민속학적 연구: 한중일을 축으로 한 동아시아의 비교를 통해’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세조 대학에서 진행한 데이터베이스 작성이 동일본 지역의 사례에 편중되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이 서일본 지역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그 거점으로 후쿠오카 대학이 추가되었다.

또 생활개선활동들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필자 자신도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시도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작고했거나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포기했던 방법이었다. 그러나 도요이즈미 씨와의 만남은 아직은 인터뷰 조사가 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 데이터베이스화는 활동들이 해당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생활개선활동에 관여한 사람들과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로부터 검증받을 필요가 있음을 통감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시책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수용하는 쪽의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수용 방식은 달라진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기초자료로 하는 민속학의 초지로 돌아가 일본 각지에서 전개된 생활개선활동들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밝혀가고자 한다.

일본의 생활개선활동들의 전개를 살펴봄에 있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해 실감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이 활동들의 전제가 된 쇼와 22년 시행 민법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의 취지에 따라 민주화를 위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족상에 대해서도 새로 제정된 일본국 헌법 24조에 명시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가족의 이념형이 봉건적인 이에(집) 제도에서 혼인 가족 제도로 바뀌었다. 이 취지에 따라 메이지 민법의 가족법은 근본적으로 개정되었고 현행 가족법이 성립되었다. 여성이 남편 집으로 시집가는 기존 방식에서 혼인에 의해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그때까지 당연시되던 이에의

영속이라는 전제가 민법 개정을 통해 와해되어 갔으며,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젊은 세대가 생활개선 활동을 수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세대가 이후 고도경제성장기의 중핵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실정 또한 제보자의 개인사나 가족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나가는 말

생활개선활동 데이터베이스 작성 작업은 전후 민법의 시행을 그 기점으로 삼아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일상생활의 창출 과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본에서의 통시적인 전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동시대에 일본 주변에서 전개된 유사한 활동들을 검토하는 일의 의의도 확인되어 왔다. 2017년도 ‘생활변화/개선 연구회’ 제1회 연구회에서 가가야 마리 씨가 보고한 ‘오키나와의 생활개선보급사업의 전개와 수용’에서는 복귀 전의 류큐 농림성 지도 하에 실시된 생활개선보급사업에 하와이 대학 사업부 Genevieve Feagin 씨의 제언이 반영되었음이 시사되었다. 하와이 대학에는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키나와에서의 생활개선 보급사업의 전개를 분석함으로써 내지의 생활개선활동들의 기저에 있던 미국에 의한 일본의 민주화 정책의 시점 등도 검증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성과로서 동아시아권의 생활변화/생활개선/생활세계의 형성과 변화를 비교 검토할 수 있다면 동시대적인 특징과 일본의 생활개선활동들 고유의 특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大門正克編, 『新生活運動と日本の戦後—敗戦から1970年代』, 日本経済評論社, 2012.
 田中宣一編, 『暮らしの革命—戦後農村の生活改善運動と新生活運動』, 農山漁村文化協会, 2011.
 豊泉喜一, 「砂川基地拡張反対闘争の光と影」, 立川民俗の会編, 『立川民俗』第19号, 2014.
 宮崎光一, 「砂川における青年団活動」, 立川民俗の会編, 『立川民俗』第19号, 2014.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생활변화

남근우

1. 새마을운동과 未發의 ‘현재학’

전후의 한국민속학사에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보다 더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아마 없을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추진한 이 근대화 프로젝트는 농촌사회의 구조변동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상을 영위해온 농민들의 생활세계에도 다대한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간 민속의 전승모체로 시골의 마을을 중시해온 민속학자들에게 있어, 그 조사 현장의 구조변동과 생활변화는 민속학의 존립과 실천을 다시 물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었을 것이다. 1972년 한국의 민속학회가 ‘제1회 민속학 전국대회’를 주최하여, 「민속학의 역할」과 「문화재의 보존과 전수」를 주제로 열띤 토론회를 펼친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겠다. 당시 민속학회장으로 사회를 맡은 임동권은 그 배경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근대화작업이 한창이고 그러한 와중에 오랜 전통 속에 전승되어온 민속자료들이 인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도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시점에서 민속자료의 보존은 매우 위급한 상태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민속학회로서도 무슨 발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토론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정리해서 학회의 의견으로서 문화재정책의 행정자료로 참고토록 제출할 예정입니다.(민속학회 편, 1972: 106. 인용문 안의 []은 필자의 주, 밑줄 역시 필자, 이하 같음.)

밑줄부분에 보이는 ‘민속자료의 의도적 파괴’란, 박정희 정권이 미신타파를 명분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장승과 서낭당 등을 강압적으로 훼손, 철거한 것을 말한다. 60년대 말의 ‘신생활운동’과 70년대 초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자행된 일로,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빈발하자 급기야 내무부는 ‘장승 보호령’을 발표하고 장승의 특별보호 지시를 내린다. (자료1, 2) 또 서낭당의 경우도 “민족적 단결을 촉진하는 민속으로 발전시켜 국민총화의 중추로 삼아야 한다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국이] 신중한 검토”(『동아일보』, 1972년 5월 6일)를 하게 되는데, 이미 서낭당과 같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제당은 “전국에서 3분의 2 정도가 파괴”(최길성, 1974: 40)된 상황이었다.



장승·서낭당 보호령

자료1(左): 「장승」 보호령(『조선일보』 1972년 4월 28일)
 자료2(右): 「장승·서낭당 보호령」(『동아일보』 1972년 5월 6일)

이처럼 ‘민속자료의 보존[이] 매우 위급한 상태’에서 「민속학의 역할」을 긴급히 논의해보자는 게 위 토론회의 취지다. 요컨대 민속의 가치와 의의 등을 재음미, 제고함으로써 그 구제의 필요성과 보존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그러한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문화재정책의 행정자료로 참고토록 제출’하자는 것이다. 이 취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동 토론회에서는 기층의 민족문화론에 기초한 민속의 구제·보존론이 대세를 이룬다. 다만 황폐강과 김태곤만이 그러한 구제(salvage) ‘민속학의 역할’ 제시에 이견을 보이는데, 여기서 잠시 후자의 발언을 한 대목 들어보자.

민속이 인멸된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멸 대신에 민속은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까지도 대상으로 할 때에 민속학의 분야는 현재의 학으로서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넓은 토대를 갖지 않을까, ... 민속학이 해야 할 일은 민중의 생활 그 자체, 민중을 둘러싸고 있는 입체적인 생활 모드를 지[칭]하는 문화, 이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학은 우선 과거의 개념에서 과감하게 탈피 내지는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져야 하겠고 ... 민중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가 되어야 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민속학회 편, 1972: 109~110)

밑줄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속학은, 이른바 ‘인멸’의 내러티브와 과거의 잔존문화 연구에서 ‘민중의 생활 그 자체’를 탐구하는 ‘현재학’으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김태곤의 주장은 70년대 전반 한국민속학의 방법론을 둘러싼 일련의 학술회의에서도 되풀이된다.² 그 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는拙藁(남근우, 2003)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가 강조한 ‘현재학’의 구현 여부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內觀的(emic) 접근을 통한 민중의 실생활 탐구라는 방법론의 전환 촉구가 무색하게도, 當節의 한국민속학은 새마을운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마을 공동체와 그 성원들의 ‘현실적인’ 삶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문제의 장승제나 서낭당 제사 혹은 무속신앙 등을 ‘민속문화제’나 ‘전통문화’로 본질화하여, 근대에 대항하는 내셔널리즘의 교두보로서 그 원형적 민족문화의 수집과 보존에 힘을 기울였을 뿐, 바로 눈앞의 ‘새마을’ 만들기과 그에 따른 일상의 생활변화는 모두 눈을 감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농촌의 생활자들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강압적인 국가동원체제로 말미암아 농촌사회의 권력과 사회관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또 그곳 주민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생업, 의례, 관행 등의 일상의 ‘입체적 생활’이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 이에 대한 물음이나 연구실천이 뒤따르지 않음으로써, 민속학은 농촌사회의 근대

화 과정을 미시적으로 천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되었다. 한국민속학이 맞이한 작금의 위기는 실은 이 ‘주체 없는 민속 연구’가 자초한 부분이 작지 않다고 보인다.(남근우, 2013: 195~199) 늦게나마 그 未發의 ‘현재학’을 지향하는 새마을운동의 연구실천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일상과 생활 영역을 고찰한 최근의 연구, 구체적으로 역사학의 민중사나 일상사 연구, 그리고 일상생활의 사회학 등에서 추구한 새로운 성과를 몇 가지 거론해보겠다. 그것들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일상의 동원과 생활의 지배에 대해 마을의 생활자들이 피한 다양한 반응과 저항을 대상화하고 있어, 민속학의 일상연구에 하나의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 일본과 중국 독자들의 이해에 편의를 꾀하기 위해 먼저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전개를 간단히 개관하겠다. 이어, 그 역점사업이었던 농촌의 주택개량과 ‘통일벼’ 증산, ‘가정의례준칙’의 시행 및 그것들에 따른 생활변화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 삼자를 바탕으로, 결론을 같음하여 민속학적 일상연구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겠다.

2.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전개

1961년 5월 16일의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조국근대화’를 기치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저돌적으로 추진했다. 이 공업입국의 불균형성장 전략은 필연적으로 농촌의 소외와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농민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커지면서 60년대 후반 ‘이촌향도’의 탈농이 급증했고, 당연히 기왕의 ‘여촌야도’ 투표성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971년의 총선거 결과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집권 여당의 공화당에 대해 농촌지역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직전의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의 대야진에 위협을 느낀 박정희로서는 여당의 득표율 급락을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위기인식은 이듬해인 1972년 ‘10월 유신’의 단행이라는 초헌법적 비상조치와 독재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도시의 지식인과 야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세력의 저항에 직면하자,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거나 그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저항세력을 약화시켜, 장기집권의 유신체제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다(박진도·한도현, 1999: 43~46).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필요에 의해 펼쳐진바, 그것은 농촌을 강력한 정치적 보루로 재건하여 도시의 저항세력을 포위하기 위한(고원, 2006a: 186~187) 농촌사회개발이자 헤게모니적 통치 전략이었다.



사진1(左): 경상북도 청도군 신도 1리 입구에 있는 신거 역과 광장의 박정희 동상(1969년 8월 4일 경상남도 수해지역 시찰을 위해 전용열차로 경부선을 지나다, 깨끗한 마을의 모습과 제방 복구에 맘 홀리는 주민들을 보고 이 역에 멈춰섰다고 한다. 역사 오른쪽에 당시 박정희 일행이 탔던 열차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2017년 10월 촬영)

사진2(右): 신거 驛舍의 내부(이듬해 4월 22일 한해대책 지방장관회의에서 “경북 청도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같은 농촌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전국 농촌이 신도 1리 만큼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새마을운동을 제창했다고 보인다. 2017년 10월 촬영)

새마을운동의 출발은 농촌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찾는 게 일반적이다. 이 사업은 1970년 4월 한해 대책을 위한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에 의해 제창되었다. 그 무렵 공화당 재정위원장이자 쌍룡시멘트 대표였던 김성근이 시멘트 업계의 불황을 들먹이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자, 박정희는 그 과잉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이환병, 2012: 98~101). 그해 가을 내무부는 약 3만 5천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행정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무상으로 배포했다. 단, 이 시멘트를 개별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을의 공동사업을 일으키는 데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리고 그 예시로 마을로 들어오는 길 넓히기, 마을 앞의 작은 하천 정비하기, 공동우물 만들기, 공동빨래터 만들기과 같은 10대 사업내역을 들면서, 그중에서 마을 실정에 맞는 것을 선별, 추진하도록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겼다.

그런데 위의 10대 사업은 그 대부분이 평소 농촌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약 1만 6천개의 마을에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 이에 내무부는 제2차년도의 사업으로 이듬해 그 '우수 마을'들에 한해, 추가적으로 시멘트 5백 포대와 철근 1톤씩을 '기본자재'로 각 마을에 제공했다. 나아가 마을의 환경개선에 국한되었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농촌의 소득증대와 함께 농민의 정신계발을 포괄하는 '새마을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72년 그 추진기구로 내무부장관과 관련부처의 차관들로 구성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설치되었다. 그 밑에 각 도, 시·군, 면 단위에서도 도지사와 군수, 면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는 새마을추진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각 마을에는 마을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마을지도자를 도왔다.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은 중앙에서 지방행정을 거쳐 말단의 마을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위계적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동시에 전국의 모든 마을을 주민의 참여도와 사업실적에 따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3분류하고 그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책과 승급제도를 통해 마을간 경쟁을 유도했다. 박정희 정권은 최종적으로 모든 마을을 '자립마을'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 아래, 1971년부터 73년까지를 기반조성단계, 74~76년의 생산기반시설 확충단계, 그리고 77~81년의 소득기반완비단계를 설정하고,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의 전국민화와 전국 촌락의 '자립마을'화를 추진했다.(새마을연구회 편, 1980: 205~237)



사진3: 신도 1리의 새마을운동 테마 파크에 건립된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2017년 10월 촬영)



사진4: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2층에 걸린 박정희의 휘호 「근면 자조 협동」(2017년 10월 촬영)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처음에는 농촌사회의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지만, 1972년 10월 유신체제의 성립과 함께 농촌사회개발운동에서 정치적 국민운동으로 점차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듬해 11월 제1차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박정희가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그것을 웅변한다. 즉, '새마을운동이 10월 유신이고, 10월 유신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선언이다. 결국 새마을운동은 관 주도의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띤 까닭에, 사업이 단행될수록

초기의 활력은 사라졌고, 70년대 후반에 이르면 사업의 강압적 추진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져갔다. 그리고 1979년 10월 박정희의 사망에 따른 유신체제의 종언과 함께 새마을운동은 급격히 그 동력을 잃게 되었다.

3. 주택개량사업과 생활환경의 변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국의 농촌사회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다. ‘새마을운동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게 새마을 만들기로 회수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새벽잠을 깨우는 종소리와 함께 매일 전국의 모든 마을에 울려 퍼진 ‘새마을노래’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정희가 작사한 이 운동가에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이 가사처럼 새마을운동의 초기 사업은 마을의 환경개선에 그 무게중심이 놓여 있었다. 예컨대 마을의 안길과 농로 넓히기, 소하천과 하수구 정비, 공동퇴비장 설치, 마을 숲 조림, 주택개량, 전기보급과 간이급수시설 설치, 취락구조 개선 사업 등이다.

이 중에서 농촌의 풍경과 주생활을 일신한 주택개량사업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펼쳐졌다. 하나는 70년대 전반에 치중된 ‘초가집’의 부분개량이고, 또 하나는 중후반에 추진한 도시형 양옥의 신축이다. 우선 전자에서는 주로 지붕과 부엌을 개량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면의 제약으로 지붕의 경우만을 살펴보면, 벗짚으로 올린 재래의 지붕을 슬레이트나 합석, 혹은 기와지붕으로 교체하는 게 主 내용이었다. ‘초가집’의 지붕같이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벗짚을 새끼줄과 같은 糞工의 재료나 연료, 퇴비 등에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농가로서는 워낙 큰돈이 들기 때문에 선뜻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약간의 금융지원과 함께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붕개량사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72년부터 78년까지 도합 260만 동의 지붕개량이 이루어졌고, 마을의 ‘초가집’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가난하고 낙후한 농촌’을 ‘경제적이고 근대화한 농촌’으로 탈바꿈시킨 선도적 사업으로서(새마을연구회 편, 1980: 483~485), 박정희 정권이 그 가시적 효과를 적극 활용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자료3(左): 초가지붕의 개량작업(전라북도 부안, 1972년),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에서 전제
 자료4(中): 슬레이트지붕(『뉴시스』 2011년 5월 25일 「슬레이트지붕 건물」기사에서 전제)
 사진5(右): 좌측 후면의 기와지붕과 우측 전면의 합석지붕(전라북도 순창, 2017년 6월 촬영)

그러면 위와 같은 지붕개량사업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일상생활의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 이승훈의 연구가 주목에 값한다. 그에 따르면, 처음엔 지붕개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막상 ‘해놓고 보니 보기 좋았다’는 쪽으로 점차 생각이 바뀌어 갔다. 물

론 그 과정에서 불평불만을 흘리거나 비판적 언행을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이라기보다는 그 추진방식의 강제성을 비롯한 주택 자체의 불량과 부실공사,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지붕개량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슬레이트지붕과 합석 지붕에 대한 반감 등이었다(이승훈, 2006: 244~247). 특히 지방의 공무원들이 멋대로 남의 초가지붕에 올라가 갈고리로 지붕을 해집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붕개량을 밀어붙이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자신의 실적을 쌓기 위한 그러한 강압이나 과도한 독려는 마을주민들의 반감을 사기 일쑤였다(이환병, 2011: 192~194).



사진6(左): 개량형 평면도에 의해 1980년대의 농촌주택(전라북도 순창, 2017년 6월 촬영)
 사진7(右): 유리 미닫이문을 이용한 마루의 내부공간화(경상북도 신도 1리, 2017년 10월 촬영)

다음, 농촌주택의 근본적 개선을 목표로 1976년부터 79년까지 후자의 도시형 양육 건립이 추진되었다. 정부가 제공한 몇 가지 표준설계도에 따라 이른바 ‘문화주택’이 4년에 걸쳐 총 18만 5천 동 지어졌다. 이 수치는 당시 농촌의 전체 주택 가운데 약 7%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거기에 사용된 ‘표준주택 평면’은 80년대 이후의 ‘개량형 평면’의 근간이 되어, 오늘의 농촌주택의 모습을 결정지었다고 할 만큼 그 영향력이 컸다. 이승훈은 재래식 주택과 이 문화주택의 차이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즉, 재래의 홑집에서 겹집으로 살림집의 형태 변화, 전통적인 좌식생활의 부분적 입식화, 마루의 내부공간화와 각 방들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의 역할 전화이며, 이 삼자는 전형적인 도시형 주택으로의 변화에 다름 아니었다(이승훈, 2006: 247~250).

하지만 이 새로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성과는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미흡했다. 농민들의 의식 개혁, 소득증대, 도농격차 해소, 이농현상 억제 등과 같은 정책적 목표들이 그다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촌의 살림살이나 생활방식과 잘 어울리지 않는 도시형 문화주택에 대한 불평과 불만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훈이 인터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 사업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정책적 목표와는 전혀 다른 마을주민의 그 수용방식을, 그는 ‘도시적 삶’을 향한 농민의 ‘과시적 효과’에서 찾고 있다. 즉 근대화 과정에서 배제된 농민의 소외감, 도시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을, 도시형 문화주택을 소유했다는 상징적 이미지로 극복하려는 욕구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근년 농촌에서 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아파트’(남근우, 2015: 255)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바, 문화주택의 소유라는 주관적 성취감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성공으로 인식하게 된 주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승훈, 2006: 256~261).

4. '통일벼'의 기억과 그 수용의 지역차

70년대 당시 새마을운동은 흔히 '잘 살기 운동'이라 일컬어졌다. 앞서 언급한 새마을운동가에도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라는 구절이 보인다. 실제 이 '부자마을'을 향한 소득증대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졌는데, 그 대표적인 보기로 통일벼의 증산정책을 들 수 있겠다. '통일벼'란, 농학자 허문회가 필리핀의 국제도작연구소에서 육성한 벼의 신품종 '통일'(IR667)과 그 후예들을 말한다. 인디카(Indica) 계열의 다수화 품종을 한국 풍토에 맞게 개발한 것으로, 한국에서 재배된 기왕의 것들보다 월등한 수확고를 올려, 한때 '기적의 벼씨'로도 불렸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부터 정부조직을 총동원하여 그 종자 보급과 증산에 박차를 가해 나갔다. 그 결과 통일벼 재배는 해마다 급증하여 1978년에는 전체 논 면적의 76%에 이르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1989: 431). 이와 함께 전국의 쌀 수확량도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1976년 늦가을 유신정부는 주곡인 쌀의 자급을 선언했다. 그 '녹색혁명의 성취'를 축하하자는 뜻에서인지, 이듬해에는 14년 만에 쌀 막걸리의 제조도 허용되었다. 하지만 통일벼는 아직 인디카의 특성도 지니고 있어, 고래로 자포니카(Japonica) 계의 찰진 쌀을 선호해온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맛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통일벼의 시장가격은 낮았고, 그 때문에 재배를 꺼리는 농민들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중곡가, 추곡수매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통일벼 위주의 증산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도열병의 만연과 냉해로 내리 3년이나 큰 피해를 입자, 농민들은 통일벼를 강제하는 정부 정책에 본격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유신체제를 이어받은 전두환 신군부는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벗어나, 통일벼의 증산정책을 폐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의 강제와 후원이 사라지자 통일벼의 재배 면적은 이내 반 토막이 났고, 1992년 추곡수매의 중단과 함께 통일벼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김태호, 2009).



자료5: 「앞당긴 '쌀 자급'에 드높은 풍년가: 통일벼로 사상 최고 3,242만섬」(『경향신문』 1975년 11월 12일)
 자료6: 「녹색혁명의 中核 범씨 개량 12年: 기적의 '통일'서 한숨의 '노풍'까지」(『동아일보』 1978년 9월 11일)

이처럼 통일벼의 짧지만 강렬한 성취, 그리고 그것에 얽힌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는 약 4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인의 뇌리에 선명히 남아있다. 적어도 50대 이상의 시골 출신들의 경우, 그 증산체제의 동원 과정에서 겪은 희로애락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 기억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통일벼 이야기'를 거칠게 정리하면, 유신시대를 바라보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다. 하나는 보릿고개의 굶주림을 해결한 '녹색혁명'의 성공신화이며, 다른 하나는 유신정권이 자행한 강압농정의 재앙으로 기억하는 내러티브다.

그런데 김태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양자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통일벼가 중부 지방에서는 끝내 자리를 잡지 못한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받아들여졌고, 80년대 중 후반까지도 상당한 규모(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20~30%)로 재배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성공신화와 농정재앙의 그 어떤 내러티브로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김태호는 이 양자가 놓치고 있는 통일벼 수용의 지역적 차이를 천착하고, 나아가 '통일벼 이야기'가 그 후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 요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통일벼는 남부지방에서는 압도적인 우세종이었지만, 중부지방에서는 최 전성기인 70년대 후반의 두세 해를 빼고는, 자포니카 계의 대표종이었던 '아키바리(秋晴)'에 비해 확연히 열세였다. 그러면, 그 수용양상의 지역차는 왜 발생한 것일까? 우선 통일벼는 인디카 계의 아열대 품종의 출계였던 까닭에, 계절에 따른 한랭의 차이가 큰 한반도에서 그것을 재배하려면, '보온못자리'를 비롯한 많은 기술과 노력이 더 필요했다. 상대적으로 봄과 가을의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에서는 그나마 통일벼가 큰 문제없이 안착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중부지방으로의 보급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태환경적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제지리적 요인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소비자들은 통일벼를 좋아하지 않았고, 따라서 '통일쌀'은 시장에서 자포니카 계의 쌀, 통상 '일반미'라 불리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이처럼 시장에서 통일벼가 외면당할 위기에 빠지자, 정부는 통일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도를 동원했다. 추곡을 사들일 때 통일벼를 우선 매입하고, 수매 등급도 올려주는 등의 여러 우대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 결과 1970년대 중후반의 추곡수매는 거의 전량 통일벼로 충당되었다. 사실상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통일벼를 계약 재배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종의 계약재배를 모든 농민이 환영했던 것은 아니다. 추곡수매 외에 다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정부의 추곡수매에 목을 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령 남부의 호남지방과 같은 곡창지대의 경우, 큰 소비시장이 주변에 없었고 또 일제시대 이래 쌀의 품질이 낮게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멀리 있는 시장보다는 가까워서 각종 우대조치를 해주는 국가의 행정기구에 의존하는 게 여러 모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에 비해, 중부의 경기 지역의 경우는 서울이라는 가장 큰 소비시장에 인접해 있었고, 이미 고급미의 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벼' 재배를 억제하는 정부보다는 아카바리에 높은 값을 쳐 주는 민간 도매상과 거래하는 편이 이득이었다. 특히 경제성장과 함께 고급 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70년대 말에는, 일부 대도시 미곡 도매상이 이른바 입도선 때 등을 통해 정부의 추곡수매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아카바리 재배를 유도하기도 했다. 중부지방에서 통일벼가 안착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경제지리적 요인이 컸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통일벼 수용의 지역차는 당연히 그 기억에도 차이를 초래한다. 경기도의 경우, 한마디로 그것은 '통일벼에 시달렸지만, 결국 살아남아 융성한 아카바리'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기억은 이후 소비자들의 쌀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가령 80년대 한국에선 소득수준이 높아진 대도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일반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 일반미의 으뜸은 단연 아카바리였다. 이 아카바리는 앞서 보았듯이 특히 경기도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었던 까닭에, 소비자의 일반미 선호는 이내 경기미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경기미 열풍'이 80년대 당시 아카바리라는 품종 자체가 다른 종류에 비해 뛰어났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가까운 과거의 기억에다 먼 과거의 이야기가 버무려진 의외의 결과였다. 여기서 '가까운 과거의 기억'이란, 물론 통일벼를 앞세운 증산체제에의 강압과 그것을 이겨낸 아카바리의 생존과 관련한다.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기어이 아카바리를 심으려 들었다는 이야기는, 소비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아카바리의 우수함을 보증해주는 훈장이 되었던 것이다. 거기에서 이천과 여주의 이른바 '紫彩쌀'의 진상이라는 먼 과거 기록의 한줄기 光輝가

덧씌워져, 아키바리는 ‘임금님께 올린 경기미’라는 이름으로 그 입지를 급속히 넓혀갔다. 1995년 한국 최초의 브랜드 쌀이 시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임금님 쌀’의 라벨을 붙인 경기도 이천산의 아키바리였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아키바리와 그 개량종인 ‘새 秋晴’은 가장 인기 있는 쌀 중의 하나다.

한편, 경기미의 열풍이 거세질수록 남부의 호남미는 그 인기가 떨어져 갔다. 도시 소비자들이 ‘호남미는 통일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통일벼가 퇴장한 뒤에도 호남산 쌀은 시장에서 평가 절하되는 의도치 않은 손해를 입어야 했다. 실은 강압농정이 철폐된 80년대 이후, 전라도의 호남은 경기도 다음으로 아키바리를 널리 재배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하지만 호남미에 대한 편견 때문에 호남산 아키바리는 제값을 받지 못했다. 호남의 농민들이 90년대 초까지 통일벼를 계속 심었던 까닭은 이와 같은 호남 지역관 ‘통일벼의 기억’을 염두에 두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통일벼는 남부의 호남 곡창지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다수확을 올려주었다. 하지만 호남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시장 역시 조선총독부의 산미증산계획 이래 줄곧 호남미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호남의 농민들은 시장보다는 추곡수매라는 틀을 유지하는 국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 불가피한 선택이 ‘호남미=통일쌀’이라는 편견과 제약을 낳았던 것이다.

덧붙여, 쌀 시장이 품종보다는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된 현재, 그 브랜드화의 방향은 호남미와 경기미의 서로 다른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호남 산임을 전면에 내거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산지에 관한 정보를 가급적 줄이거나, ‘땅끝 마을’과 같이 모호하고 낭만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혹은 ‘히토메보레’와 같이 일본에서 이미 성공한 품종을 들여와, 산지보다는 품종의 명성에 기대 브랜드화를 피하기도 한다. 호남산 브랜드 쌀 중에서 시장에 고가로 안착한 ‘한눈에 반한 쌀’이 그 좋은 보기다. 이에 비해 후자의 경기미는 브랜드 품종을 들여오는 경우에도 경기도산임을 강조한다. 가령 2007년에 출시한 ‘농심 고시히카리 쌀밥’은 즉석밥 시장에서 후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산 고시히카리 쌀’을 전면에 내세우는 승부수를 띄웠다. 광고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임금님 쌀의 본고장인 경기도’와 ‘일본 최고의 고시히카리’라는 두 브랜드에 힘입어, 시장진입에 대성공을 거뒀다.

이처럼 통일벼 이야기는 유신정부의 농정에 대한 평가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통일벼가 퇴장하고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에도 도시 소비자의 쌀에 대한 선호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 그것이 그 증산체제에의 동원 및 기억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벼의 기억은 과거사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구성하는 재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일상생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김태호, 2016).

5. 가정의례의 재편과 균열

1970년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1972년 유신체제의 성립 이후 다음의 삼대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즉 농촌의 ① 환경개선사업과 ②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③ 농민의 정신계발사업이다. 앞서 살펴본 주택개량과 통일벼의 증산은 각각 ①과 ②의 대표적 정책으로, 양자 모두 농촌의 생활변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크게 거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도 새마을운동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박정희 신드롬’(정해구, 1998: 60~70)과 함께 성공한 ‘신화’로 인식되고 있는³ 것은, 특히 이 두 사업에 대한 강렬한 경험과 선명한 기억이 작동한 결과이겠다. 양자의 강압적인 추진으로 말미암아 농촌의 ‘낙후한 초가집’과 보릿고개의 굶주림이 사라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

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③과 관련하여 거론하고 싶은 게 ‘가정의례준칙’이다. ‘가정의례’란 글자 그대로 가정에서 행하는 의례, 이른바 관혼상제를 말한다. 그중 ‘혼상제’의 세 의례 절차의 간소화와 허례허식의 일소를 목적으로 1969년 그 기준과 형식 등을 법률로 규정, 반포한 게 가정의례준칙이다. 이 ‘준칙’의 규범적 통제와 법적 강제에 따른 ‘가정의례’의 재편에 관해선 종래 여러 연구 성과가 제시되었다. 가령 정책론의 관점에서 가정의례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거나, 문화론의 관점에서 동 준칙이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체계 분석, 그리고 그로 인한 가정의례와 사회의식의 변화를 추구한 성과들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 대개 전통과 근대의 대립, 즉 전통적인 의례전승과 국가에 의한 법률적 통제 사이의 갈등이라는 구도에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김시덕, 2001; 오재환, 2001; 도민재, 2002). 이에 비해 고원의 경우, 전통과 근대의 대립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것의 내부에서 일어난 충돌을 대상화하고 있어 흥미롭다. 특히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반응을 분석하고 있어 주목에 값한다(고원, 2006b).

그것에 따르면, 우선 지식인들의 경우 사사로운 가정의례의 ‘준칙’ 제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나 반감이 많았다. 당시 박정화가 3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밀어붙이던 ‘위기’ 상황에서, 사생활의 간섭이나 침해의 위험성이 많은 동 준칙에 대해 경계심이 증폭된 결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정의례준칙을 법으로 하느냐, 준칙으로 하느냐를 놓고 여당의 공화당 정책심의회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는데, 결국 소장과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동 준칙을 실정법으로 규정하되 처벌조항을 도입하지는 않는 선에서 일단 절충적인 처리를 하게 된다.

다음, 농민들을 비롯한 일반 서민의 경우, 구래의 관혼상제 관행을 어쩔 수 없이 지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당시의 서민 대중들은 가정의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받고 있었고, 게다가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이미 전통적 생활상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의례준칙의 사회적 영향력이 헤게모니적 우위를 점유해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배태된 ‘신식 허례’였다. 사회 “지도층이 잘 안 지키는 가정의례”(『조선일보』 1969년 4월 18일), “지도층에 강조되어야 할 가정의례준칙”(『조선일보』 1973년 6월 18일) 등의 신문기사에서 헤아릴 수 있듯이, 전통적인 전근대성의 유습으로 인한 허례허식 풍조는 줄어든 반면, 산업화로 성장한 새로운 상위계층이 주도하는 과시적 소비의 허례허식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것이다. 1973년 유신체제의 성립 직후 가정의례준칙과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겠다.

새로 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준칙에서는 허례허식의 금지사항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적 처벌조항을 도입한 게 가장 큰 변화였다. 이처럼 박 정권이 가정의례준칙을 개정, 강화한 것은 물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상위계층의 과시 소비욕에 의한 일탈행위에 주원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시소비 풍조를 엄단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까지 직접 강제력의 집행 범위를 확장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결국 상류계층의 허례허식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지렛대로 가정의례준칙이라는 대중의 통제수단을 강화시켜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서였다. 유신체제의 영구집권 구축을 위한 사회의 억압 강화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강제력을 장착한 이 새로운 가정의례준칙은 그 후 시행 과정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강제적 처벌조항은 교묘한 편법으로 무력화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가령 청첩장이나 부고장과 같은 인쇄물에 의한 개별통지 금지는 친밀한 어투의 편지글, 곧 이른바 ‘자율서신’이나 구두연락, 전화통지, 신문 부고난 등의 전용으로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인쇄물에 의한 개별통지와 거의 동일한 관행이 지속되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가 제시한 가정

의례준칙의 위반 기준에 불합리한 것이 많았다는 점이다. 가령 가정의례준칙의 강제규정을 끝이곧대로 적용할 경우 한 겨울 먼 시골까지 조문하러 온 문상객에게 간단한 음식물 한 그릇조차 대접을 할 수 없었다. 농촌의 인정상 이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도리일 것이며, 결국 가정의례준칙의 강제는 일반 서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만을 유발했다. 그리하여 그 시행 과정에서 위반사례의 적발은 많았지만 실제 처벌한 경우는 드물었다. 결과적으로 박 정권이 허례허식 배격을 명분으로 사회를 규율하고자 했던 의도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철될 수 없었다.

정작 사회 부조리의 온상이 된 것은 개정 법률에서 규정한 금지조항이 아니라 그 금지 규정을 받지 않는 새로운 과시소비의 풍조였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는 고급호텔과 같은 럭셔리한 혼례식장을 이용한 결혼식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고, 역대를 넘는 토지와 자가용, 맨션 등의 호화 혼수가 오가는 결혼풍조가 상류층을 중심으로 등장해 점차 그 밑의 계층으로 확산되어 갔다. 결혼이 공공연한 자산의 거래수단이 되고 직업적 투쟁이가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또 호화판 묘지가 사회문제로 등장했는데, 심지어는 무덤 안에 특수냉동시설을 하는 등의 현상까지 나타났다. 반면에 제사와 같은 것은 사회계층의 상하를 막론하고 간소화했는데, 이는 과시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의 추세에 맞춰 간편한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 상위계층의 과시소비풍조는 더욱 확산되어 서민층으로까지 퍼져나갔다. 서민들은 상위계층의 문화행태에 대해 한편으로는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부러움과 체면의식에서 그들의 문화를 모방하고자 했다. 상위계층의 소비풍조가 이른바 상징자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해나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가정의례의 법률과 준칙이 갖고 있는 불합리와 맹점을 빌미로, 전통과 관습을 법령으로 막는 행위의 부당함을 명분삼아, 박 정권의 가정의례준칙을 무력화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가정의례준칙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상황의 요인이나 배경을 이상하리만큼 전통과의 갈등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던바, 그러한 사회담론의 과잉된 유포 양상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박 정권이 허례허식 일소를 명분으로 1969년에 도입한 가정의례준칙은 한국 사회에서 그 당시까지도 전래되어오던 전통적 가정의례 풍속을 서양식의 신식 가정의례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 가정의례준칙은 국민들의 사생활 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가정의 일상적 의례를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의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일반 서민 대중들로부터 일정한 공감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 준칙을 통한 사회통제는 이윽고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양식과의 갈등, 상위계층의 자본주의적 과시소비욕구에 의한 일탈이라는 이중의 저항 속에서 힘을 잃어가게 되었다. 특히 산업화로 성장한 상위계층은 유신정부와 일반대중의 갈등을 활용하면서 정권의 사회통제를 무력화하며, 이른바 ‘구별 짓기’를 통해 계급적 상승에의 기대감, 상층계급문화에의 동화의 표현으로서 가정의례를 재구성하는 상징자본을 구축해갔다고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정의례준칙은 전통적인 혼상제례문화를 해체하여 근대적 일상성을 구성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동시에 근대성 내부의 새로운 경쟁자에 의해 상당한 변용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의례준칙의 전개 과정은 서민 대중의 내핍과 근면을 바탕으로 압축성장의 근대화를 이룩한 발전 국가가 스스로 배태하고 육성한 계급집단에 의해 굴절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하겠다. 아울러 80년대 이후 발전주의 국가모델이 균열을 일으키면서,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한국 사회 지배세력의 새로운 사회모델 및 지배 이데올로기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고원, 2006b).

6. 새마을운동과 일상연구

지금까지 이승훈과 김태호, 고원 등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에 따른 한국인의 일상과 생활변화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고원의 경우 일상생활 연구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을 몇 가지 명시하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우선 하나는, 일상생활에의 접근이 사회를 공식 이데올로기로부터 해석하기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으로부터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방법과 미시적 접근 방법을 택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상생활 연구는 거시구조적 지표나 자료들이 사람들의 현실적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일상생활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지나치게 특권화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치 시대의 일상을 탐구한 포이케르트의 지적(D. Peukert, 2003: 10~11)처럼, 일상사 연구가 지엽적인 문제와 미시적인 그림 속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사의 전망이 생활세계적인 구조들의 복잡성에 대한 개념을 보유하고, 초지일관하는 목적지향의 분석적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고원, 2006b: 196~197).

또 하나, 고원은 ‘헤게모니적 권력전략’이라는 시각에서 새마을운동을 분석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그의 분석 지점은, ‘가난에서 해방되고 싶은 농민의 일상적 욕망’과 ‘농민을 경제적으로 동원하고 동시에 정권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국가 강제력의 작용’,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갈등과 침투, 변용과 유용, 동의와 균열을 창출해 가는 복잡한 근대적 대중정치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농민의 일상 속에 특정한 생활규범을 침투시키고자 한 ‘농민생활의 근대적 규율화’ 운동이자, 그것을 통해 농민을 ‘국민’으로 호명하고자 한 헤게모니적 권력전략으로 전화된다는 것이다(고원, 2006a: 178).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그 ‘근대적 국민 만들기’에서 위의 지배 블록만이 동의와 설득을 통해 헤게모니를 획득해 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아래의 농민들 역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짐짓 지연과 거짓 순응, 불평과 불만, 반발과 저항 등과 같은 다양한 표정과 몸짓으로 자신들의 작은 ‘일상적 욕망’을 실천해 간다는 점이다. 농촌사회와 농민생활의 유의미한 변환란, 대개 이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실천의 접합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그리고 이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왕의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은 이윽고 ‘변해가는 일상’으로 전환되게 마련이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가 대상화하려는 이 일상은 물론 ‘날마다 되풀이되는 생활’이나 동아시아에서 고래로부터 널리 사용해진 ‘풍속’과 같은 통상의 의미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근대의 경험과 생활을 재조직하는 영역으로, 새로운 근대성의 역사가 펼쳐지는”(Harootunian, 2000: 69~70) 시공간에 다름 아니다.

최근의 새마을운동 연구가 강조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시각’이나 ‘일상연구의 관점’은 바로 그러한 정치적 시공간에서 펼쳐진 주체들의 미시적인 생활실천의 탐구를 지향한다. 종래의 “능동적 국가와 수동적 개인”이라는 새마을운동론의 대전제를 지양하고, “구조적 시각과 일상의 다양한 사실들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승훈, 2006: 237~238)를 추구함으로써, “민중들의 생활세계와 경험세계에 접맥되는 새마을운동”(김영미, 2009: 11)을 역사화하려는 시도다. 주로 역사학과 사회학이 주도하고 있는 이 일상연구에서는 정부나 언론매체가 생산한 각종 문서나 자료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물론, 과거 새마을운동이 펼쳐졌던 마을 현장의 필드 워크도 행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발굴된 농민들의 수기나 일기 등의 분석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경험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병행되고 있어, 그 점 민속학의 현장연구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일상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아직 소수의 연구자들에 국한되어 있다. 게다가 그것은 “일상에 미친 국가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분석하려는 입장이 강하며, 따라서 “일상 자체의 연구로 나아가지 못[한]”(공제욱 편, 2008: 4)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모처럼의 인터뷰 자료가

주로 문헌자료를 보완하는 데 그치고 있어 문제다. 무엇보다 ‘체험된 생애사’와 ‘이야기된 생애사’의 명확한 구분과 재구성이라는 방법론(이희영, 2015: 133~143)의 자각 없이, 그 자료화와 해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이지만, 그간 한국민속학이 도외시해 온 새마을운동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상연구를 실행하고 있는 점은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행히도 내년 2월 한국 실천민속학회에서도 「근대화와 ‘민속’ 연구」를 기획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는바, 이번 학술회의의 일상 연구 성과가 확산, 심화되기를 삼가 바라마지 않는다.

注

- 1 1969년에 임동권이 중심이 되어 ‘한국민속학연구회’를 결성하고 그 해 12월 기관지 『한국민속학』을 창간한다. 그리고 이듬해에 동 연구회의 이름을 바꾸는데, 최상수의 주도 아래 1954년에 창립된 ‘한국민속학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민속학회’로 개칭한다. 이 두 학회를 2000년에 통합한 게 오늘의 ‘한국민속학회’다.
- 2 김태곤이 소장을 맡은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가 1971년부터 73년 사이에 주최한 것으로 「민속학의 현대적 방향」과 「민속학의 전환적 과제」, 「민속학의 대상」, 「민속학의 방법」을 차례대로 주제로 삼았다. 그 성과를 엮어낸 게 『한국민속학: 원론적 대화』(원광대학교 출판국, 1973년)이다.
- 3 가령 1998년 조선일보사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50년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은 새마을운동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올림픽 개최, 경부고속도로 건설, 광주 민주화운동이 2·4위를 차지했다. 2008년에도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동일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는 역시 새마을운동이었다. 자세한 것은 『조선일보』 1998년 7월 15일자와 2008년 3월 15일자 참조.

참고문헌

- 고원,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경제와 사회』 69, 비판사회학회, 2006a.
- _____, 「박정희정권 시기 가정의례준칙과 근대화의 변용에 관한 연구」, 『담론 201』 9-3,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b.
- 공제욱 편,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한울, 2008.
- 김시덕, 「가정의례준칙이 현행 상례에 미친 영향」, 『역사민속학』 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2009.
- 김태호, 「‘통일벼’와 증산체계의 성쇠: 1970년대 ‘녹색혁명’에 대한 과학기술사적 접근」, 『역사와 현실』 74, 한국역사연구회, 2009.
- _____, 「통일벼의 기억과 ‘임금님 쌀’의 역사 만들기」, 『사람』 57, 수선사학회, 2016.
- 남근우, 「‘민속’의 근대, 탈근대의 민속학」,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
- _____, 「누구의 무엇을 위한 ‘실용’인가?: 한국민속학의 실천성 재고」, 『민속학연구』 33, 국립민속박물관, 2013.
- _____, 「서울 고층집합주택의 전개와 아파트 살림살이」, 『일상과 문화』 1, 일상과 문화 연구회, 2015.
- 도민재, 「사회 변화에 따른 제례의 제 문제」, 『유교사상연구』 16, 한국유교학회, 2002.
- 민속학회 편, 「민속학 전국대회 토론회」, 『한국민속학』 5, 민속학회, 1972.
- 박진도·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박정희 정권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47, 역사비평사, 1999.
- 새마을연구회 편, 『새마을운동 10년사』, 내무부, 1980.
- 오재환,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의례문화의 변화」, 『사회조사연구』 16, 부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 이승훈, 「1970년대 농촌주택개발사업」, 『정신문화연구』 29-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이환병, 「모범농민·마을의 성장과 농촌 새마을운동」,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 _____, 「1960년대 마을 개발과 농촌 새마을운동의 초기 전개과정」, 『역사연구』 23, 역사학연구소, 2012.
-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한국사회학회, 2005.
- 정해구, 「박정희 신드롬의 양상과 성격」, 『박정희를 넘어서: 박정희와 그 시대에 대한 비판적 연구』, 푸른숲, 1998.

최길성, 『미신타파에 대한 일고찰』, 『한국민속학』 7, 민속학회, 1974.

포이케르트(Detlev Peukert), 김학이 역, 『나치시대의 일상사: 순응, 저항, 인종주의』, 개마고원, 20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한국농정40년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Harootunian, Harry, *Overcome by Modernity: History, Culture and Community in Interwar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전후 난요 지역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전개

기타군 구 이카자키초 및 우와지마시 고쿠보

야마나카 겐타

번역: 김 현정

들어가는 말

생명, 생활을 지키는 일인 위생의 개선이야말로 긴급하면서도 일상적인 생활 과제였다.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생활을 변화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 개선 활동이 역사적으로 현저히 나타난 것은 전후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이었다. 원래 감염증을 매개하는 서족곤충의 근절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환경위생개선 운동이었는데, 활동이 열심히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환경위생개선 운동의 성과를 발판으로 하여 다양한 생활 개선이 도모되었다. 또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모델 지구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때 단순히 똑같은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생활과제를 끄집어낸 다음 그 상황에 맞는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위생개선은 어떤 내용이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파급되었을까?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이라는 정책이 현지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이란

(1)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에 대해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이란 감염증을 매개로 한 서족곤충 구제를 목적으로 전개된 운동이다. 전후 주민 주도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이 활동은 단순한 환경 위생으로서 공중위생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생활 개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활동으로 교육적인 요소도 포함되었다. 하시모토 마사미,¹ 스가와 유타카² 등의 공중위생 학자들도 쇼와 30년대 당시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에 대해 생활개선과의 적극적인 관계성을 지지하였다.

(2) 역사적 경과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전개에 대한 공중위생학의 하시모토 마사미, 스가와 유타카, 세키 나오미³의 주장과 문화자원학의 사와다 루이⁴의 주장에서 보이는 공통된 역사 인식을 먼저 살펴보자.

전쟁 이전까지는 곤충매개질환의 박멸을 목적으로 메이지 30년 4월에 제정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위생조합 설립이 규정되었고, 조합은 경찰의 감독 하에 서족곤충을 구제하고자 했다. 다만 페스트가 유행하면서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서족위생해충구제가 시정촌에 의무화되었다. 전후에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강제적인 조직은 사라졌고 각 시정촌에서 실시하던 위생활동 또한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다.

전후의 보건행정은 GHQ의 주도로 도도부현 보건소에 환경위생감시원을 배치하고 위생반을 정비했다. 쇼와 21년에는 ‘서족곤충에 의한 전염병 예방강습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위생과에 서족곤충구제 관리 담당책임자를 두고 현시정촌에 서족곤충 구제반을 설치하도록 하는 연합군의 지시가 있었다.⁵ 이 사업에는 쇼와 24년까지 5억 엔 규모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쇼와 25년에 전염병 예방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 보조금은 중지되었다. 한편 이를 메우듯이 전국 각지의 농촌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주적인 구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활동은 시정촌이 현에 활발한 활동 지구를 모델 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현 내 다른 지구로 확대되었다. 쇼와 27년경부터 모델 지구 사업으로서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운동이 인지되기에 이른다.

모델 지구 사업으로 시작된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운동은 쇼와 30년 6월 각의 결정⁶에 기초하여 3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으로 보급해 나갔고 국민운동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그러나 쇼와 35년경부터 주민 주체성의 결여가 지적되기 시작했다. 활동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이 아니라 목적과 어긋난 약 뿌리기, 조직의 유명무실화가 드러났다. 또 알루미늄 새시, 방충망의 보급으로 각 가정이 대처해야 할 문제로 변화했다.

(3)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난요 지역에서의 도입

여기에서는 에히메 현 난요 지역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례 지역은 두 군데인데, 한 곳은 기타 군 구 이카자키초이고 또 한 곳은 우와지마 시 고쿠보이다. 활동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두 군데 모두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지향이 그 근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두 지구를 사례로 하는 이유는 두 지역 모두 이전의 모델 사업을 모방함으로써 성장했기 때문이다. 구 이카자키초의 활동은 고쿠보에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구 이카자키초 또한 나가사키 현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구 이카자키초와 고쿠보의 관계는 모델의 모방이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2. 이카자키초 환경 위생 실천회 활동

(1) 지역 개요

기타 군 구 이카자키초(현재 우치코초)는 에히메 현의 남쪽, 난요 지방의 내륙에 속하며 서쪽은 오즈 시, 북쪽은 우치코 시, 남쪽은 히지카와초, 남동쪽은 가와베무라와 접해 있다. 히지카와 강의 지류인 오다가와 강이 마을 중심부의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순수 농촌지역이며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쇼와 29년에 구 이카자키초, 텐진무라, 미소기무라가 합병하여 이카자키초가 되었다. 아래 운동은 구 세 곳의 마을들이 중심이 된 활동이다.

(2) 활동 경위

다음으로 『개정 五十崎町誌』와 『관보 이카자키 축쇄판』을 통해 활동 내용을 살펴보자.

쇼와 18년과 21년 두 번에 걸쳐 적리가 집단 발생하여 특히 쇼와 21년에는 총 환자 수 121명, 이 중 13명이 사망했다. 또 소학교 강당이 가설 격리병동으로 사용될 정도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지역 주민의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쇼와 28년에 같은 마을 출신이자 나가사키 의과대학 교수인 우지모토 시게키 박사를 초청하여 나가사키 현 환경위생활동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9년에 마을 대표 정장(町長) 이하 7명이 환경위생 선진지역인 나가사키 현을 시찰했다. 이후 쇼와 30년에 오즈 보건소로부터 '위생 모델 마을'로 지정받고,⁹ 시찰단을 포함한 관계자 40여명이 '환경위생연구회'를 개최하여 환경위생실천회의 방침을 정했다. 쇼와 30년 1월 25일 '이카자키초 환경위생실천회'¹⁰를 발족했는데 목적은 '건강하고 밝으며 풍요로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서쪽 곤촌 구제에 두고 연간 30만 엔의 환경위생비가 마을 행정 예산에 계상되었다.

(3) 활동내용

먼저 활동지침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사업은 어디까지나 나가사키 식을 채용하고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둘 것.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우선 변소와 도랑, 진애소각로 설치, 퇴비사, 축사 등의 개선, 부역의 개선, 간이수도 설치 등이며 마지막으로 영양 개선이다. 이를 위해 구 정촌을 단위로 하여 1지구 당 3지구를 모델 지구로 지정할 것. 이에 필요한 경비는 쇼와 29년에 경정 예산을 짤 것.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널리 인재를 모아 마을 전체의 조직을 만들 것. 즉 후지모토 시게키의 나가사키 실천방식을 모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 개선, 인프라 정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활동의 경우, 변소 개선은 변을 모으는 곳을 완전 밀폐하여 외부와의 출입을 차단하고 하수구는 적은 물로 철저히 청소할 수 있어야 하며 오수가 남지 않는 V자형 도랑을 장려했다.

(4) 사업 추이와 평가

5년 동안 1870세대 모두 변소, 도랑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쇼와 29년에서 35년 사이의 7년 동안 1862호만 완성이었다. 사업에는 철저한 지도방침이 있어서 자재 시멘트, 석회 등의 경우, 70%를 마을이, 30%를 지구가 부담하고 전 지구를 실행반장 등이 순회하여 개선계획을 기초로 자재 수량을 산정하고 산정한 자재는 개인이 아닌 지구 전체의 자재로 소중히 사용하도록 했다. 개선 계획 외의 개선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 부담이나 지구 주민들의 무료 봉사를 통한 공동작업 방식으로 행하고 개인 작업은 허락하지 않는 등의 규칙이 있어 조직적 활동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개개인의 활동이라기보다 마을 행정의 개선활동이라 보는 편이 낫겠다. 마을 주민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위생 의식이 매우 높아져 청소를 깨끗이 하고 공동작업을 통해 지구 전체 주민들의 융합이 이루어졌으며 환경위생뿐만 아니라 도로, 마을 경계 문제 등 오랜 현안들도 각각의 노력을 통해 해결되었고 특히 청소년의 불량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염소의 요마비(腰麻痺)가 많이 감소했고 소의 발육, 닭의 산란율도 약 20% 이상 개선되었다(표 1, 2).

	파리					모기					벼룩					쥐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
완전히 사라졌다	1	0	2	3	2	2	3	6	11	8	12	28	27	67	46	10	4	13	27	19
거의 사라졌다	16	13	14	43	30	30	25	32	87	60	29	16	14	59	41	18	18	14	50	34
반 정도 사라졌다	21	21	21	63	44	12	17	8	37	26	2	5	4	11	8	13	10	7	30	21
20% 정도 사라졌다	2	6	6	14	9	1	4	1	6	4	0	2	1	3	2	3	7	5	15	16
똑같다	6	12	4	22	15	1	3	0	4	2	3	1	1	5	3	2	13	8	23	16
計	46	52	47	145		46	52	47	145		46	52	47	145		46	52	47	145	

표1 서쪽근촌류의 감소율 (쇼와 30년 8월 1일)

	닭 산란율				소 발육				유아 발육				가족의 병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증가	9	6	8	23	2	12	6	20	4	6	3	13	5	2	1	8
변함없음	4	28	7	39	4	14	7	25	2	14	5	21	5	10	2	17
감소	0	2	1	3	2	0	0	2	0	1	0	1	0	20	15	35

표2 환경위생의 영향 (쇼와 30년 8월 1일)

(5) 이후

이 활동을 계기로 마을 전체의 환경위생사업이 전개되어 구체적으로는 정례 춘계 대청소 지도, 1년에 4번 소독사업, 쥐 박멸의 달 실시, 묘소의 꽃꽂이 처리 및 대나무숲 처리, 파리잡기운동, 구더기잡기 콩쿠르 개최, 마을이 운영하는 물뿌리기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높이 평가되어 쇼와 31년 환경 위생 마을로서 애히메 신문사 상 수상, 쇼와 32년 환경위생모범마을로 마이니치 신문사 및 후생대신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러한 활동을 지도한 후지모토 시게키는 영양 개선을 같은 마을에서 실시했다. 이로 인해 마을 전체의 생활 개선이 활발해져 『관보 이카자키 축쇄판』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전해졌다. 특히 환경위생 개선이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생활개선보급 사업과의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6) 소괄

쇼와 30년에 오즈 보건소로부터 ‘환경위생 모델지구’로 지정받은 경위부터 이 사업이 마을 전체의 생활 향상에 기여했음을 이상에서 알 수 있었다.

또 나가사키 의과대학의 후지모토 시게키가 이 활동에 참여한 의의는 크다. 나가사키에서는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이 각의 결정된 쇼와 30년 이전인 쇼와 26년 7월 이후 ‘모델 위생 시정촌 건설 사업’이라고 명명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 계기는 적리 등의 감염증을 매개로 한 서쪽근촌을 구제하는 사업이 전개되면서 쇼와 26년 5월에 니시오카 다케지로 지사가 취임함과 동시에 현의 시책으로서 위생 나가사키 현 건설을 목표로 모기, 파리, 쥐를 구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된 것과 관련이 있다.¹¹ 즉, 구 이카자키쵸 출신인 후지모토가 나가사키에서 실천한 활동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이 활동은 나가사키 식 행정과 주민의 강한 조직 관계에 특징이 있었고 통솔된 활동 및 시설 개선은 인프라 정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쇼

와 30년 만을 본다면 아직 조직 자체가 마을에 제대로 알려지지지는 않았었다. 『관보 이카자키 제7호』¹²에 기록된 반성 내용을 보면 ‘협력정신’의 결여가 지적되었다.

3. 우와지마 시 고쿠보 공민관과 지구 위생

(1) 지역 개요

우와지마 시 고쿠보는 시내 남서부에 위치하며 구시마 건너편의 반농반어의 마을이다. 觀音、若宮、住吉、金比羅、和靈 1구、和靈 2구、隣護、白浦의 8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은 험준한 산에서 바다로 이르는 평지에 위치하며 연안을 따라 길고 가느다란 형태이다. 생업은 주로 어업과 진주 양식업, 굴 재배이다. 쇼와 30년대에는 굴 재배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주로 보리, 감자를 다랭이논에서 재배했다. 어업도 활발하여 뜰망, 선망을 이용한 고기잡이가 이루어졌다. 쇼와 32년 당시 인구는 357세대, 1397명이었다.

(2) 활동 경위

『지구 위생의 발자취』 및 기록 슬라이드 영화 『시궁창과 싸운 공민관』을 살펴보자.

쇼와 28년에 고쿠보 공민관이 설치되면서 주사로 임명된 청년단 단장 차하칠웅(此下七雄)¹³은 공민관의 활용에 대해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된 회의의 장소로 이용되지 않고 있던 점에 의문을 가졌다. 차하는 지역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았다.¹⁴ 쇼와 28년부터 시작된 이 지구로의 순회는 부인 학급, 부인회,¹⁵ 청년단을 둘러싼 지구 집회(사진1)¹⁶라고 불리게 되었다.



사진1 지구 집회 풍경

쇼와 30년 말, 어느 지구 집회에서 ‘도랑 냄새가 지독해서 참을 수가 없다,’ ‘파리가 너무 심하게 들끓는다’는 불만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주사는 이를 지구 생활의 문제라 여기고 우와지마 시 사회교육과, 우와지마 시 보건소 등의 지도기관의 협력을 얻어 지도자 연구회를 열고 공민관의 연차 계획을 통해 지구 위생을 시정하고자 했다. 부인회 조직과 공민관을 발판으로 하여 환경위생기술 강습회를 열었다. 지구 집회에서 고쿠보 지구 환경위생협의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구의 남성들 중에는 ‘어부가 파리에 신경 쓰면 어디 살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반발 속에서도 부인회, 청년회는 하수구 정비 자금을 자치회에 요청하여 예산을 만들고자 했다.

쇼와 31년 고쿠보 자치회는 지구 위생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구의 하수구

정비에 예산을 만들기로 했다. 이후 자치회 간부는 기타 군 구 이카자키쵸로 시찰을 갔고 하수구 개선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11월 19일에 초기 공사가 1지구에서 시작되어 3월 명절 준공을 목표로 차례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자극이 되어 다른 지구에서도 콘크리트로의 개선 신청이 줄지었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지구의 하수구 공사가 이루어졌다.

(3) 활동내용

쇼와 30년 지구 집회에서 ‘모기가 들끓어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계기로 하수구 청소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하수구는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오수나 쓰레기를 치워도 물이 다시 모이게 되어 금새 모기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 때문에 하수구를 콘크리트로 메우자는 의견이 나왔다. 7곳의 지구 집회 중 1곳의 지구가 실행에 옮겨 하수구 개선을 시도했다. 30세대 회원 모두가 오물을 뒤집어쓰고 땀을 흘리며 자갈을 쌓아 콘크리트를 덮었다. 여성들의 고생을 보다 못한 청년 단원들과 몇몇 남성들이 협조했다. 그리고 이후 3개월 동안 지구 협의회는 공민관을 중심으로 전력을 다해 공사했고 모든 부락에서 이루어졌다.

부인 학급은 보건소에서 기사를 모셔와 환경위생기술 강습회를 열고 자치회, 청년단도 여기에 참석했다. 각 지구 집회에서는 보건소의 위생 교육과 협력하여 지구 위생의 기초지도를 작성함과 동시에 환경 위생의 실태가 지구 집회에서 논의되었다.

실시 계획의 자금 조달도 지구 집회의 결집된 의견에 따라 매년 부인회 예산의 주요 재원인 감자를 썰어 말린 것을 판매한 수입 15000엔을 50가마니의 시멘트 값으로 썼다. 이렇게 1년 동안의 지구 집회는 하수구 개선의 실천으로 이어졌다(사진2). 당시 부인회의 계획에 따르면 모든 지구의 완공 목표는 3월 명절로 설정되었지만, 2번째 작업 때부터 모든 지구에서 ‘구정물을 없애자’는 의견이 다수 출현하여 집중적인 하수구 개선이 이루어졌다. 총 경비 40만 엔, 부인회의 시멘트 50가마니는 300가마니 이상이 되었다.



사진 2 하수구 공사의 한 장면

(4) 활동의 평가

우와지마 보건소 위생교육계 도엽봉웅(稻葉峯雄)은 고쿠보 지구의 활동에 대해 관이 지정해서 실행하는 위생 모델지구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 과제로서 대처한 가장 모범적인 실천이었다고 평

가했다. 특히 공민관이 육성한 지구 집회가 진정한 모체가 된 점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고 한다.

또 『시궁창과 싸운 공민관』에서는 지구를 방문한 사회교육과장에게 자치회장이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부락의 더러움을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락 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마다 바로 시에 의존하거나 높은 분께 부탁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부락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그에 따라온다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의식개혁으로서의 기능도 했음을 알 수 있다.

(5) 이후

지역 주민들은 지구 집회를 생활 합리화 운동으로 생각하며, 하수구 개선은 그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쇼와 33년에 생활 합리화 운동이 행해졌다. 그 첫 번째는 생활 전기화의 문제였다. 4월 부인 학급에 시코쿠 배전의 기사를 강사로 모시고 전기세탁기, 전기밥솥 등 부역의 전기화에 대한 지식, 구입 방법 등을 연구하고 그 3개월 후 지구에는 8대의 세탁기와 40개의 전기밥솥 등이 들어왔다.

생활 합리화 운동은 생활 전기화, 생활 경제의 조사, 농가 부기의 기입 등 항상 의식 개혁을 필요로 했다. 하수구 개선은 생산과 연결된 의식 개혁이기도 했으며 생활의 협동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의식 개혁은 기록에도 관심을 갖게 했다. 쇼와 32년에 작성된 지구 위생의 기록 슬라이드 『시궁창과 싸운 공민관』은 그들의 활동을 기록함으로써 주민의 활동 의식을 높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듯이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는 ‘속닥속닥 상자’와 같은 활동도 이루어졌다. 의견은 발표 토론되었고 공민관에서 기록으로 정리했다.

(6) 소괄

이 활동의 계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오고간 이야기 중에서 문제를 발견한 일이었다.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대부분이 방역상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고쿠보의 경우 주민들의 집단 토론이 선행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또 이 활동이 하수구 개선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생활 합리화 운동을 촉진한 부인회와의 연계도 있었다. 이 활동의 원동력은 주부들이었다. 지구 집회도 주부들이 열었다. 이 통솔 부분을 공민관이 담당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차하는 공민관을 생활 의견을 수합하는 장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후방 지원이 공민관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시 행정도 이 활동에 대해 간섭하는 일은 없었다.

4. 기타 군 구 이카자키초에서 우와지마 시 고쿠보로

기타 군 구 이카자키 초와 우와지마 시 고쿠보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곳의 계기, 배경, 조직 구성도 전혀 다르다. 다만 우와지마 시 고쿠보의 하수구 개선은 구체적으로는 기술적인 모델로서 구 이카자키초를 시찰하였다. 즉 이 두 활동은 배경이 전혀 다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구 이카자키초와 우와지마 시 고쿠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두겠다. 공통점은 모기와 파리의 발생원인 물웅덩이, 쓰레기더미를 없애는 것이 중요했고 이를 위해 두 곳 모두 그 발생원을 없애고자 했다는 점이다. 구 이카자키초에서는 철저한 모기의 박멸 운동이 전개되었고 나가사키 방식에 따라 하수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교체하고 변소, 쓰레기장은 콘크리트로 덮는 등 파리가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고쿠보에서는 연안 파도의 영향으로 하수구에 바다로부터와 쓰레기가 역류해 온다는 점이 큰 문제였고 이를 해소해야 했다.

차이점은 주민들의 역할에 있다. 구 이카자키초에서는 행정이 주체가 되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고쿠보에서는 모두 주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지도자인 후지모토 시게키와 차하칠웅 두 사람의 존재가 개입되어 있다. 후지모토는 나가사키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전문가의 입장에 서서 구 이카자키초의 활동을 도왔다. 이것이 행정적 측면에서의 주민 참여를 가져왔다. 마을의 장(이장과 유사)이 필두가 되어 지시 계통이 나뉘어졌으며 주민들의 노동력을 모아 활동이 이루어졌다. 다만 ‘참여’라고는 해도 행정적 조직 틀 안으로 분류되어 주민들의 발언권은 적었다. 생활 과제를 찾아내어 주민들이 이에 깨닫게 하였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협동, 주민들 사이의 협동을 실현시켰다. 지구 집회를 중심축으로 하여 협동 대상 집단에 자치회가 만들어졌고 행정은 이를 보조하는 형태로 개입했다. 앞서 말한 이카자키와 비교하면 행정적 색깔을 적었고 주민들의 의사 결정권도 있었다. 구 이카자키초가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이라면 고쿠보는 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식이다.

난요 지역의 두 지구의 활동은 서로 기술의 습득이라는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방식은 행정적, 민주적 측면에서 각각의 과제에 대한 각자의 적합한 방법이 채택되었다.

나오는 말

난요 지역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모델은 나가사키의 환경위생개선 활동이었다. 이는 후지모토 시게키를 통해 먼저 구 이카자키초에 도입되었다. 구 이카자키초에서는 후지모토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 활동이 시작되었고 쇼와 30년에 오즈 보건소의 추천으로 모델 지구로 지정되었다.

우와지마 시 고쿠보에서는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로서의 개선 계획에서가 아니라, 공민관을 친근한 곳으로 만들고자 한 사회교육적 의미에서 차하칠웅이 시작한 지구 집회가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하수구 개선을 결정했다.

그럼 전후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운동에서 이 두 지역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첫째로 이 활동 이후의 차이이다.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고쿠보는 개선 활동을 생활 합리화로 이어갈 수 있지만, 관 주도인 구 이카자키에서는 행정의 지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로 생활 과제에 대한 대응이다. 구 이카자키는 행정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변칙적인 생활 상황에는 대응할 수 없다. 그러나 고쿠보는 유연한 발상과 대응력을 가지고 있기에 하수구 개선에서 다른 활동으로의 전개가 가능하다. 즉, 생활 과제를 누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 이후의 전개도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다. 쇼와 30년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은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고 시행착오도 있었기에 혼란스러웠다. 전쟁 이전부터 있던 강권적 하향식 방식을 취한 지역도 있었고 전후의 민주적인 주민 의견의 반영으로서 상향식 방식을 취한 지역도 있었다. 주민 참여라는 의도는 있었지만 그 방향성은 당사자의 생활 과제에 대한 자세에 따라 좌우된다. 때문에 기술은 같더라도 방법은 달라졌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모델의 파급은 그 모델을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행정이라면 행정이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주민이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활동이 달라진다. 고쿠보의 경우, 주민이 생활 과제를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 내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 협동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에 행정의 틀을 넘어선 활동으로 발전했다. 구 이카자키는 행정이 주도하였기에 형식적인 합의 형성은 가능했지만 주민들 개개인에 이르는 정도의 철저함은 없었다.

환경위생개선은 지역의 생활 과제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 과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 내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협동에 대한 합의가 형성된다. 이것이야말로 큰 의미를 지닌다. 생활 개선의 실체는 결국 현지에서 생활 과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어떻게

그들 본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가라는 실천에서 찾아볼 수 있다.

注

- 1 橋本正巳 「모기와 파리가 없는 마을 만들기」(『農業世界』 8월호, 쇼와30년).
- 2 須川豊 「모기와 파리를 없애는 운동을 위해」(『厚生』 4월호, 쇼와 32년).
- 3 関なおみ 「전후 일본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실천 운동—주민참회와 국제협력의 시점에서」(『国際保健医療』 제24권 제1호, 헤세21년).
- 4 澤田るい 「전후 일본에서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실천운동의 전개—교육영화 『백 명의 쾌활한 주부들』 분석에서—」(『文化資源学』 제13권, 헤세27년).
- 5 野村健一・川端愛義, 『귀와 위생해충』, 北隆館, 쇼와 22년, 金原一郎 편, 『전염병을 매개하는 서족곤충 박멸지침』, 일본의학잡지 주식회사, 쇼와21년.
- 6 「자료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실천운동에 관한 건」(『도시청소』 제25호, 쇼와 30년), 「예산 81억엔으로 추진 모기와 파리 추방운동」(『新聞月鑑』 제78호, 쇼와 30년).
- 7 쇼와 21년 나가사키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 쇼와 42년 정년퇴임까지 위생학, 공중위생학의 교육과 연구를 했다. 쇼와 29년부터 이카자키초 환경위생 지도 및 위생 사상의 보급에 노력했다. 이카자키초의 환경위생모델 사업을 전인했다(五十崎町誌編纂委員会編, 『改訂五十崎町誌』, 1998).
- 8 나가사키 시 다테가미초, 히가시야마테마치, 니시소노기 군 나가우라무라, 소노기마치 네 군데를 시찰. 구 이카자키초와 직접 관련되는 곳은 니시노소기 군 나가우라무라. 동기는 전염병 예방과 기생충 구제이며 변소 개선, 진애소각로 설치, 후지모토 식 배수로 정비가 이루어졌고 전염병 소멸, 기생충은 감소했다(『公民館報』 第2号 昭和30年1月25日, 五十崎町中央公民館編, 『館報いかざき縮刷版』, 1990).
- 9 쇼와 30년 1월 12일에 오즈 보건소장으로부터 '에히메 현 모델 위생지구 설치에 관해'라는 통첩이 후생계로 전달되었다. 내용은 '모델 위생지구'로 지정받고 싶은 데 마을의 의향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五十崎町公民館報』 第3号 昭和30年3月25日, 五十崎町中央公民館編, 『館報いかざき縮刷版』, 1990).
- 10 조직은 집행기관으로 회장(정장), 부회장(조역), 이화 이사회(회의 의사결정기관), 회계(경비), 집행부, 협력반의 4가지로 나뉜다. 이사회는 의회의장, 부의장, 문, 후생위원, 교육위원, 학교장, 공민관장, 부인회장, 청년 회장, 大久喜광업소 소장, 학식경험자의 총 31명. 집행부 중 대책부에 후생계장, 계에 후생계와 공민관주사(계몽, 선전)가 있어서 계획을 이사회에 붙인다. 집행부 안에 속하는 실행부는 후생원장, 각 구장이 실행지 부장이 된다. 협력반은 학교협력반, 부인회협력반, 청년단협력반이 있다(『五十崎町公民館報』 第3号 昭和30年3月25日, 五十崎町中央公民館編, 『館報いかざき縮刷版』, 1990).
- 11 橋本正巳 「広島・長崎両県における環境委衛生生活活動について—蚊とはえのいない生活運動の全県的普及の先駆—」(『日本公衆衛生雑誌』 第2巻第3号, 昭和30年).
- 12 모델 지정 6개월 후의 상태를 조사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보면 계획은 어느 정도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협력정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쓰여 있다(『館報いかざき』 第7号 昭和30年10月25日, 五十崎町中央公民館編, 『館報いかざき縮刷版』, 1990).
- 13 차하칠웅은 쇼와 4년 고쿠보에서 태어났다.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본다고 하여 존경을 받았고 쇼와 28년에 고쿠보 공민관이 만들어졌을 때 초대 공민관 주사를 맡았다.
- 14 차하 주사는 '공무원이자 지도자이기 이전에 백성의 한 사람이자 부락의 주민'임을 인식하고 '난 이 부락의 주민이고 백성이니까 모두와 함께 생각해보자. 이제 공무원이나 윗사람, 외부의 공민관 주사 흉내를 내는 것은 관두자.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이야기하자. 문제는 부락 밖이 아니라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공민관이 단순히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았다.
- 15 부인회는 시집오면 가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시어머니가 부인회에 남아 있을 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부인회는 고쿠보에 하나 있었으며 우와지마 시 말단조직으로 위치지워졌다. 부인 학급은 공민관 강좌로 부인회 회원들 다수가 출석했으며 정해진 연령 제한은 없었다.
- 16 지구 집회는 이 부락 내 생활의 모체로 만들어진 여성 단체이다. 쇼와 30년 말경부터 시작되어 30명 정도가 모여 활동을 통해 차츰 단체로서의 모양이 만들어졌다. '집회 내용은 그냥 보면 잡담이나 노는 게 목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학습 활동이었다고 한다. 각 여성들이 생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참고문헌

- 金原一郎編, 『伝染病を媒介する 鼠族昆虫撲滅指針』, 日本医学雑誌株式会社, 昭和21年.
- 野村健一・川端愛義著, 『鼠と衛生害虫』, 北隆館, 昭和22年.
- 橋本正巳, 『蚊とハエのいない町を行く』, 『厚生』 第8巻第7号, 昭和28年.
- 須川豊, 『蚊や蠅をいなくしよう—環境衛生立法の背景—』, 『時の法令』 第130号, 昭和29年.
- 橋本正巳, 『蚊とハエとブユの駆除』, 『国立公園』 第66号, 昭和30年.
- 『資料 『蚊とはえのいない生活』の実践運動に関する件』, 『都市清掃』 第25号, 昭和30年.
- 『予算八十一億円で推進 蚊とハエの追放運動』, 『新聞月鑑』 第78号, 昭和30年.
- 橋本正巳, 『蚊とハエのいない村づくり』, 『農業世界』 8月号, 昭和30年.
- _____, 『広島・長崎両県における環境委衛生活動について—蚊とはえのいない生活運動の全県的普及の先駆—』, 『日本公衆衛生雑誌』 第2巻第3号, 昭和30年.
- 石応公民館蔵 記録スライド映画, 『どぶととりくんだ公民館』, 昭和32年.
- 石応公民館, 『地区衛生のあゆみ—石応公民館事業概説—』, 昭和33年.
- 五十崎町中央公民館編, 『館報いかざき縮刷版』, 平成2年.
- 五十崎町誌編纂委員会編, 『改訂五十崎町誌』, 平成10年.
- 関なおみ, 『戦後日本の「蚊とはえのいない生活実践運動」—住民参画と国際協力の視点から』, 『国際保健医療』 第24巻第1号. 平成21年.
- 澤田るい, 『戦後日本における「蚊とはえのいない生活」実践運動の展開—教育映画『百人の陽気な女房たち』の分析から—』, 『文化資源学』 第13巻, 平成27年.

백년 난감: 현대 중국의 화장실¹ 혁명²

저우싱

중국어에서 일상생활의 소쇄(小瑣)함과 범속(凡俗)함을 묘사할 때, 흔히 “빨나무, 쌀, 기름, 소금, 간장, 식초, 차(柴米油鹽醬醋茶)”³, “의식주행(衣食住行)”, 혹은 “먹고, 마시고, (똥오줌을) 누고, 싸고, 잠자고(吃喝拉撒睡)”(상하이에서는 “吃喝屙汰睡”라고 한다.) 등과 같이 언어적으로 약속된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어휘는 사람들의 배설,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화장실 문제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통상적으로 소홀히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회피할 수 없는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청대 말기에서 중화민국 초기⁴ 이래, 중국인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행위와 화장실 상황은 줄곧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상이 되었고, 중국의 이 ‘오랜 난제(難題)’는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转机(轉機)가 마련되었다.

일부 현지조사보고서에서 간혹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것 외에, 중국의 민속학과 문화인류학 등에서 지금까지 화장실에 가는 것(如廁), 화장실, 화장실 혁명 및 관련 문제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은 현재 중국에서 이미 발생했고, 일부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목하(目下) 여전히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화장실 혁명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그것을 현대 중국의 대규모 ‘생활혁명’의 중요한 일환으로 보고자 한다. 배설행위와 배설물, 그리고 화장실과 관련된 문제를 ‘위생’ 문제로 보는 것에 비해, 이 글은 현대 중국이 갖고 있는 복잡한 종합적 배경 하의 사회와 문화 문제로서 이해하고자 한다.⁵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개념은 다음과 같다. ‘화장실 문화’는 사회마다 모두 존재하는 배설물의 처리 및 배설행위의 관리 규범과 시설 등을 말한다. ‘화장실 문명’은 한 사회에서 배설행위를 규제하고 계도하는 것, 그리고 배설물을 처리하는 기술 수준과 사회적 관리 수준을 말한다.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과 관련되어 현대 중국이 갖고 있는 두드러진 제 문제의 총화(總和)를 말한다. ‘화장실 혁명’은 어떤 사회가 내재적 동력이나 외부 자극을 통해 배설행위의 관리, 배설물 처리 시설과 관련 시스템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관련 조치의 총화를 말한다. 화장실 혁명은 사람들의 화장실 사용방식의 개변(改變), 화장실 문화의 변천 및 화장실 문명 수준의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지향점은 모든 사람들이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존엄이 있으며, 편리한 배설 환경을 향유하는 것에 있다.

1. 농경문명의 ‘화장실 문화’

문화에 따라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화장실 사용방식을 갖고 있고, 각각의 특색 있는 배설물의 관리 통제와 처리방식이 있다. 드넓은 국토의 중국에서 화장실 및 화장실 사용 행위방식과 문화형태는 또한 아주 다양하다. 초원과 삼림 및 산지에서 유목하고, 유렵(遊獵)하고, 유경(遊耕)하는 민족은 대개 화장실을 만들지 않거나 고정된 화장실이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들의 배설행위가 규범이 없고 비위생적이라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러한 생존환경에서는 사람과 가축의 분노가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할 뿐이다. 서남 지역의 일부 산지 농경을 하는 소수민족에서는 사람의 분노를 퇴비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그들이 볼 때, 한족들이 사람의 분노로 시비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들의 땅은 더 깨끗하다. 한족은 전형적인 농경민족이며, 그 농경문명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을 농작물의 퇴비로 잘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의 분노는 농가의 퇴비로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것이 중국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화장실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서양의 수세식 화장실과 비교해서, 중국은 대부분 한축(旱廁, dry closet)⁶이다. 구체적으로 화장실 사용방식에서도 서양인의 좌식과 대조를 이뤄, 동아시아 각국은 대개 쪼그리고 앉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중국의 각 민족들도 인류의 기타 여러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사회화 과정 중에 먹고, 마시고, 싸고, 누고, 잠자는 것을 축성(促成)하는 문화규범이 있다. 즉 배설행위의 자기 조절, 배설물에 대한 혐오 등, 사실 상 인류의 모든 사회는 어디나 예외 없이 사람 신체의 이러한 자연 속성을 감추는 것을 필요로 한다.⁷

중국에서 화장실(廁所)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축은 깨끗함이다(廁, 淸也)”라고 하였는데, 반대말로 뜻풀이⁸를 한 것은 더러운 것은 응당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진한(秦漢) 시대의 ‘혼(溷)’과 ‘훈(園)’은 돼지우리와 뒷간의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출토된 한진(漢晉, 한대와 위진 남북조) 시기의 유물 중에 돼지우리와 뒷간의 기능이 겸비된, 뒷간과 가축우리 울타리가 일체가 된 점토 명기(明器) 모형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뒷간은 중국의 북방과 화남(華南) 지역, 일본의 오키나와 등지에 있는데, 근대까지도 계속 존재하였다. 연구자들 중에는 한대(漢代)의 뒷간에서 이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통풍(通風) 설계를 하였으며, 당나라 때는 ‘사축(司廁)’이란 관직이 있었고, 송나라 때 벤량(汴梁)에 공공 화장실(公廁)이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청나라 가경(嘉慶) 연간에는 돈을 받는 뒷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열심히 한다. 하지만, 한 가지 기본 사실은 현재까지도 중국의 광대한 농촌에서는 노천 뒷간이 많이 있고, 사람의 분노를 퇴비로 쓰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학자 Daniel H.Kulp(1888~1980)는 1925년 『화남(華南)의 향촌 생활』이란 책을 출판하였다. 그는 평항마을(鳳凰村) 사람들의 “제한적인 위생 지식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전통과 미신에 기초해 있다. 비교적 깨끗한 방일지라도 곳곳에 쓰레기와 오수(污水) 및 분변(糞便)이 담겨 있는 덮개 없는 통들을 볼 수 있다. 농민들은 매일 변소에서 액체 분변을 떠내어 마을을 지나 농지까지 지고 가서 농작물에 시비를 한다. 사람들은 한 시냇물(鳳凰溪)에서 물을 길고 또 마통(馬桶, 이동식 변기)도 씻는다.”고 지적하고 있다.⁹

양마오춘(楊懋春)은 산둥(山東省) 타이터우(台頭) 마을 민속지에서 화장실과 관련된 문제를 비교적 많이 언급하고 있다. “노천 화장실은 농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여름에는 화장실이 파리를 끌어들이고, 음식물을 가릴만한 적당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파리가 다시 음식물에 날아올 수 있다.” “타이터우 마을의 농민-기타 많은 마을들의 농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음용수는 끓이고, 모든 음식은 다 가열하여 익히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¹⁰ 이와 유사한 상황이 중국 각지의 농촌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북방지역 농촌에서는 농민이 겨울철 농한기에 광주리와 삽을 들고 나가서 “똥을

줍는” 전통이 있다. 허난(河南省)의 농촌에서는 겨울철 똥을 줍는 노인들이 그 경험을 악곡[小曲]으로 만든 것이 있다. “양똥은 산자락에서 줍고, 사람똥은 구석진 곳에서, 개똥은 담모퉁이에서, 나귀똥은 내리막에서, 소똥은 황량한 풀밭에서 줍는다.” 각지의 농업에 관한 속담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농작물의 꽃 하나는, 퇴비를 주는 것에 달려있다.” 이것은 농경문명의 향토(또는 지역) 지식 체계의 일부이다. 농경문명 형태에 적응한 화장실 문화에서는 ‘퇴비’와 인분을 수집하고, 아울러 그것을 소중한 자원으로 보며, 한편으로는 아주 평범한 일로 여겨, 비록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것일지라도 특별히 그렇게 난감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쉬랑광(許煒光)은 1942년 중국 윈난(雲南)성 서북지역의 콜레라가 발병한 위험지역의 마을[西城]에서 지역사회 오염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도교 의례를 심도 있게 관찰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역병 위기에 처해 취한 행동이 종교적 정화의식과, 실제로 위생을 청결히 하는 방법을 결합하고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그중에는 콜레라를 예방하는 약물과 처방을 하면서, 또한 민중들로 하여금 도덕적 계율을 따르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현지 경찰은 다음과 같은 공고문을 올렸다. “각종 동물을 놓아기르는 행위를 엄금한다. 아무 데나 마음대로 대소변을 보거나 함부로 쓰레기 버리는 것을 엄금한다. 위반하는 자는 가차 없이 사살한다.” 이와 동시에 한 지역공동체의 존장(尊長)은 “기도하고 금욕하며, 심히 불결함을 엄금한다.”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현지 교회학교와 병원의 화장실 안팎을 석회분을 사용하여 소독하던 것을(이러한 상황은 1940~1960년대의 중국에서 상당히 보편적이었다.), 주택 앞에 석회분으로 반원형의 선을 그려 병마를 억제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길거리를 빗자루로 쓸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집 앞도 청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상 시기에는 오히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대소변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 도덕의 권계(勸戒)를 능히 받아들이기도 한다.¹¹

동아시아 각국이 근현대화 되기 이전의 교토(京都), 에도(江戸), 서울과 카이펑(開封),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등 인구가 비교적 많은 도성에서도 역시 도시 주민의 분노를 주변 농촌에서 필요로 하였으며, 근교 농민들은 각종 방법을 통해 도시사람들의 배설물을 가져와 퇴비를 만들었던 정황이 있었다.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1950년대에는 점점 증가한 화학비료가 인분노로 하여금 경제적 가치를 잃게 하였고, 1960년대에는 각지에 분노 처리시설을 건립하여 화학 처리를 하였으며, 1970~80년대에는 하수도와 수세식 화장실이 점차 보편화되었다.¹² 중국에서는 베이징을 예로 들면, 실제로 20세기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노를 푸는 사람’이란 직업이 도태되었다.

중국 강남지역의 수향(水鄉)에서는 보편적으로 실내에 마통(馬桶)을 두어 대소변을 보는 도구로 사용하였었다. 아침에 주부가 시냇가에 가서 마통을 씻고, 연후에 문 입구에 마통을 놓아 말렸다. 마통 속의 오물은 일반적으로 냇물에 그대로 쏟아버리는데, 이것은 공공위생에 아주 방해요소였다. 현재는 위생과학적 지식이 점차 보편화되어, 비록 농촌일지라도 주택에서 신식 수세식 변기를 놓는 집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마통은 일상생활에서 퇴출되었다. 그러나 민간 혼례에서는 ‘자손통(子孫桶)’으로서 여전히 필수불가결한 혼수품 중의 하나다. 마통은 혼례에서 번식[生殖]을 은유하는 상징으로서, 민간 풍속에서는 결코 ‘더럽다고 여기지 않았다. 중국의 민속문화 중에는 ‘뒷간신(廁神)’이 존재하지만, 뒷간을 관할하지는 않고, 뒷간 위생은 더더욱 관할하지 않는다. 그의 주요 직능(職能)은 “여러 일들을 집치고”, “미래의 양잠(養蠶)을 집치는” 것이다.

2. 문명 형태로의 전환과 ‘외부’ 세계로부터의 지탄

중국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화장실 문제’는 중국사회가 농경문명에서 산업문명

으로, 향토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출현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농경문명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인 ‘화장실 문화’는 광대한 농촌을 ‘근거지’로 한다. 하지만 현대화 과정이 가져온 새로운 문명형태인 산업문명과 도시문명은 중국에서 문명형태의 전환을 가져왔다. 바로 이 전환 과정에서 화장실은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대 이래, 중국의 화학비료공업은 신속하게 흥기하였고, 각종 형태의 화학비료와 농약이 농촌에 대거 유입되면서, 농민들의 유기질 비료에 대한 의존을 부단히 약화시켰다.

중국 농촌에서 농민은 농가비료에 의지하였고, 화학비료의 유입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였다. 단기적인 효과를 두고 말한다면, 농가의 유기(有機)비료는 화학비료와 경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각지에 유행하는 말에 의하면, 화학비료가 토지를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유기비료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학비료와 유기비료를 병용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도시와 근교 농촌 사이에 있었던 인분뇨(人糞尿) 시장의 공급과 수요관계는 빠르게 변화하였다. 베이징은 대략 1970~80년대 중기에 이르러서는 근교 농촌에서 더 이상 도시 인분뇨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도시의 배설물은 전부가 반드시 도시 하수도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했다. 농촌은 도시 같은 하수도 처리 시스템을 갖출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도농(都農) 차이는 화장실과 배설물 처리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개혁개방¹³ 이래, 중국 도시화의 확장과 더불어 화장실 문제는 갈수록 두드러졌다. 도시화는 도시인구의 고도 밀집화를 가져왔고, 인구의 급증은 인분뇨 처리가 시정(市政)에 있어서 나날이 더욱 골치 아픈 큰 문제가 되게 하였다. 중국 도시 특유의 유동인구는 본래 이미 아주 심각했던 ‘공공 화장실’ 문제를 설상가상이 되게 하였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의 외래인구와 유동인구는 날로 급증하였고, 제한적인 ‘공공 화장실’로는 기본적인 수요마저 만족시킬 수 없었다. 동시에 도시 관리 수준도 한계가 있어, ‘공공 화장실’의 위생 상황은 도저히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이와 같은 ‘화장실 문제’는 사회 ‘발전’의 단계와 연관이 있어 사회경제발전 총 문제의 일환으로서 복잡한 속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사회 특유의 구조, 예를 들면 도농 이원구조 등 더욱 심층적인 근원과도 연관이 있다. 현대 중국의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시설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가정 내 화장실에 갖추어진 수세식 변기이며, 둘째는 외출할 때 필요한 공공 화장실이다. 두 가지 시설은 모두 완비된 하수도 배관 혹은 오물 처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현실 상황에서 실제로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개 도시사회의 하층민들이다. 예를 들면 후통(胡同, 주택가의 골목)의 주민, 아직 안정적 주거가 없는 신 시민(新市民), 유동인구와 외래 노동자 등이다. 대중매체와 일반 대중의 도시 공공 화장실 위생 상황에 대한 지적과, 이용자의 ‘공중도덕’이 결여된 배설 행위에 대한 지적은 중첩적인 관계가 있다. 그런데 도시 공공 화장실의 관리 부족에 대한 지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흔한 해석은 사회의 과도 전환기에 사람들의 관념과 배설 행위는 도시사회 문명생활 방식의 요구에 뒤처진다는 것이다. 분명, ‘개인 화장실’(가정 내 화장실)과 비교할 때, ‘공공 화장실’ 문제는 중국에서 더욱 복잡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¹⁴

현대 중국의 ‘화장실 문제’는 다층면적인 등급차(等級差)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 도시가 외지인이나 농촌사람에 대해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량의 도시 기초시설, 심지어는 공공 서비스 부문과 정부기관, 기업의 화장실을 포괄하는 대부분은 대중에게 개방하는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그것은 동시에 도농 차이의 한 측면으로서, 무시와 우월감을 갖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더욱 큰 목소리로 중국의 ‘화장실 문제’를 비판하는 곳은 중국에 온 세계 각국의 인사(人士)들과 관련 대중매체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해외 관광객이 별떼처럼 몰려들었고, 현대적 도시와 산업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행객이 아직도 농업국가인 중국에 오면서, 선진국의 입장에서 제3세계에 속한 개발도상국을 관찰하며, ‘화장실 문제’를 마주하거나 혹은 중국 화장실에 대해 놀랄만한 ‘발견’을 하였을 경우, 상당

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 1980~90년대, 중국 화장실은 누차 외국 기자의 기사 거리가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1990년대 초까지 중국 도시의 화장실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국내외 뉴스 매체는 몇 백에 달할 정도이고, 보도 기사는 만 단위로 셀 정도로 많다.¹⁵ 비록 이러한 비판이 중국 독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진땀이 나게 할 정도지만, 정부의 「참고소식」¹⁶도 부단히 수많은 번역과 소개를 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이 화장실을 개량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이끌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노력은 전국의 모든 관광지과 관광노선에 대한 것이었으며, 점차적으로 비교적 체면이 서는 화장실을 만들고, 아울러 화장실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겼다. 한 시기 내에 전체 관광 시스템의 업무는 관광객을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시스템 내에서 여행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었기에, 관광객들로 하여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화장실과 접촉하는 것을 줄였다.

3.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화장실 개량 운동

화장실 문제는 중국의 정치 엘리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이미지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수많은 노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였다. 1990년 전후, 베이징에서 제11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계기를 빌어, 베이징 시는 도시 면모의 단정과 청결 행동을 조직하여, 공공 화장실 증축과 개축 및 가꾸기 사업을 벌였다. 1984~1989년, 베이징에서 신축하거나 개축한 공공 화장실은 1,300여 곳이고, 하수도 와 통하는 일류식(溢流式) 정화조 1,000개를 개축하였으며, 공공 화장실의 면적을 16,000평방미터 확장하고, 갱위(坑位, 용변을 볼 수 있는 변기)를 3,300개 증가시켰고, 6,000여 공공 화장실에 수세 식을 초보적으로 실현하였다. 상황이 비록 조금 개선되긴 하였으나 아직도 여전히 구차스러운 실정이다. 1993년 말에 이르러, 베이징 시는 약 57,000여 개의 공공 화장실을 갖추었지만, 그중에서 겨우 6,800여 개만 환경위생 부문에서 관리하고 있고, 70%의 공공 화장실은 후통(胡同, 골목)에 분포하며, 주요 거리와 변화가에는 겨우 200여 개밖에 없다. 당시의 국가 표준에 근거하면, 베이징의 90%의 공공 화장실은 아주 보잘것없는 4류에 속하였다. 이들 칸막이가 없는 화장실은 사실 죽 열을 지어 쪼그리고 앉는 것이었고, 위생 상황이 아주 엉망이었다.¹⁷

상술한 배경 하에 1990년대 초, 중국 매체에서 처음으로 ‘공공 화장실 혁명’에 대한 토론이 등장하였다. 1994년 4월, 러우샤오치(婁曉琪)가 이끄는 수도(首都) 문명공정 프로젝트조(文明工程課題組)¹⁸는 『베이징일보(北京日報)』에 연속해서 “베이징의 공공 화장실 혁명 시급”,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은 공공 화장실 혁명”, “공공 화장실 혁명의 출구는 어디에?” 등의 평론을 발표하여, 전 국민이 동원되는 공공 화장실 혁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4년 7월, 프로젝트조는 「수도 도시 공공 화장실 설계 대회 방안」을 만들었고, 11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전국 20여개 성(또는 자치구와 시)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출한 340여 개의 작품을 접수하였다. 그 후, 천안문(天安門) 광장에서 입선 작품전을 열었고, 선명한 기치(旗幟)를 내걸고 ‘공공 화장실’ 혁명을 제창하여, 당시 베이징 시민의 사고관념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제4회 세계여성의 날 행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을 개최하면서, 국가 이미지와 수도로서의 명성을 지키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논리 하에,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누차 시민 ‘문명’ 소양을 제고(提高)하는 행사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도시 공공 화장실 문제는 사실상 가장 부담스런 검증대상이 되었다.¹⁹

2004년 11월 17일, 제4회 세계 화장실 정상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는 처음이었다. 당시 베이징 시는 2008년까지 ‘도시 구역’에 2급²⁰ 이상 수준의 공공 화장실 3,700여 곳을 신축 또는 개축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체의 약 90%에 해당된다. 그리고 3급 및 그 이

하의 위생 시설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공공 화장실은 점차 취소하였다. ‘근교’의 2급 이상 공공화장실의 비율은 60%에 이르고, ‘근교 읍(소도시)’의 2급 이상 화장실의 비율은 30%에 이른다. 상하이의 공공 화장실 부족은 베이징에 비해서 조금 나은 편이다. 하지만 배치가 불합리하거나, 남녀 화장실 자릿수가 불균형적이거나, 시민들의 ‘교양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 등과 같은 제반 문제점들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그래서 상하이는 현대화된 공공 화장실 서비스 시스템 건설을 제시하고, 투자 증대와 관리 강화에 힘쓰며, 화장실 시장화 운영 기제를 탐색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유료 화장실을 계속 건립하였는데, 그 시설은 비교적 완비되어 있고, 청결과 관리를 담당하는 전임자도 두고 있다. 중국의 많은 도시는 공공 화장실 ‘시장화’를 채택하고 있다. 유료로 경영관리를 유지하지만, “요금을 과하게 징수하고, 관리는 소홀한” 현상도 정도만 다를 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공 화장실 모델 논쟁의 초점 중의 하나는 ‘시장화’인가 아니면 ‘공익화’(무료)인가다.

‘국가 이미지’와 유사한 것으로 ‘지방 이미지’도 있다. 적지 않은 지방의 도시에서 구체적인 화장실 개혁 실천이 있었고, 그중에 비교적 유명한 것은 2000년 구이린(桂林) 시장 리진자오(李金早)가 구이린에서 추진한 관광 화장실 혁명, 2003년 난징(南京) 시장 뤼즈권권(羅志軍)이 난징에서 주창한 공공 화장실 혁명, 2008년 산시(山西省) 린펀시(臨汾市) 건설국장 쑤칭평(宿靑平)이 추진한 린펀 공공 화장실 혁명 등이 있다. 2001년, 국가여유국(國家旅遊局)은 구이린에서 “신세기 관광 화장실 건설과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것은 중국에서 화장실을 주제로 한 전국 규모의 회의로는 첫 번째였다.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구이린 합의」는 중국에서 ‘화장실 혁명’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첫 번째 공동선언이었다. 「구이린 합의」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 화장실 관리 수준의 현대화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관광 현대화는 없다. 구이린 관광 화장실 혁명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가 추진하고, 업체가 화장실을 건설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시장경제방식을 채택하여 구이린 도시와 농촌에 849개의 관광 화장실을 건설하고, 도시와 관광지에 평방킬로미터 당 평균 5.7개의 관광 화장실을 보유함으로써 국가 기준보다 훨씬 더 높고, 구이린 관광 화장실 건설과 관리의 낙후상황을 크게 변화시켜, 관광 환경과 투자 환경, 시민생활 환경을 개선하였다. 2000~2015년 구이린은 장장 15년에 걸친 노력을 기울여 이미 전 지역 관광지에 관광 화장실 100% 커버율을 실현하였고, 이로써 국내외 관광객의 구이린에 대한 이미지를 대폭 개선하였다.

2014년 리진자오는 국가여유국(國家旅遊局) 국장으로 영전하였고, 2015년 초 국가여유국은 전국적으로 관광 화장실 혁명 추진을 개시하였다. 리진자오는 “관광 화장실은 비록 작지만, 오히려 관광객의 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첫 번째 인상으로서, 한 나라와 지역의 종합적 실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광 산업과 관광 사업의 진일보한 발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²¹ 2015년 4월 1일, 시진핑(習近平)은 화장실 혁명과 문명 관광에 대해 “작은 곳에 눈을 돌리고, 필요한 곳에서 착수하여 관광 품질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다. 국가 지도자의 지시와 정부의 주도로 인해 ‘화장실 혁명’은 전례 없이 국가의 문명공정이 되었다. 2015~2017년 국가여유국이 추진한 화장실 혁명은 신속히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었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각급 지방정부는 화장실 혁명 영도소조(領導小組)를 만들었다. 국가여유국은 「전국 관광 화장실 혁명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관광 화장실 품질 등급의 구분과 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수량을 충족하고, 위생적이고 문명적이며(깨끗하고 냄새 없는), 실용적이고 무료이며, 관리가 효과적인”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즉 3년 시간을 이용하여, 정책 지도와 자금 조달, 표준규범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2017년 전국에 화장실 3만 3천 개를 신설하고, 2만 4천 개를 확장하여, 최종적으로 관광지, 관광 노선 인접지역, 교통 허브, 관광지 식당, 관광지 오락시설, 휴양 보행지역의 화장실 전부를 3성급 기준에 미칠 수 있도록 실현하는 것이다.²² 2016년 2월 15일 국가여유국은 「2015년 화장실 혁명 선진 도시를 표창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반포하여, 칭다오 등 101개 선진시(구)에서 추진한 화장실 혁명의 혁혁한 성과에 대

해 표창을 하였다. 화장실 혁명은 현재 관광지외와 관광 노선 연도(沿道)에서, 더 나아가 중점 관광도시로 확장되고 있으며, 아울러 ‘전 지역 관광’ 개념의 매개를 거쳐 진일보하게 전국 기층(基層)으로 퍼져, 위에서 아래로의 기세등등한 사회운동이 되었다.

4. 농촌의 ‘화장실 개량’ 실천

근대 이래 중국의 화장실 개량은 사실 중화민국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평민교육협회’와 대학 지식인들의 노력 외에, 1928~1937년 사이의 상하이위생운동대회²³와 1930년대 장제스(蔣介石)가 주도한 ‘신생활운동’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전자는 지역성을 띤 활동이었고, 목적은 주로 도로 청결(합부로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후자는 전국성을 띤 활동으로 목적은 완전히 새로운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양자는 모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위로부터 아래로의 강제성을 띠었다. 신생활운동은 전통적인 도덕(예의염치)과 일반인의 ‘의식주행’을 서로 결합하는 걸 시도하였다. 하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보통 국민의 생활에 대해 미친 실제적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운동이 제시한 “신생활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것”에서 ‘청결’에 대해 상당히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화장실 위생을 유지하고, 아무데서나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장시(江西省)에서의 구체적인 실시과정에서는 “공공화장실 개조 방법”을 확정하였고, 일부 항목의 실행 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도 역시 공공화장실과 가내 화장실의 청결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아울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개량을 독촉하고 있다.²⁴

신중국이 성립한 후, 정부가 추진한 수많은 국민 위생과학 소양 제고와 국민 건강보장 사업은 정도는 달랐지만 종종 화장실 개량과 관련이 있었다. 1950~70년대의 ‘애국위생운동’, ‘사해(四害, 파리·모기·참새·쥐) 박멸운동’, 주혈흡충병(Schistosomiasis) 퇴치 사업 등이 이와 같다. 애국위생운동은 “2관(管) 5개(改)”를 제창하였다. 즉 “물을 관리하고, 분변을 관리하고, 우물을 개량하고, 화장실을 개량하고, 가축우리를 개량하고, 아궁이를 개량하고, 환경을 개조”하는 것이다. 1990년대 농촌 화장실 개량은 「중국 어린이 발전기획 요강」과 중앙정부의 「위생 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에 포함되었다. 동시에 위생 농촌(鄉鎮縣城)의 건설과 함께 하며, 농촌 또한 점점 ‘화장실 혁명’의 바람이 불었다. 2002년 중국정부는 「농촌위생 사업을 진일보 강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반포하여, 농촌이 계속적으로 수질 개량과 화장실 개량을 중점으로 삼아, 환경위생을 정비하고,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문명 농촌의 건설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9년 정부는 농촌 화장실 개량을 ‘의료 개혁’의 중대한 공공위생 서비스 항목에 포함시켜 심화시켰다. 2010년 농촌 화장실 개량을 중점으로 하는 전국 도농 환경위생 청결행동을 시작하여, 농촌의 위생 화장실 보급률을 신속하게 제고시켰다. 2004~2013년 중앙정부는 누적 금액 82.7억 위안(한화 약 1조 3,500억여 원)을 농촌 화장실 개량에 투입하였고, 실제로 2103만 가구의 화장실을 개량하여, 전국 농촌의 위생 화장실 보급률은 1993년의 7.5%에서 2013년 말 74.1%로 높아졌다. 「전국 도농 환경위생 청결행동방안(2015~2020년)」의 목표에 근거하면, 농촌 위생 화장실의 보급률은 2015년에 75%에 달하고, 2020년에는 85%에 달할 예정이다.

2014년 10월 17일 전국 애국위생운동위원회는 허베이(河北省) 스자좡(石家莊市) 정딩(正定縣)에서 전국 농촌 화장실 개량사업 현장 추진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농촌 화장실 개량이 전면적인 중산층 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였다. 2014년 11월 5일 전국 애국위생운동위원회는 “농촌 화장실 개량 사업을 진

일보 추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내렸다. 2014년 12월 시진핑은 장쑤(江蘇省) 조사연구 시에 화장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신 농촌건설에 있어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지역실정에 맞게 화장실 하수도관망 건설과 농촌 오수처리를 함으로써 농민생활의 질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2015년 7월 16일 시진핑은 지린(吉林省) 연변 조선족자치주 화룡시(和龍市) 동성진(東城鎮) 광동마을(光東村) 조사 연구 시에 농업현대화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신 농촌건설 또한 부단히 추진하여야 하며, ‘화장실 혁명’을 통해 농민들로 하여금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진일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최근 몇 년간 각지 농촌의 화장실 개량(메탄가스 화장실 보급, 전통 화장실을 수세식 변기가 있는 화장실로 개량)이 진전되었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자주 보인다.

장쑤의 농촌화장실 개량은 전국적으로 전형성을 지닌다고 평가받고 있다. 2005년 이전에는 주로 시범장소였지만, ‘화장실 개량 보급촌’ 건설을 모범으로 삼아, 다시 점(點)에서 면(面)으로 확산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2006~2013년 장쑤는 화장실 개량 자금의 투입을 해마다 늘려서, 누적 금액이 56억 위안(한화 9100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성 전체에서 농촌 위생화장실로 개량한 집이 822만 호에 달하며, 위생화장실의 보급률을 56%에서 94%로 높였으며, 그중에서 무해화 위생화장실²⁵⁾의 보급률은 이미 82%에 달하고 있다. 화장실 개량의 성공은 2006년 이래, 장쑤 농촌의 기생충병 감염률과 장 기관(대장, 소장) 전염병의 발병률을 각각 51.8%와 36.7%로 낮추었다. 화장실 개량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통상 위생과 계획생육 부문, 애국위생운동위원회에서 주도하고, 농림 부문에서 메탄가스탱크를 설치하고, 주택건설 부문에서 농촌 신축(또는 개축) 주택의 무해화 화장실 설치를 맡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마을에서 몇몇 농가가 화장실 개량 시범을 보이고, 사람들을 조직하여 참관함으로써 농가로 하여금 화장실 개량의 동기를 부여한다. 동시에 기술요강을 인쇄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화장실 개량 기술자를 교육하는 것 등이다. 삼격식(三格式),²⁶⁾ 쌍항아리 깔때기식, 메탄가스식 등 분뇨처리 모델 외에도,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오수(污水)의 상대적 집중 처리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쑤 남쪽 지역의 인구가 비교적 밀집된 마을에서는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소형 생활오수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일부 중요 읍내에서는 농촌(鄉鎮) 위생원(衛生院)과 도로 연선(沿線)의 주유소 등에 무해화 공공 화장실 등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국가의 농촌 가정 위생 화장실에 대한 정의는 벽과 지붕과 창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면적은 2평방미터 이상이며, 수세식 화장실이나 일반 화장실이 다 가능한데, 단 지하에 메탄가스 탱크를 반드시 설치하여 분변에 대한 무해화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 각 성과 시, 자치구는 농촌의 기준 미달 화장실을 철저히 개조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각지 또한 자기 특색이 있는 메탄가스 화장실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산둥(山東)의 ‘삼통(三通) 메탄가스식’, 허난(河南)의 ‘쌍항아리 깔때기식’, 랴오닝(遼寧)의 ‘사위일체 육책식(四位一體 六柵式)’, 닝샤(寧夏)의 ‘쌍고식(雙高式)’, 장쑤(江蘇)의 ‘삼격식(三格式)’ 화장실 등이 있다. 이러한 양식은 대동소이하고, 모두가 배설물에 대한 현장 무해화 처리를 기본 기능으로 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강력한 주도과 자금 투입으로 인해 위생 화장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데 동의하는 농가는 모두 일정한 현금 보조와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의 화장실 개량의 진전은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다.

산시(陝西省)는 서북 지역의 물이 부족한 건조지역에 속하고, 농촌 화장실도 대부분 한축(旱廁)이라서, 농촌 화장실 개량이 직면한 현실이 녹록치 않은 곳이다.²⁷⁾ 성 전체의 농가 총 호수는 약 711만 호이고, 2015년 연말을 기준으로 366만 농가의 화장실 개량을 완료하여, 위생 화장실의 보급률은 52%에 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腸) 전염병 발병률은 2010년의 10만 명 당 30.25명에서 2014년에는 10만 명 당 19.50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산시 농촌의 화장실 개량 진도는 아직도 관중(關中)과 산시 북부 지역에서 쌍항아리 깔때기식 위생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적어

도 2,000위안(元)을 필요로 하고, 산시 남부에서 삼瓮식(三瓮式) 위생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적어도 1,800위안이 들며, 혹은 삼격식 위생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는 적어도 2,800위안이 든다. 비록 정부에서 일정한 보조를 해준다고 하지만, 농가에서 여전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산시 농촌 화장실 개량 사업 ‘십삼오(十三五, 2016~2020)’ 계획>에서 화장실 개량 목표를 밝혔는데, 여전히 ‘십삼오(十三五)’가 끝나는 2020년에 가서야, 농촌 위생 화장실의 보급률을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성내 각계각층 정부는 아주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상뤄(商洛市) 단평(丹鳳縣)은 산시에서 발전이 더딘 산지 지역으로, 총인구가 약 32만 명이다. 2006~2010년 이 지역의 디화(棣花), 테위푸(鐵峪舖), 주린관(竹林關) 등 지역에서 메탄가스식 화장실을 위주로 한 농촌 화장실 개량 시범지역을 추진하였다. 2010년 단평은 “중앙 중대 공공위생 농촌 화장실 개량 프로젝트”현으로 지정되었다. 다방면의 노력을 거쳐, 현재 현 전체의 화장실 개량 호수는 5.1만호이고, 청결 위생 화장실의 보급률은 75%에 달하며, 농촌 학교의 위생 화장실 보급률은 87%에 달한다. 2017년 7월 단평은 국가 애국위생운동위원회에서 “국가 위생 현성(縣城)”으로 명명되었고, 현재 “국가 위생 현성”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며, 현 전체의 도시와 농촌의 위생 현황에 있어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 현성(縣城)의 공공 화장실 분포밀도는 평방킬로미터 당 3곳이며, 쓰레기 매립장, 오수 처리장, 분노 무해화 처리장 등이 양호하게 운행되고 있어, 오수와 쓰레기 및 분노 처리 모두 국가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농촌에서 “수도 개량, 화장실 개량, 부엌 개량, 축사 개량” 등의 공정을 통해 전체 농민이 안전한 음용수를 확보하였고, 농촌의 수도 보급률은 92%에 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90%의 농가가 전기와 메탄가스 및 태양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었다.²⁸ 단평에서 농촌 화장실 개량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화장실 개량 자금을 이용(專用)하여 때에 맞춰 농가에 보조해주는 것 외에도, 화장실 개량을 ‘신 농촌 건설’, ‘빈곤 구제 개발’, ‘작은 집진(集鎮)²⁹의 건설’, ‘농민 이주’, ‘아름다운 농촌 건설’, 농촌 관광개발 등의 각종 항목과 결합하여, 다방면으로 농민의 화장실 개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변기, 타일, 파이프, 시멘트 등 건축 재료를 무료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 개량 농가에 공사로 인한 농사일 손실 비용을 보조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농민의 의향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래의 한층을 개조하거나 신축할 경우 일호일책(一戶一策, 한 농가에 한 책략), 일층일법(一層一法, 하나의 화장실에 한 가지 방법)을 실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생 화장실에 벽과 지붕 및 밀폐식 정화조를 갖추게 하고, 파리, 모기, 냄새, 해(害)가 없는 “삼유사무(三有四無)”의 기술 표준을 고수하였다. 화장실 개량으로 인해 대다수 농민이 눈에 보이는 혜택이 있자, 현재는 이미 “나로 하여금 (화장실을) 개량하게 하다”에서 점점 “나는 (화장실을) 개량하고자 한다”로 발전하였다.

비교해서 볼 때, 관광지와 대·중(大中) 도시의 공공 화장실 개혁은 주로 관리의 강화와 투자의 증대이며, 농촌의 화장실 개량은 오히려 시종일관 농민의 습관화된 관념과 행위에 따른 저항에 맞닥뜨리고 있고, 그중 가장 흔히 보이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화장실 개량이 비교적 순조로운 곳은 대개가 경제와 생활 조건이 비교적 좋은 농촌으로, 농민들의 화장실 개량에 대한 높은 찬성과 적극적 참가와 호응으로 화장실 개량공정이 마을환경에 좋은 쪽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사람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있다. 일부 농촌에서는 배우자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생기기도 하였다. 만약 남자 쪽 집에 위생 화장실이 없으면, 여자 쪽에서는 혼담에 동의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적지 않은 지역에서, 특히 비교적 빈곤한 지역과 멀리 떨어진 산지에서는 화장실 개혁이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거주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것 외에도, 화장실 개혁이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효과와 반응을 얻기가 쉽지 않고, “사람이 없고, 돈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이 농촌 화장실 개혁의 3대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³⁰ 농촌 과소화(undercrowding)와, 청장년 노동력이 타지 노동으로 인해 집에 없는데, 화장실 개혁은 땅을 파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한다. 하지

만 남아 있는 노인들은 대개 미루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농민이 돈과 힘을 들여 화장실을 개량하는 것이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관념의 문제이다.³¹ 유사한 것으로 화장실은 본래 더러워야 하고, 대소변을 싸는 곳은 그렇게 공들일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혹은 수세식 화장실은 물 값을 내야 하기에 골치가 아프고, 1년에 2회 정리 작업을 하는 메탄가스 화장실에 적응이 별로 안 되는 점도 있다.

5. 발전, 위생과 문명: 화장실 혁명을 뒷받침하는 ‘언설(言說)’

오늘날 중국사회의 화장실 혁명은 실체는 몇몇 피차 연관된, 하지만 성질은 서로 다른 ‘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도시화 과정 중 주민 가정의 실내 화장실 수세식 변기의 보급, 2. 관광지 명소의 화장실 서비스 향상의 ‘관광 화장실 혁명’, 3. 시정 공공시설로서 투자와 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공공 화장실 혁명’, 4. 농촌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과 무해화 위생 메탄가스 화장실 건설 위주의 ‘화장실 개량 운동’, 5. 아직 진정으로 시작하지 못한, 기관과 기업 및 공공 서비스 시설 화장실의 대중을 위한 개방 등등이다.

비록 서로 다른 ‘관’의 화장실 혁명이 각각의 특색이 있을지라도, 중국사회의 관련 담론은 오히려 대체적으로 꽤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함께 나누고 있다. 우선은 ‘발전’의 담론으로서, 이것은 사회경제발전의 연장선상에서 화장실 혁명을 이해하고 정립하려는 것이다. 농촌 화장실 개량의 목표는 2020년 집중식 급수 인구 비율과 위생 화장실 보급률을 85%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미 국내정치의 담론 체계로서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건설이라는 총 목표의 일부분이다. 동시에 유네스코의 ‘밀레니엄 발전목표’의 하나를 참조하고 인용한 것으로 2015년 이전 사람과 분변 위생지를 떼어놓는 것으로, 2015년 이전까지 사람과 분변시설의 글로벌 보급률을 75%까지 높이는 것으로서, 중국은 이 방면에 있어서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된다. 유네스코의 항목과 이념을 빌어 중국 농촌 화장실 개량의 실천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결단이다. 중국에 대해서 말한다면, 발전과 관련된 제반 이념은 직접적으로 서방국가를 본받는 것보다, 유네스코의 관련 기제를 투과하여 도입하는 것을 더 원한다. 사실상 중국 농촌의 화장실 개량은 국내 애국위생운동의 궤적에서 찾아볼 수 있고, 유네스코 어린이 기금회가 제창한 글로벌 화장실 혁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한 배경이 있다. 중국 정부는 서방 국가와 함께 ‘인권’ 등의 의제를 놓고 쟁론이 있을 때, 종종 ‘발전권’을 인권의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발전’ 문제를 언급할 때, 유네스코와 협력하기를 가장 원한다.³²

현금(現今)의 세계를 돌아보면, 화장실 상황은 여전히 ‘선진’과 ‘저개발’을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기준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중국 내륙 지역의 화장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 혹은 지역이라는 처지를 우렁차고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화장실 혁명은 동시에 국내의 중대한 ‘발전’ 문제의 하나다. 오랫동안 중국은 시종 심각한 도농 발전 차이에 처해 있었으며, 화장실 환경은 도농 차이가 가장 뚜렷하고, 직관적이고,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농촌 화장실 상황을 하루 속히 개선하고, 농촌의 위생 상황을 철저히 바꾸고, 도시와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농민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농촌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말할 필요도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소강이나 아니냐는, 화장실을 첫 번째로 친다.” 수십 년 간의 농촌 발전이 비록 거대한 성취를 이루었을지라도, 화장실 개량은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최저선을 진일보하게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였다. 농촌의 화장실 혁명은 기실 농촌의 도시화 과정 중 피할 수 없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화장실 개량의 성공이 있어야, 농민은 도시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존엄과 체면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미 세계

제2 경제대국이 된 중국에 대해서 말하면, 관광명소와 관광지구의 관광 화장실 및 도시 가두의 공공 화장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촌 지역에 위생 화장실을 보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하다 하겠다.

중국 화장실 혁명의 두 번째 담론은 위생과학의 ‘언설’이다. 특히 농촌에서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 관리 소홀이 가져온 위생 문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가장 큰 이유라고 인식되고 있다. 오랜 기간 대략 80%의 농촌 전염병이 화장실 분변의 오염과 마시는 물의 비 위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화장실 상황이 심히 우려되고,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 관리가 나빠, 상술한 상황은 줄곧 철저한 변화가 어려웠다. 중국의 일반적인 농촌에서 병원학(病原學), 세균학, 방역과학, 유행병학 등 위생과학적 기본 지식의 침투는 여전히 아주 제한적이다. “깨끗하지 않아도, 먹어서 병나지 않는다”, 혹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깨끗하다” 등과 같은 일상생활이념을 신봉하는 농민은 아직도 여전히 많다. 21세기 초에 이르러, 농촌 화장실 개량 운동이 중대한 진전을 보일 때에도 여전히 농촌에서 위생지식 수업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밝힐 것은, 화장실 개량 운동의 위생 ‘언설’은 결코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줄곧 중국의 기층 위생방역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업무 용어였다.

도농 화장실 혁명이 공유하는 세 번째 담론은 ‘문명’이다. 화장실 혁명은 ‘국가 문명공정’이라고도 불린다. 그 목적은 중국 ‘화장실 문명(교양)’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 매체와 정부의 기본 언설이기도 하다. 이 방면으로 비교적 통속적인 표현은, 예를 들면 “물질문명은 주방을 보고, 정신문명은 화장실을 본다.”가 있다. 많은 곳에서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앞에 “앞으로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은 문명의 큰 걸음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뜻이다. 정부 측의 기본적인 표현으로 신화사(新華社)의 보도를 보면, 세계 화장실 조직 발기인의 “화장실은 인류 문명의 척도다.”라는 관점을 인용하였다. 화장실은 비록 작을지라도 전 세계 통용의 후각 언어와 시각 언어이며, 문명 소통에서 가장 짧은 직선으로서, 문명진화의 여정을 보여준다.³³ ‘문명’에 관한 언설은 국가와 민족의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고, 개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전자는 화장실을 국가 문명수준의 상징으로 보고, 어떤 매체에서는 심지어 ‘화장실 문명’이 결핍된 국가는 세계 문명의 대열에 진입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후자는 ‘화장실 문명’을 시민의 소양 문제로 이야기한다. 화장실의 좋고 나쁨은 국가의 이미지와도 관련되며, 국민의 문명 교양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산시 상위의 ‘문명 시민’에 대한 요구에는 ‘십불준(十不準, 열 가지 불허)’을 이야기하고 있다. 1. 아무 데서나 침 빨는 것 불허 2. 아무 데서나 방뇨하는 것 불허 3. 함부로 버리거나 쏟는 것 불허 4. 함부로 붙이거나 그리는 것 불허 5. 함부로 쌓아놓거나 거는 것 불허 6. 함부로 (건물을) 달아내거나 짓는 것 불허 7. 함부로 늘어놓는 것 불허 8. 함부로 길을 건너거나 적색등일 때 돌진하는 것 불허 9. 지정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 불허 10. 공공녹지와 녹화 시설을 훼손하는 것 불허. 이러한 것과 유사하게 각 도시마다 추진하는 관련 규범이 현재 날이 갈수록, 독일학자 Norbert Elias가 말한 소위 ‘외부 강제’를 형성하고, 일단 내재화되어 개인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아 감독’과 ‘자아 조절’까지 이르게 되면, 문명화의 과정은 곧 갈수록 엄격하고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될 것이다.³⁴

그러나 중국 공공 매체와 정부 측의 담론 중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문명’ 언설이 더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문명 고국(古國)으로 수천 년 문명사가 줄곧 계속되어 중단된 적이 없다. 중화 문명은 인류에 거대한 공헌을 미쳤다. 그러나 매번 올림픽, 세계 박람회 및 중국이 국제사회에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할 때, 상술한 문명에 관한 두 가지 언설은 어떤 경우에는 상호 저촉되기도 한다. 이 문명은 저 문명이 아니며, 하나는 고대문명이고, 하나는 현대문명이다. 고대 중국문명의 휘황찬란함이 결코 현대 중국사회 화장실 문명 결핍의 난감함을 가려줄 수는 없다. 중국 고대문명체계는 화장실과 배설물문제에 있어 우아하게 우회하거나 기피하는 서술 외에 다소 가치 있고 자랑할 만한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다. 중국은 자고이래 ‘예의지국’이라 자랑하지만, 전통문화는 줄곧 화장실에 대해 말하기 싫어하고 하찮게 여김으로써,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민족 자부심이 강

한 중국인이지만, 서양의 화장실 문명 기준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³⁵ 하지만 지금 화장실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국가 이미지와 관계되는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명에 관한 언설 또한 국민이 자신을 격려하여 현상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 전통의 그리 자랑할 만하지 않은 화장실문화로부터, 화장실 혁명의 세례를 거쳐, 현대에 더 이상은 국민으로 하여금 난감하지 않는 화장실 문명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현대 중국의 사회현실이 전면적으로 현대화하고, 혹은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전면적으로 중산층 사회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이 외의 다른 지름길은 없다.

필자가 보기에, 상술한 몇 가지 기본 ‘언설’ 외에도, 화장실 혁명은 현대국가 시민사회의 ‘공공성’ 문제와 더 특별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정(市政) 공공체계의 일부로서, 도시 화장실과 하수처리 시스템은 종종 사회 공공체계 중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도시의 표준화된 공공 화장실은 반드시 시민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명백하게도, 이러한 ‘화장실 문명’은 개인이 단독으로 이룰 수 없고, 화장실 문제는 시작부터 개인 측면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정부와 사회 공공체계의 의무다. 정부가 시민의 ‘용변행위’를 문명적이지 않다고 원망하는 것은 공급 측과 관리 측의 기본책임이라 반성하는 것만 못하다. 중국에서 화장실 문제는 실제로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 구조성 문제의 일부분이다. 도농 차이 외에도 누누이 지적되는 ‘내부 화장실’은 바로 이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94년에 상하이에서는 도로에 연결한 기관의 화장실을 대외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난징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민정국(民政局) 청사에 일을 보러 온 시민들의 화장실 사용을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³⁶ 유감스런 것은 이러한 상황과 유사한 것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각지의 화장실 혁명은 종종 ‘내부 화장실’을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공공성을 결여한 ‘내부 화장실’의 존재는 중국 사회의 분층(分層) 구조가 왕왕 ‘내/외’ 구분의 논리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注

- 1 중국말 ‘축소(廁所)’의 우리말은 ‘뒷간, ‘화장실, ‘변소’ 등이 있다. 번역문에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로 ‘화장실’로 표기하고, 일부는 상황에 따라 다른 말도 사용하고자 한다.(역자 주)
- 2 이 글의 일부 자료는 2017년 8~9월, 산시(陝西省)상뤄(商洛市)에서 추진했던 관련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和平中島 재단의 아시아 지역 중점 학술연구 프로젝트 “한중일, 동아시아의 생활 변화/생활개선운동의 비교 연구—‘일상학’으로서의 민속학”을 정립하기 위하여”의 지원을 받았다. 이에 삼가 감사를 드린다.
- 3 일상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7가지 물건으로, ‘開門七件事’라고도 한다.(역자 주)
- 4 ‘清末民初’는 서구열강의 정치경제적 침략과 아울러 서구의 사상, 문화, 생활 등의 유입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사회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다.(역자 주)
- 5 周星, “生活革命与中国民俗学的方向”, 《民俗研究》2017年第1期.
- 6 용변 후 물을 사용하여 변을 배출하는 시설이 없는 화장실을 말한다.(역자 주)
- 7 [加]约翰·奥尼尔:《身体五态:重塑关系形貌》(李康译), 第10页, 北京大学出版社, 2010年1月. [英]戴维·英格利斯(David Inglis):《文化与日常生活》(张秋月、周雷亚译), 第31-37页, 中央编译出版社, 2010年6月.
- 8 ‘反訓’은 훈고학의 용어로서, 반대말로 낱말의 뜻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역자 주)
- 9) [美]丹尼尔·哈里森·葛学溥:《华南的乡村生活—广东凤凰村的家族主义社会学研究》(周大鸣译), 第53~54页, 知识产权出版社, 2006年11月.
- 10 杨懋春:《一个中国村庄:山东台头(A Chinese Village—Taitou, Shangtung Province)》(张雄、沈炜、秦美珠译), 第42~43页, 江苏人民出版社, 2001年8月.
- 11 许烺光:《驱逐捣蛋者——魔法·科学与文化》(王芃、徐隆德、余伯权译), 第35~43页, 台湾南天书局有限公司, 1997年1月.
- 12 [日]阿南透:“民俗学视野中的消费”(赵晖译), 王晓葵、何彬编:《现代日本民俗学的理论与方法》, 第405~421页, 学苑出版社, 2010年10月.

- 13 1978년 12월, 중국은 제11회 삼중전회(三中全會)에서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의 정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역자 주)
- 14 仲富兰:《现代民俗流变》, 第201~208页, 上海三联书店, 1990年9月。
- 15 娄晓琪:“我所亲历的‘厕所革命’”,《人民日报(海外版)》, 2015年8月1日, 第8版。
- 16 신화통신사(新華通社)에서 주관하는 일보(日報)로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주요 소식을 싣고 있다. 하루 평균 340만부를 발행하고 있다.(역자 주)
- 17 “中国‘厕所革命’的30年故事”,《人民日报(海外版)》-人民网, 2015年8月1日。
- 18 당시, 필자 또한 한 때는 이 프로젝트조의 구성원이었다.
- 19 沈嘉:“世界厕所峰会在京开幕 京沪承诺厕所发展规划”,中国新闻网2004年11月17日。单金良、陶颖:“北京将每年新建改造400座公厕 男女空间4比6”,《法制晚报》2004年11月17日。
- 20 『도시 공공화장실 기획 및 설계 기준(城市公共厕所规划和设计标准)』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시 공공화장실의 건축 기준은 설치 장소의 중요성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1종은 대외적으로 개방된 관광지 및 변화가에 설치되며, 독립식 대소변기와 난방시설, 화장지 절이, 절수기(mechanism saver of water)를 갖추어야 하며, 1.8미터 높이의 독립실 등을 설치해야 하고, 지면과 벽면 장식의 기준도 높다. 2종은 주요 거리(街道)에 건립하며, 독립식 변기가 있는 단칸을 설치하거나, 통조식(대소변을 보는 변기가 별개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는 형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타일 형식의 소변기를 채택하기도 한다. 3종은 일반 거리에 설치하고, 통조식 대소변기를 채택하고, 내장 설비의 기준도 상응하여 좀 떨어진다.(역자 주)
- 21 李金早:“旅游要发展, 厕所要革命”,中国经济网—《经济日报》2015年3月19日。
- 22 钱春弦、沈阳:“我国今年将开展旅游厕所革命”,新华网2015年1月15日。
- 23 鹏善民:《公共卫生与上海都市文明(1898~1949)》, 第135~140页, 上海人民出版社, 2007年12月。
- 24 深町英夫:『身体を躰ける政治—中国国民党的新生活運動』、第5頁、第111頁、第138頁、岩波書店、2013年5月。段瑞聡:『蒋介石と新生活運動』、第161頁、慶応義塾大学出版会、2006年11月。
- 25 무해화(無害化) 위생화장실은 벽과 지붕이 있고, 분변 구덩이도 (오수가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새지 않고 밀폐되어 덮개가 있는 화장실이다. 화장실이 청결하고, 구덩이도 없으며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분변도 반드시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역자 주)
- 26 삼격식(三格式)은 하나의 분뇨 탱크에 2개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3칸으로 나눈 형식을 말한다. 각 칸은 서로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분변이 첫 번째 칸에서 순차적으로 세 번째 칸으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다.(역자 주)
- 27 梁锦:“农村‘如厕’难? 陕西将掀起一场‘旱厕’革命”, 人民网, 2015年11月20日。
- 28 刘春荣:“丹凤实施五大工程改善生态环境”,《商洛日报》2017年5月5日。
- 29 ‘集鎮(market town)’은 농촌에서 시장이 서는 곳이 발전하여 형성된 경제와 문화 및 생활의 중심지를 말한다. 농촌과 도시의 중간적인 형태를 띤다.(www.baidu.com 참조)(역자 주)
- 30 史林静:“中国农村的‘厕所革命’”, 新华每日电讯 2015年7月27日。
- 31 葛欣鹏:“厕所革命, 一场习惯的较量”, 半岛网·《半岛都市报》2015年8月19日。
- 32 刘莉莉:“世界厕所峰会代表称使用不洁厕所侵犯人权”,《新闻晨报》2007年11月5日。
- 33 钱春弦:“握紧‘文明尺度’、改造‘方便角落’—就‘旅游厕所革命’专访国家旅游局局长李金早”, 新华网2015年3月18日。
- 34 [德]诺贝特·埃利亚斯:《文明的进程——文明的社会起源和心理起源的研究》(袁志英译), 第二卷 社会变迁 文明论纲, 第251~252页,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1998年4月。
- 35 [英]罗斯·乔治:《厕所决定健康——粪便、公共卫生与人类世界》(吴文忠、李丹莉译), 第119页, 中信出版社, 2009年7月。
- 36 “南京一民政大楼厕所装密码锁 回应称上厕所的太多”, 中国广播网2014年11月6日。

「생활」이라는 말로 우리는 무엇을 파악하고자 하며 파악할 수 있는가?

첫날 각 발표에 대한 토론

다무라 가즈히코

번역: 김 현정

1. 「생활」의 전경: 1900년 전후의 화영/영화 사전을 사례로

일본민속학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평범한 일상/변해가는 일상’ 첫날의 테마이자 기조강연, 문제 설정, 각 발표에 공통된 핵심어는 생활 변화와 생활 개선이었다. 여기서 ‘생활’이란 어떤 내용을 지니며 민속학이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되는가? 이 문제를 통해 각 발표에 대해 토론하기 전에 좀 돌아가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먼저 이 개념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 방법을 통해 오늘 이루어진 발표들뿐만 아니라 심포지엄의 성격 또한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

일본에서의 ‘생활’이라는 단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거기서 의도된 질적 파악으로의 전환에 관해서는 이와모토 씨가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어휘는 중국에서도 근대 이전의 언어 공간에서 오늘날 우리가 즉시적으로 상상하는 듯한 내용을 자명한 것으로 포함하는 말이 아니었다[岩本, 2009 · 2011]. 먼저 그 부정합에 대해 소묘해 보겠다.

중국어가 다른 언어로 활발히 번역될 필요가 있었던 1900년 전후의 화영/영화 사전을 살펴보자.

1892년에 간행된 Herbert Allen Giles(이후 캠브리지 대학 중국학 교수)에 의한 저명한 『Chinese-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중국어 ‘생’이란 To bear; to bring forth; to produce; to beget. To be born이며, 이런 의미에서 「滅」 「沒」 「死」 「薨」의 반대말이 된다. 또 Raw, fresh; Barbarous; unfamiliar, unacquainted with라는 의미도 있는데 「熟」이 그 반대말이다. 이 외에도 to be alive; living; life라는 의미로도 쓰여지는데, 그 예로 「生理、生活、生業、生涯」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중국어에 대응하는 의미로 Occupation, livelihood가 있다. 특히 두 번째, 즉 「生活」은 to make a living도 의미한다고 해설되었다[Giles, 1892(1912)].² 오늘날의 「生活」의 의미와 가까운 내용도 있다고 지적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근현대 중국의 인쇄출판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美華書館)가 1905년에 발행한 P. Poletti 저 『A Chinese and English Dictionary』는 한자 한자마다 설명이 이루어져 속어의 용례는 거의 없지만, 「生」은 to produce; to bear; life; unripe; new; unpolished; raw; to arise, to grow, to beget라고 해설되어 오늘날 「生活」을 상기시키는

life(이 또한 전후해서 출판된 사전의 용례에서는 「살아 있는 것」을 가리키는지도 모르겠지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다양한 「生」의 내포된 의미들 중에서 우위를 잡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Poletti, 1905].

위 사전들은 서구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국학자들에 의한 번역 사례를 살펴보자. 1929년에 출판된 『A Complete Chinese=English Dictionary』는 O.Z.Tsang이 편찬한 화영 사전이다. Tsang은 당시 ‘중국의 하버드대학’으로 알려졌던 크리스천 계열 대학의 유력 학교였으며 많은 지식인들을 배출한 St. Jhon’s University(성 요한 대학)의 정규 번역 교원이었다. 그가 편찬한 이 사전에서도 「生活」에 관한 항목은 「生活or生計or生涯」이며 이에 대한 번역어는 「Living; livelihood; Way of life; occupation」이라고 되어 있다[Tsang, 1929]. 언뜻 보기에는 오늘날의 ‘생활’과 유사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환 가능한 어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살아 있는 것」 「生存」 외에 「살아가는 기술」 혹은 그 구체적인 표현(직업)이 중심된 의미였다. 이 사전에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生活程度: the standard of living」과 같이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생활’ 개념의 확대를 찾아볼 수 있으나, 「Biodynamics」의 번역어로 「生活機能学」이 제시되는 등 아직까지 생물학적 생존으로서의 ‘생활’ 즉 「生」 「活」의 양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의 ‘생활’로 번역할 수 있을 듯한 영어에 의한 개념을 어떻게 중국어화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위 검토에서 드러난 ‘생활’에 대한 설명 중 현재 용법과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life 및 living에 주목해보면 1905년에 만들어진 『English-Chinese Dictionary of standard Chinese Spoken Language <官話> and Handbook of Translation』에서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Hemeling, 1916].

Life란 「性命、生、生命、命、活命、在世之時間、終身、一生、一輩子」이며 「Manner of living」으로서 「過日子的樣式、行為、舉動、品行、世路、平生的境遇、力、氣力、精力」을 들었다. High life의 번역어로 「高等生活」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生活、生機、生氣」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Animation」이며 이 항목에서 오늘날 ‘생활’과 가장 가까운 번역어는 Not a daily necessity of life의 번역어 「非民生日用所必需」의 「民生」이라고 할 수 있겠다.³ 한편 Standard of living의 번역어로 「生活程度、生事程準、國民生計階級」이 보인다. 이 번역어를 둘러싼 지적 배경은 후술하는 타오 멩허(陶孟和) 등의 연구로 전개되어 갔다.

관련 어구도 비슷하여 Livelihood의 의미로 「養廉、養贍、營生、生活之計、生計、養生之計、生涯」와 같은 뜻이 부여되어 to get a livelihood는 「過日子、度日、糊口、生活、營生」으로 설명되었다. 또 Living alive는 「活的、活著、活、生活」이며 Living(livelihood)의 의미로는 「養廉、營生、生活之計、養生之計、生計、生涯」가 해당된다고 여겨졌다.

이 사전에서도 ‘생활’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상황을 지시하며 당시의 의미로 보아 「生理」, 「生涯」와 동일한 범주의 단어였다. 즉, 살아가기 위한 수입과 직업, 그 기술과 같은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1900년 전후의 영어/중국어 사전에 나타난 뜻과 현대적 의미 사이의 불일치를 최근에 편찬된 고어사전을 통해 검증해 보겠다. 고전 시대 어휘의 의미를 해설한 『近代漢語詞典』에 따르면 ‘생활’이란 「工作、活計」 「物件、物品」을 뜻하며, 전자에 대해서는 『独角牛』, 『金瓶梅詞話』의 사례가 언급되었다. 이들은 모두 생계, 생업에 관한 사례이다[許少峰, 1997]. 유사한 취지로 편찬된 『漢字古今義合解字典』에서는 「生」의 자의에 대해 「①成出、生長、②人的出生、生育、③產生、發生、④活著、生存、⑤生產、⑥生計、生活、⑦生命、⑧一生、卒生」이라고 제시하였다. 여섯 번째에 ‘생활’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는 ‘생계’와 같은 범주에 있다[許威漢·陳秋祥, 2002]. 실제로 7번의 용법

해설로 『捕蛇者說』의 『而鄉隣之生日蹙、殫其地之出、竭其廬之入、号呼而轉徙、饑渴而頓踣』의 ‘생’이 해당된다고 하지만, 현재적 ‘생활’의 의미로서는 같은 텍스트 중에서도 후반의 『故為之說、以俟夫觀人風者得焉』의 『人風』이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1900년 전후의 영화 사진 및 고전 중국어에 관한 사전을 가지고 간단히 검토해보았다. 이상을 통해서 ‘생활’이라는 개념이 현재적 ‘생활’과는 다른 의미, 적어도 예를 들자면 『The Oxford Chinese Dictionary』(2010)에 기술된 ‘생활’로 시작되는 18개의 번역어(예를 들어 생활필수품 = daily necessities, 생활방식 = way of life, 생활조건 = living conditions, 생활작풍 = conduct) 등의 함의와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중국 근현대의 수입 어휘를 다룬 고전적 명저인 『現代漢語外來詞研究』[高 외, 1958] 등에서도 간과되어 왔다. ‘생활’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당연한 어휘이기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야말로 토론의 입각점, 즉 우리들은 어떻게 개념을 변화시키고 어떤 의미로 ‘모험’의 대상으로 삼았고 무엇을 고찰 대상으로 해왔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념 용법의 확장, 변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 ‘생활’ 개념의 ‘모험’

‘생활’ 개념의 용법 확장 및 변천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된 Harvard-Yenching 연구소에 소장된 중화민국시대의 서적을 정리한 목록 『美国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藏民國時期圖書總目』[龍, 2010]을 자료로 검토해보자.

이 책의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과 관계 깊은 ‘사회과학류’에 기재된 서적들 중 ‘생활’이라는 어휘가 포함된 작품 33점을 시대 순으로 열거하면 흥미로운 경향을 찾아낼 수 있다.

가장 초기인 1928년에는 『馬來半島土人之生活』, 『中国婦女生活史』와 같은 오늘날의 ‘생활’과 부분적으로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1930년에서 32년에 걸쳐 『北平生活費之分析』, 『上海工人生活程度的一個研究』와 같은 후술하는 타오 멩허 등과 관련 있는 저작으로 대체된다. 이 시기의 ‘생활’은 구미의 이론, 사회실천적 영향 속에서 중국어 본래의 ‘생계’와 가까워서 수량적인 파악이 가능한 측면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1934년에 국민당 정부에 의해 신생활운동이 시작되자 ‘사회과학류’ 항목 전체의 ‘생활’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서적은 이 정치운동에 관한 서적 일색으로 변하였고 이 경향은 1939년까지 이어졌다. 여기에서는 『農民的新生活』, 『兒童的新生活』, 『婦女的新生活』, 『文藝家的新生活』 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정치운동으로서의 신생활운동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서적의 출판사가 南京正中書局이며 각각의 저자, 편집자들의 경력을 보면 이 시기의 ‘생활’이란 신생활운동의 그것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연구소 소장 서적 중 문두에 ‘생활’이 쓰인 서적을 정리해보면 1928년에 출판된 생물학 텍스트 『生活進化史ABC』가 효시이다. 1934년에는 타오 싱즈(陶行知)가 교정한 『生活的書』(汪達之) 등과 같은 사회운동적 성격의 서적, 그리고 지식 및 실천의 융합형태로서의 중요한 서적도 등장한다. 그러나 신생활운동의 시기에 급증하는 ‘사회과학류’와는 달리 1940년대까지는 전체적으로 출판량이 적다. 1940년대가 되자 1941년에 林語堂의 『生活的藝術』(原著는 “The Importance of Living” (1937), 일본어 번역은 사카모토 마사루 역 『生活의 發見』(1952)이다. 현재 일본어 제목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로 변경되었다.)이 번역 출판된 즈음에 이상적인 인생을 보내는 방법과 같은 서적들이 늘어난다. 연칭 연구소 소장 목록에 보이는 林語堂의 “The Importance of Living”의 중국어판은 黃嘉德 역, 西風社出版에 의한 서적인데 거의 동시기에 다른 역자에 의해서도 중국어판이 출판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역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Art의 역어를 검토 음미한 동시대 중국 지식인의 지적 전제에 서서 저우 쩌런(周作人)이 제창한 「生活之藝術」을 방불케 하는 『生活的藝術』이라는 번역을 채용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생활’은 「智慧」, 「思想」, 「體驗」, 「幸福」과 연결되는 단어로 보급되었다. 그 의미는 앞서 검토한 1900년 전후의 화영사건의 단어를 부연하자면 계속되는 생존, 생애, 인생이라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林語堂에 큰 영향을 준 민속학자 저우 쩌런은 이미 1920년대부터 이러한 의미의 ‘생활’을 논했다. 이런 점에서 민속학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 단어를 학문영역의 중심개념으로 삼아 사색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도 할 수 있겠다.

3. ‘생활’과 ‘사회조사’: 개선 대상으로서의 ‘생활’

토론을 위한 예비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중화민국기에 나타난 새로운 의미를 지닌 ‘생활’과 이를 ‘조사’하는 시선과의 관계에 대해 논해보겠다. 중국 사회학에서 초기의 체계적인 사회조사는 1914년에 실시된 『關於北京302個人力車夫生活情形』으로 보인다. 즉 여기서는 이미 초기부터 ‘생활’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크리스천 계통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입 학문으로서 연이어 개설된 사회학의 교원이었던 John S. Burgess의 지도아래 Student Social Service Club(사회실진회)가 실시한 것이었다. 이 조사에 참가한 후 영국에 유학했던 타오 멩허는 梁宇皋와 함께 당시 영국 사회학에서 활발했던 도시빈민층의 연구동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농촌과 도시의 ‘생활’에 관한 박사논문을 제출했다(Leong, Y. K & Tao, L. K. "Village and Town Life in China"(1915), 陶孟和·梁宇皋『中国的鄉村與城鎮生活』). 타오 멩허는 귀국 후 사회조사소 소장에 부임하여 많은 조사에 관여했다. 조사 대상으로서의 ‘생활’이란 대부분의 경우 도시에서 새롭게 탄생한 계층인 하층노동자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北平生活費之分析』(陶孟和, 1926), 『上海工人生活程度的一個研究』(楊西孟·社會調查所, 1930), 『上海市人力車夫生活狀況調查報告書』(劉宝衡·上海市社会局, 1934), 『成都市生活費之研究』(楊蔚·金陵大学農学院, 1940) 등을 발표했다. 이러한 ‘생활’에의 관심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조직에도 공유되어 『全國工人生活及工業生產調查統計報告書』(工商部, 1929), 『全國工人生活及工業生產調查統計總報告』(工商部, 1930), 『中大工人生活調查』(袁昂·吳永成, 1931年), 『鐵路工人生活調查』(賈銘, 1933) 등의 조사로 이어졌다(이 조사보고의 일부는 李文海 외, 2004에 재수록).

또 이 시기의 중국 사회학에는 ‘생활’을 다룬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다. Sidney Gamble은 Burgess처럼 크리스천 계통 대학을 통해 중국에 사회학을 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서도 특정 관점에서의 ‘생활’ ‘조사’의 깊은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이 시기의 중국 사회학 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閻, 2004]를 참고할 것). Gamble은 주로 베이징에서의 조사를 조직했으며 Burgess가 도와 the Princeton University Center와 the Peking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이 후원한 조사인 『Peking: A Social Survey』[Gamble, 1921]와 앵겔 계수 등 당시 최신 이론을 이용한 『二十五來北京之物價工資及生活程度』(孟天培·Gamble 지, 李景漢 역, 1925·1926) (平野正雄 역 『北京에서의 25년(1900~1924년)의 물가·공자·생활정도』, 1942), 『Peking Wages』(1929) 등이 유명하다. 흥미로운 것은 Gamble의 대표작인 『How Chinese families live in Peiping; a study of the income and expenditure of 283 Chinese families receiving from \$8 to \$550 silver per month』[Gamble, 1933]는 중국에서는 직역되는 방식으로 『北平的中国家庭是怎麼過活的』, 혹은 『北平的中國家庭是怎麼生活的』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변화하는 생활 개념에 흔들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일본에서 1940년에 福武直에 의해 『北京의 支那家族生活』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서의 일부는 관혼상제, 의류에 대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부제가 보여주듯 베이징의 283세대의 수입과 지출, 예금을 조사 분석한 경제적 관심에 기초한 조사결과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현재적 의미에서의 ‘생활’은 아니다.⁴ 여기에서도 생활 개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전개된 중국어 생활 개념의 사용이 지나는 함의는 당시 사회 ‘문제’가 되었던(당시 사회학의 주요 테마 중 하나였던 범죄 등) 도시부를 중심으로 한 하층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관심과 당시 유행했던 생활비 조사였으며 타오 멩허와 Gamble의 보고가 보여주듯이 현재적 의미에서는 ‘생계’라고 해야 할 문제의식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생활’은 중국의 독자적 사회학의 건설에 힘을 쏟으면서 다른 사회 조사의 형태를 만든 吳文藻가 지적한 ‘사회 조사의 근원은 프랑스 Frederic le Play가 행한 노동자 생활이 형성한 많은 가계부에 대한 현지 고찰로 거슬러 올라간다’[吳, 1935]는 조사 연구의 직접적인 연장선 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개된 ‘생활’ 개념과 이번 심포지엄의 그것은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데, 생활 자체에 대한 파악이라는 점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확장된 ‘생활’ 개념은 수량적 파악이 가능한 대상인데 반해, 오늘 발표에서 유연하게 공유되어 있는 ‘생활’이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들의 관심은 무수히 가능한 과거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면서 과거에 구속되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미래로 이어지는 현재, 즉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절대적인 지평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과의 관련성을 통합시키고 의미 지우는가, 다시 말해 ‘살아 있는가/살아 왔는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자료와 함께 기억, 구술, 신체기법 등을 방법론의 중심에 두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중국의 사례를 통해 ‘생활’이라는 얼핏 너무도 자명해 보이는 개념이 각 시기에 각 논자의 관심에 따라 변화, 전환되어 온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생존,’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 근근이 살아가는 생업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일부에서는 수입 지출을 중심으로 한 수치적으로 계측 가능한 대상이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교훈이나 삶의 방식에 대한 계몽, 일시적으로는 몸동작, 예의, 교제, 근대적 시간 및 금전 사용 등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생활’이라는 개념은 규정하는 내용의 차이를 동반하면서 각각의 시기에 형성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4. ‘생활’의 개선, 향상 운동을 둘러싸고: 행정적 단편화, 운동의 주체, 개인화

이번 심포지엄은 ‘생활’ 개선에 관한 운동을 테마로 삼았다. 각 발표에 공통된 사항을 정리해보면, 상호 관련되는 1) 행정에 의한 운동에서의 ‘생활’의 단편화, 2) 운동의 주체성, 그 전개의 하나로서 3) ‘생활’의 개인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들은 가까운 과거의 현상으로 생활 개선에 관한 연구를 넘어서 향후 민속학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먼저 행정적으로 생활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 구체적인 대상의 문제화, 개선조치와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은 종종 단편화된다. 다나가 선생님의 기초 강연을 통해 알 수 있었던듯이 여기서 생활의 개선이란 구체적으로는 부뚜막, 부엌, 목욕탕의 개선이나 파리, 모기의 구제이며, 남선생님 발표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새마을 운동에 포함되었다고는 해도 주택개량, 하수구, 공동퇴비장 설치 등 몇 가지 전형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했다. 이는 현재의 생활을 개선 혹은 ‘새로운 생활’을 획득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조치이기도 하지만, 운동의 구체적인 대상이 ‘생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른바 제유적인 관계임을 의미한다. 마치 ‘생활’의 일부로 이해되는 단편들의 개량은 분명 현재 우리들의 삶을 규정해 왔지만, 운동 속에서 개량되었던 이들 단편과 생활은 단순한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아니라 개량 항목 전체를 다 합쳐도 오늘날의 ‘생활’을 재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단편화된 항목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각을 포함한 관계성에 주목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생활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떠한 문제를 대상화하기 위해 변화해온 개념이라는 사실을 잊고 민속학의 중요 개념으로 다듬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사상적 공백으로 인해 민속학은 다나카[2011]와 같은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 눈앞에 전개되는 우리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켜온 이 운동을 충분히 연구해오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 결과 행정에 의한 운동으로서의 생활 개선에 대해 일정한 평가는 할 수 있어도 그 ‘생활’의 총체성을 환기시켜온 현지조사에 기초한 연구 활동이 지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했다.

위정자에 의한 운동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관심은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 총체성을 해체시키고 구체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 되어 나타난다. 다음으로 운동의 주체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남 논문이 지적한 것처럼 주체성에 대한 주목은 ‘생활’의 쇄신을 목적으로 한 운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⁵

주체성 개념에 주목하면 예를 들어 다나카 강연이 지적한 생활개량보급원이 지역의 젊은 주부들을 조직하여 주민이 주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위한 조건을 정비해가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 전후 신생활운동협회가 이전의 정부가 주도한 일련의 운동들과는 달리 자주적인 개선을 지원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는 지적에서 이러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고지마 발표의 행정측 기록인 홍보지를 이용한 운동 이해와 운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의 차이, 또 남 논문의 새마을 운동 초기의 시멘트 배포 사례, 저우 논문의 관광, 체면, 국민생활의 향상이라는 위정자의 담론과 사람들의 도시생활 체험 등에 대한 주체성 논의도 그 맥락은 비슷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장 정면에서 다룬 발표는 아마나가 선생님이었다. 이 발표는 서로 교류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해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이라는 동일한 운동이기도 했지만, 생활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는가에 따라 이후의 전개가 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즉 행정 지도에 의한 운동으로서의 생활 개선에서는 참가주체가 각각 서로 다른 에이전트로서 관여하고 단편화된 해당 항목의 개선과 함께 활동은 끝났지만,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 스스로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액터로서 참가하여 이루어진 개선은 항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주체성의 문제가 민속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제는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넘어서서 검토될 필요가 있겠으나 오늘의 주제인 ‘생활’은 다양한 내포(와 그 내포의 가능성)에 의해 중요한 문제들을 강하게 환기시켜 준다.

오늘 발표들은 저우 논문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생활’을 개선 혹은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운동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지금은 생활개선운동이나 새마을운동과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운동은 시들해졌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는 특히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만일 그러하다면 개인화되는 생활 향상을 위한 실천을 민속학은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저우 논문의 화장실 혁명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화장실이라는 언뜻 보기엔 매우 개인적인 현상도 그 형성은 이를 둘러싼 인프라 정비나 전문 설비 등의 조건, 환경, 기술이 관련되는 복잡한 전체 하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생존환경을 형성하는 ‘세계’를 상세히 고찰하고 자성의 기점을 창조해가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 때 강조해야 할 것은 민속학의 중심적인 수법, 즉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주관적인 사실들로부터 현상을 재구성하는 방법의 중요성이다. 여기에는 행정적 단편화를 거

친 ‘생활’의 파악, 암암리에 ‘조사자’와 ‘비조사자’의 분단을 자명한 전제로 하는 ‘사회조사’에서의 ‘생활’ 파악과는 다른 새로운 이해이다.

또 비록 ‘생활’의 계속적 구축이 개인화되더라도 모든 것이 개인에 의한 완전한 창조성에 맡겨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하향식이던 상향식이던 ‘생활’을 계속적으로 구축해가기 위한 모델, 지식, 경험을 얻어 해석하는 경로가 확보되어야만 한다. 개인화하고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한편, 모델, 지식, 경험을 요하는 상황은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혹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변화를 규명한다는 현재적 필요성에 따라 과거 생활의 ‘감각’적 경험을 축적해온 성과와 필드워크로 얻은 성과를 아카이브화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 개인화된 사람들을 다시 연결짓는 기능은 비록 과거의 운동을 축으로 한 아카이브라 해도 동시대에 수평적 방향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아카이브를 이용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은 현재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민속학이 중시해온 대면적 상황이든, 또는 최근 발달한 SNS로 대표되는 비대면적 관계성이든 개인화된 사람들이 각각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생활’에 관한 아카이브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미 고립된 단편이 아니라 가변적인 네트워크 속에 유연히 포함됨과 동시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지닌 지식과 실천의 결절점을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민속학이 어떻게 사회와 관여해 가는가라는 문제에 한 가지 방향을 제공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5. 맺는말

이상에서는 시대나 대상은 다르나 ‘생활’의 개선을 주제로 한 이번 발표들로부터 지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다.

이 글은 본 심포지엄의 발표들에 공통되는 ‘생활’이라는 개념이 가리키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으며 각각의 시대, 지적 배경 속에서 ‘모험’의 대상이 됨으로써 무엇을 파악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민속학은 ‘생활’ 개념을 충분히 검토하고 삶의 향상, 개선운동에 관한 고찰을 충분히 축적했다고는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발표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필드 경험을 대상화함으로써 생활개선운동이 무엇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현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까지 중시되지 않았던 논점들, 즉 우리가 ‘생활’의 입각점의 양상이었다.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의 이 개념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를 위해 이 개념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민속학에 요구되고 있다.

注

- | | |
|---|---|
| <p>1 이 글은 일본민속학회 국제심포지엄 ‘평범한 일상/변해가는 일상’ 제1부 ‘대상: 생활 변화와 생활 개선’에서 토론한 내용을 수정 가필한 것이다.</p> <p>2 당시의 중국어로 『生理』는 직업에 가까운 의미를 가졌다.</p> <p>3 심포지엄 자리에서 발표자 저우싱 씨로부터 오늘날 중국에서 ‘생활’에 해당되는 어휘로 ‘민생’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글에서 소묘한 중국에서의 ‘생활’ 개념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일본의 영향, 엔</p> | <p>징 대학의 필드 실험기의 성과 등을 포함하여 당시 사회학적 조사의 맥락 안에 위치시켜 검토하는 방식으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는 다른 글에서 다루기로 하겠다.</p> <p>4 여기에서는 번역어를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후쿠타케의 역서에 대해서는 당시 내용대로 제시했다.</p> <p>5 심포지엄 토론 때 청중이었던 이토 아비토 선생님께서 부터 ‘생활’ 개선이 지적, 실시될 때 그것이 평상시에는</p> |
|---|---|

애매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일방적인 시선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바로 이 문제야말로 최근

중국 민속학에서 논의되는 문제들, 즉 ‘민속’의 ‘민’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것과 연결된다.

참고문헌

- 岩本通弥, 『「生活」から「民俗」へー日本における民衆運動と民俗学』、東国大学校文化学術院日本学研究所(編), 『日本学』 第29輯、東国大学校文化学術院日本学研究所, 2009.
- _____, 『家族をめぐる二つの生活改善運動 民力涵養運動と新生活運動』、田中宣一(編著), 『暮らしの革命: 戦後農村運動の生活改善運動と新生活運動』、農山漁村文化協会, 2011.
- 閻明, 『一門学科與一個時代: 社会学在中国』、清華大学出版社, 2004.
- S.D.ギャンブル(福武直訳), 『北京の支那家族生活』、生活出版社, 1940.
- 許威漢、陳秋祥(主編), 『漢字古今義合解字典』、上海世紀出版社, 2002.
- 許少峰(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 吳文藻, 『西方社区研究的近今趨勢』, 『吳文藻人類学社会学研究文集』, 民族出版社, 1935(1990).
- 高名凱、劉正琰, 『現代漢語外来詞研究』, 文字改革出版社, 1958.
- 田中宣一, 『生活改善諸活動について』, 『暮らしの革命: 戦後農村運動の生活改善運動と新生活運動』, 農山漁村文化協会, 2011.
- 李文海ほか(編), 『民国時期社会調査叢編・城市(劳工)生活卷』, 福建教育出版社, 2004.
- 龍向洋, 『美国哈佛大学燕京圖書館藏民国時期圖書總目』, 廣西師範大学出版社, 2010.
- 林語堂(阪本勝訳), 『生活の発見』, 創元社, 1937(1952)(『人生をいかに生きるか』 上下, 講談社)、(原著: Yutang, Lin, “The Importance of Living”, New York, John Day)
- Giles, Herbert, “A Chinese-English Dictionary”, Revised & Enlarged, in Shanghai, London, 1892(1912 second ed).
- K.Hemeling, “English-Chinese Dictionary of standard Chinese Spoken Language<官話> and Handbook of Translation”, Shanghai: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1916.
- O.Z.Tsang, “A Complete Chinese-English Dictionary”, The Republican Press. Shanghai, 1929.
- P.Poletti, “A Chinese and English Dictionary”, Shanghai: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905.
- S.D.Gamble, “Peking: A Social Survey”, New York, GeorgeH.Doran, 1921.
- _____, (field work in charge of Wang Ho-Chen and Liang Jen-ho), “How Chinese families live in Peiping: a study of the income and expenditure of 283 Chinese families receiving from \$8 to \$550 silver per month”, New York, Funk & Wagnalls, 1933.